

2010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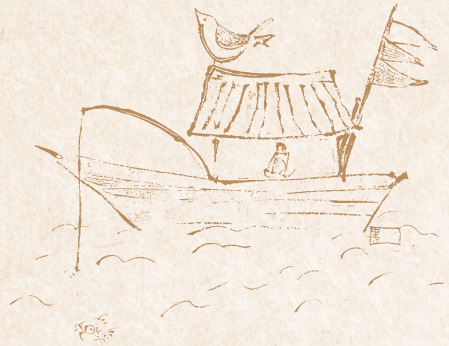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2010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를 내면서...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는 올바른 의사 결정의 근거가 되는 통계의 필요성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통계정보가 좀 더 세분화되고 다양한 양질의 통계일 것을 요구합니다.

질 좋은 통계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응답자의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진솔한 응답이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조사기획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우리 통계 조사직원의 애환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조사할 것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조사환경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 가니 조사직원의 끊임없는 정성과 노력으로 응답자의 마음과 문을 열어야 합니다.

조사직원과 응답자의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를 모은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는 사명감으로 현장을 뛰는 통계 조사직원들의 애환과 응답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는 통계자료의 소중함을 함께 느끼게 해주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각에도 2천여 통계청 조사직원은 보다 정확한 통계자료 수집을 위해 시린 손을 비비며 굳게 닫힌 조사대상처의 문을 간절한 소망으로 두드립니다.

가끔은 너무 높기만 한 조사대상처의 문턱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깊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마음을 나눠줄 것이라고 믿으며 한 발짝씩 응답자 속으로 다가가는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과 격려를 보냅니다.

끝으로 조금은 귀찮지만 진실하게 응답해 주고 좋은 글로 우리 직원을 기억하며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겨주신 응답자 여러분과 가슴이 찡하고 감동스러운 조사현장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 준 조사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12월

통계청장 이 인 실

차례

| 인사말

02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

08 김경란 | 농가의 수호천사를 꿈꾸며~~

14 김영희 | 속향아~~ ♪ ♪

19 이연하 | 할머니! 잘 계시는거죠?

25 최미향 | VOLVO의 통계청 사랑

30 김은영 | 가끔 보고 싶은 언니


36 최승희 | 가을하늘과의 약속


40 김태경 | 내 삶의 내검

45 윤용복 | 자네와 사모님

49 장여진 | 전자가계부 사용 가져다준 작은 선물 

52 이경애 | 그리운 남편의 잔소리 

58 박주연 | 노년의 즐거움 

61 양윤실 | 우리 집 행복바이러스! 

65 조명숙 | My Plan 가계부 



힘들수록 더 가까이

- 70 정선화 | alleh!!
- 77 이민자 | 소비자가 웃는 그 날까지
- 85 박상미 |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 92 장수선 | 한결같은 마음으로
- 96 배은경 | 덩동~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 102 문명숙 | 해마다 3월이면
- 109 문석환 | 당신, 외관원 맞지!
- 115 김진아 | 더 진실하게, 더 친절하게, 더 열심히
- 121 곽혜진 | 농심(農心) 그리고 공감(共感)
- 127 김정숙 | 지성이면 감천
- 135 김선영 | 시작
- 141 박문봉 | 나는 당신의 연예인!!!
- 145 류보선 | 우리 사무소는 농가경제조사를 도난당했습니다
- 149 김영찬 | 가계부 쓰는 남자 
- 153 이난영 | 가계부작성과 함께 부자되세요 
- 158 박중식 | 통계청과 나 



참 고맙습니다

- 164 김애정 | 통계조사 동반자
- 172 이영재 | 외국인 형이 생기다
- 176 이형록 | 농어업통계인으로 살아남기
- 181 오황봉 | 그때 그사람
- 187 홍영미 | 장학생 할머니
- 191 이유현 | 통계청과 함께 시작된 결혼생활 
- 194 박전숙 | 부족한 나의 2%를 채워준 가계부 
- 198 김지연 | 가계부 쓰는 재미를 알게 됐어요 
- 201 최 현 | 주부 9단의 대열로... 
- 205 박혜경 | 내 인생의 가계부 
- 208 최영실 | 소중한 인연을 마치면서 
- 212 김철상 | 기분 좋은 만남 

1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



농가의 수호천사를 꿈꾸며~~

최우수상

동북지방통계청 삼척사무소 김 경 란



배추밭에서 배추꾼 뭍다기 **찰카**

나는 농가경제 조사를 위해 잦을 때는 사흘에 한 번, 아무리 뜸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농가를 방문한다. 농가에서 있었던 수입과 지출내용, 그리고 농사일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는데 노인 가구가 많아 조사에 어려움이 많다. 힘든 농사일에 지치기도 하고 농사라고 일 년 내내 고생해봐야 농약 값 비료 값을 빼고 나면 빈주머니만 남아 병원비도 없어서 아파도 참아야만 하는데 통계조사를 한답시고 방문해서 꼬치꼬치 물어대는 조사원이 반가울 리 없다.

농가 어르신 중에는 인자하고 푸근한 분도 있지만 힘든 생활 탓인지 무뚝뚝하고 폐쇄적인 분들이 많고 어찌다 마주치는 가구원의 자녀들도 “별 걸 다 조사한다.” “왜 우리 아버지 집에서 그런 걸 조사하느냐?”며 따까운 시선을 보낸다. 처음 일계부를 내밀며 조사를 부탁할 때는 허락

했지만 막상 매주 방문해서 조사를 하다보면 “뭐 이런 것까지 물어봐!” 하는 말과 함께 귀찮은 기색이 역력하다. 하지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입장이고 보면 포기할 수가 없다. 때로는 철면피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갖은 아양과 애교를 떨며 조사를 하기도 한다. 언젠가 시내 거리에서 남편과 함께 가다가 우연히 가구주를 만나 몇 마디 인사를 건넸는데 남편은 집에서 20년을 함께 살아도 단 한 번도 그렇게 친절하고 애교를 떨 적이 없다며 나를 놀렸다.

나는 사무실을 나서며 늘 다짐을 한다. 조금 힘들어도 이해하고 참으며 때로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자.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으로, 그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자고 다짐을 한다. 스위치만 올리면 금방 뜨거워지는 전기장판이 아니라 서서히 데워지지만 아침까지 식지 않는 온돌 같은 사람이 되자. 그렇게 다짐에 다짐을 거듭하며 생활한 지 4년째. 나는 단순히 조사만 하는 통계조사원이 아니라 어느새 조사구분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더운 여름날에 선풍기도 없이 지내는 가구, 연탄가스가 질린다며 전기밥솥에 밥 한번 해먹는 것이 소원이라는 할머니, 전화는 외지에 살고 있는 자녀로부터 걸려오는 전화 받는 것으로만 사용하는 가구 등 다양하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 댁을 방문해서 전화요금 고지서를 봤는데 그렇게 아끼며 생활하는 가구에 전화요금이 8,610원이 나왔다. 사정이 비슷한 다른 가구는 4~5,000원 정도 나오는데 매월 8천 원씩 나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터넷에 KT 정액요금 환급에 대한 글이 올라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와 있었다. 그 날 당장 조사 가구에 나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정액요금제에 가입돼 있었다. 사용량과는 무관하게 일정금액이 부가되는 정액요금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가구주였는데, 귀도 어둡고 특히 전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상대방 말을 잘 알지도 못한 채 별 생각 없이 “예”라고 대답한 것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해서 일정금액이 부과되었던 것이었다. 가구주와 나란히 앉아 전화국에 전화를 걸었다. 몇 차례의 시도 끝에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 정액요금제를 해제하고 그동안 납부했던 정액제 관련 요금 201,000원을 환불받았다. 뜻밖의 목돈을 받고 고맙다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르신들의 표정에서 나는 무한한 행복을 느꼈다.

다른 가구 중에 심야전기요금인 773,000원 청구된 적이 있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한겨울에도 20만 원을 넘지 않던 요금이 갑자기 77만 원 넘게 나왔다며 가구주의 얼굴색이 잿빛이 되어 있었다. 우선 걱정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다. 분명히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아 볼 테니 안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전에 전화민원을 접수를 했다. 한전 접수처에는 점검요원이 점검 나오기 전에 반드시 나에게 전화를 달라고 부탁도 함께 했다. 금방 해결될 것 같았는데 연락이 없었고 몇 차례 독촉 전화 후 만난 점검 직원은 계량기 고장으로 잘못 부가됐으며 청구된 금액은 자동이체 되지 않을 테니 걱정 말라고 했다. 하지만 월말에 통장을 정리해보니 통장에 남아있던 돈이 몽땅 빠져나가 있었다. 한전에 전화를 해서 잘못 출금된 금액을 입금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일주일도 지나도록 입금이 되지 않았을 때 다시 한전에 항의전화를 했다. 농가경제조사를 하는 통계청 직원이라고 정식으로 소개를 했다.

“개인 업체도 아닌 공기업에서 이렇게 거둬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한전의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해 정식으로 항의를 했다. 며칠 후 한전 직원이 사무실로 찾아와 죄송하다는 말과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수 인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사과했다. 그리고 출금액은 전액 계좌로 입금하겠다는 말과 함께 농산물 상품권을 내밀었다. 그 후 잘못 출금된 금액이 입금된 통장과 농산물 상품권을 가구주에게 전했다니 통계청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내 손을 꼭 잡으며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했다.

또 다른 가구에서는 지금 생각해도 가슴 떨리는 사건이 있었다. 햇볕이 따가운 여름날 조사구에 갔는데 골목 어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평소 내성적인 성격이라 말도 없고 사람들과 눈도 잘 마주치지 못하는 가구주가 술에 취해 집에 불을 질렀다고 했다. 농사일을 마치고 힘들 때면 자주 소주를 마셨는데 그 날도 술에 취해 창고에 있던 면세 유를 가져와 거실에 불을 질렀다고 한다. 갑자기 불길이 번지고 검은 연기가 집안 가득 차자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 집 밖으로 뛰쳐 나왔다고 한다.

소방차가 5대나 왔었다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앞마당에는 엉망이 된 일계부가 보였다. 검은 그을음과 화재진압과정에서 물이 튀어 엉망이 된 일계부가 마치 내 모습 같았다. 자주 방문했으면서도 조사만 하느라 그분의 아픈 마음을 보살피지 못한 내가 부끄러웠다.

불에 탄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옷이며 이불을 빨고 도배를 하는 등 온 몸에 재를 묻혀가며 뒷수습을 함께 하며 참회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조금의 여유가 생겼을 때 가구주의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보기로 했다.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젊은 시절부터 참고 살아온 한이 폭발한 것 같았다. 가구주 내외분을 모시고 북평 5일장에 가서 장터국밥을 함께 먹으며 그 분들의 외로움과 답답한 현실을 함께 보듬어 안았다. 물론 그 후 자녀들의 감사 인사를 들었으며 통계 조사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되었다.

먼 친척보다 이웃사촌이 낫다는 말이 있다. 멀리 살고 있는 자녀보다 자주 방문하는 통계청 딸이 더 좋다는 말을 들을 때 나는 보람을 느낀다. 나도 멀리 떨어져 있어 명절 때나 찾아가는 친부모님에게 하지 못한 효도를 조사구 어머니 아버지께 해드리며 마음의 위안을 삼고 있다. 조사를 하면서 도시에서 자라 알지 못했던 농촌의 어려움을 알게 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일상의 작은 것들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다. 남들은 돈 들어가며 봉사활동이며 체험활동도 한다는데 나는 돈을 받으며 일을 하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리고 나의 작은 노력과 행동으로 그들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를 번지게 하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지만 조사 경력 4년째 그동안 조사구가 바뀌어 자주 만나지 못하는 가구도 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문구처럼 ‘한번 통계청은 영원한 통계청’이라는 농담을 하며 조사가 끝난 조사구의 방문도 빠뜨리지 않으려 노력한다. 명절에 식용유 들고 꼭 방문해야 하는 가구, 생일에 꼭 들러 양말 한 켤레라도 건네야 마음 편한 가구가 있는가 하면 초과일에 모시고 세 군데 절을 함께 방문해야 하는 가구 등 나름의 방문주기도 만들어 보았다.

통계조사를 하면서 주변으로부터 지나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열심히

노력한 나의 행동은 내가 뿌린 것보다 더 큰 열매가 되어 나에게 돌아왔다. 휴일에 조사구 결혼식에 함께 참석한 딸이 조사구 할머니를 잘 따르기에 마을 회관 준공식 날에도 같이 간 적이 있었다. 주방에서 국수를 삶는 등 딸과 함께 마을 부녀회 일을 도우며 하루를 보냈다. 그런데 딸은 그 날 어깨 너머로 경험한 농촌 문제를 글로 써서 백일장에서 큰 상을 받아 가슴 벅찬 기쁨을 주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가구 중에는 조사기간 5년 중 벌써 3년이 지나갔다고 아쉬워하시며 “앞으로 2년만 지나면 우리 집 조사 끝나는 것 맞지? 그럼, 우리 집에 안 오는 거지?”라며 아직도 멀리 있는 이별을 벌써부터 걱정하는 정 많으신 분도 있다. 조사를 하면서 힘들 때도 많지만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면 더 힘들 것 같아 나보다 더 힘들게 생활해온 조사구 아버님의 굵은 손마디를 떠올리며 마음을 추스른다.

오전에 농가에 나갔더니 조사구 어머니가 어제 옆집 개한테 물려 강릉 사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한다. 여름 내내 농사짓느라 고생한 우리 조사구 어머니, 좋은 일만 있으면 좋으련만 또 어찌다가 그런 변을 당하셨는지….

나이 많고 움직임이 더디다 보니 이렇게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른다. ‘얼마나 다쳤는지? 혹시 상해보험은 들었는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없는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바빠진다. 내일은 서둘러 일을 끝내고 강릉 사천병원으로 달려가 우리 어머니의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 드려야겠다.

숙향아~~ ♪♪



우수상

호남지방통계청 강진사무소 김 영 희

이들과 같이 놀으신 우리 부모님 존경합니다

자그만 산 아래 담쟁이넝쿨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지켜주고 있는가 하면, 개울물 소리가 졸~졸~졸 화음을 만들어 어르신들을 외롭지 않게 늘 동무처럼 지내는 동네가 있다.

이렇게 풍요롭고 안락한 곳은 내가 담당하고 있는 장흥군 유치면 경제 활동 조사구이다. 이 조사구는 대부분 고령층의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신다. 아침에 눈뜨면 노인정에 모여 서로의 살을 부비며 덕담을 주고 받고 적은 먹을거리에도 기뻐하며 종일 즐겁게 보내신다.

내 조사방법의 수단으로 가구에 가면 부르는 호칭이 있다. 70세 미만은 수식어가 붙은 언~니, 70세 이상은 전라도 말로 아짐! 하고 부르면서 “우리 아짐, 나 불라고 이쁘게 화장하셨네?” 로 시작한다.

그런데 이날은 가구 중 한 어르신이 노인정에 보이시질 않는다.

‘무슨 일이라도?’ 생각하면서 가구로 단숨에 달려가 “아~~집” 하고 불러 보지만 대답은 없고 텔레비전 소리만 들린다. 방문을 열어보니 남편과 반대로 누워서 울고 계신다.

이유인즉 17살에 가난한 집으로 시집와서 팔십 평생 자식을 위해 일만 하셨다. 금년 여름에는 일하시다 뼈가 부러지셨는데도 어느 자식 한 명 찾아 오지 않아 외로워하는데 텔레비전에서 ‘숙향아’ 란 노래를 들으니 서러움이 북받쳐 우신다고….

“내 팔자가 먼 놈의 팔자인지 자식새끼 가르치다 본게 82살이 됐부렀네! 이래 생겼어도 놀기 좋아하고 젊어서 노래도 잘 불렀는데… 언제 노래 한번 불러보고 죽을란고!”

노래를 무척 좋아하셨지만 가난이 한이 되어 오직 자식위해 일만 하다 보니 80살이 훌쩍 지나 죽음이 눈앞에 다가 온 것이 서럽고 두려워 하신다. 허망하고 허망한 당신의 삶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버렸냐고 우시는데 듣는 마음 너무 가슴 아파서 두 손 꼭~ 잡고 달래드렸다.

“아짐!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으세요. 아프신 아짐 곁에 자식이 있는가요? 아버님 계신가요? 아짐이 팔을 못 쓰는데 밥 차려준 사람은 자식인가요? 아버님인가요? 진정 사랑하고 함께 고락을 나누실 분은 자식이 아닌 아버님 이십니다. 잠도 그렇게 거꾸로 눕지 말고 나란히 주무시고 두 분 위해 맛난 것도 드시면서 즐겁게 보내세요.”

“오매! 어찌 이리도 맞는 말만 하요. 자식한테도 못 들어본 말을 통계청 아줌마한테 듣네? 그러 자식새끼 필요 없어! 시집간 딸년도 집에만 오면 두 눈 크게 뜨고 참깨며, 콩이며 있는 것 다 가져 갈라하고 아들놈 새끼는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42살인디 아직 장가도 안가고 내 속만 썩여!”

외로워하시는 두 분을 위해 부엌에서 소주병을 가져와 된장에 푹고추로
안주 삼아 한 잔씩 따라 드리며 ‘숙향아’ 노래를 어머님께 신청했다.

숙향아~ 너를 못 잊어 천릿길을 찾아왔지만

네 모습은 보이지 않고 짜라 짜라 짠 짠!!!

찬바람만 무섭게 불구나

아무리 내 잘못이 많다지만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아직도 내 사랑이 남아있다면 숙향아 돌아와 다오 ♪♪♪

창밖에 내리는 빗줄기와 화음이 어우러져 코끝이 찡하였다. 늘어진
노래 가락에 구슬픈 목소리….

82세 세월의 한이 이 노래 속에 다 들어 있는 듯하였으며 그 옛날에
아무리 노래를 잘 불렀다 한들 지금의 틀니 사이로 새어나온 ‘숙향아~’ 란
노래 소리보다 나왔을까?

이 조사구는 돌담 길 굽~이 굽~이 돌아 가듯 집집마다 애환도 많고
사랑이 결핍되어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놓으시면 금방 시간이 가버린다.
연로하여 병든 어르신들을 볼 때 마다 나의 발걸음은 이 조사구에서 떨어
지지 않는다.

한참 후 대문 밖을 나오는데 할머니께서 나를 부르시더니 찢 감자를
줘어 주면서 자주 오라고 하신다. 어머님의 사무친 사람에게 대한 그리움이
아닐는지.

이 조사구는 힘든 사연도 많았다.

연동표본 시작 때 생년월일을 파악하니 집단적으로 거부하여 조사구를 찾아가도 문도 열어 주지 않고 왜 왔냐고 소리 버럭버럭 지르셨다. 시골은 노인들을 이용하여 사기사건이 많아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문조차 열어 주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까 궁리 끝에 '비 온 뒤에 땅이 굳고 내 하기 나름' 이란 말을 되새기며 먹을거리도 사다 드리고 거동이 불편한 가구는 공과금도 내드리고 명절때 혼자 사시는 가구에 작지만 성의껏 선물로 위로를 해드렸다.

그런 몇 개월 후부터 조사구에 나가면 딸 대하듯 호박도 따주시고 풋고추며 콩, 감 등을 건네주시는 주름진 손과 얼굴이 화장하지 않아도 우째 그리도 곱고 천진스러운지요~~~

나는 통계청 조사업무를 하면서 돈 주고도 못사는 행복을 느낄 때가 많았다. 내가 베풀지 않으면 남이 날 따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내 맘을 열지 않으면 상대방 마음을 열어 보기 힘든 것을 배웠다. 나보다 어려운 가구를 만나면 조사 가방에서 사탕 한 봉지 꺼내 위로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느끼게 하였다.

통계청은 내 삶의 나침반이다. 정을 가르치고 어려운 이웃을 보게 하고 누군가에게 축복하고 격려의 말을 하게 하였다. 성숙하지 못한 나를 사람답게 살라고 가르쳐준 통계청에 감사한다. 가구업무가 때로는 힘들고 사람속에서 부대끼지만 조사업무를 해보지 않았다면 이 깊은 맛을 어떻게 느낄 수 있었을까?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처음 설득할 때는 어르신들 마음열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조사구 어르신들이 나를 기다렸다는 듯 담아 놓은 이야기를 꺼내시기 바쁘다.

이분들처럼 내게도 마음의 향아리가 있어 어르신들의 소중한 말씀 다 담아 숙성시키고 간직하여 외롭지 않게 해 드려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혹 실패하고 절망에 빠졌더라도
당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보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틀림없이 그들 중 누구에게
당신은 정말 희망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할머니! 잘 계시는 거죠?



우수상
동북지방통계청 영월출장소 이 연 하

차가운 바람이 낙엽을 떨어뜨리며 겨울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이맘때
쯤이면 내 가슴을 봄 햇살 같은 따뜻함으로 채워주셨던 할머니가 생각한다.
잘 지내고 계신지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내고 계실지 궁금하고 걱정이 된다.

그분을 처음 뵈었던 것은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던 2006년의 어느 봄날
이었다.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시골,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동네
어귀에서 언덕을 오르자 옹기종기 모여 있는 한옥들이 눈에 들어왔다.

일주일 전에 선배님과 조사구 인계를 받느라 함께 들렀었지만 혼자
오니 이 집인지 저 집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방향감각이 둔한 나를 질책
하며 소심하게 문을 두드려본다. 푹푹.

“저기... 계세요?”

잠시 후 강원도 특유의 투박한 억양의 할머니의 목소리가 방문 틈새로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흘러나온다. 그 작은 틈새로 새어나온 목소리는 조용한 마을 전체가 다 들릴 정도로 찌렁찌렁 울렸다.

“누구세요?”

이렇게 할머니와 나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통계청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리자 할머니께서 방문을 열었다. 단칸방 하나에 구식 텔레비전과 작은 장롱 한 개가 전부인 단출한 살림이었다. 낡고 초라한 세간들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어있는 것을 보니 할머니의 성품이 한눈에 그려졌다.

낮선 사람의 방문조차 반가워 금세 부엌으로 가서서 커피 한 잔을 내어 오시는 할머니의 뒷모습에서 그녀의 외로운 일상이 엿보였다. 할머니와 나는 커피 한 잔을 하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슬며시 가게 조사 이야기를 꺼내었다.

할머니께서는 학교를 다닌 적도 없어서 글씨도 잘 모르고 잘 쓰지도 못하기 때문에 가게부 기입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나중에 설득할 요량으로 간단한 인적사항만 여쭙고는 조사는 뒤로 한 채 그냥 그렇게 내가 사는 이야기를 하고 할머니께서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동네는 연동표본 조사구였기 때문에 할머니 댁 말고도 설득해야 할 집들이 있어 나는 차 안에서 밤늦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차 안 조명등을 켜두고 서류정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고개를 들어 창밖을 내다보니 할머니께서 쳐다보고 계셨다.

“이 시간까지 안 가고 뭐하나?”

차 안에 있지 말고 집에 들어와서 기다리라고 하셨다. 나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할머니께서는 막무가내로 내 손을 잡아끌었다. 젊은 사람이 늦게까지 기다리며 일 하는 게 안스럽다며 물으셨다.

“대체 무슨 조사길래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게부 쓰는 조사예요! 할머니! 한번 써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자주 와서 받아 적을게요!”

그러자 당신은 글을 잘 모르니 달력에다 적어놓으면 와서 받아 적으라고 하셨다. 그 후로 나는 매번 할머니 댁을 방문하여 달력을 확인하게 되었다. 달력에는 할머니께서 빼뺨뺨한 글씨로 적어두신 가게의 지출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한글은 어릴 적 결눈질로 배운 게 전부라며 부끄러워하시며 소리 나는 대로 글자와 숫자를 적어놓으셨지만 그래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어놓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누군가는 귀찮아 할 수도 있는 조사를 할머니께서는 평범한 일상의 반짝이는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이셨다. 나는 할머니께서 달력을 보시고 불러주시는 대로 가게부에 받아 적는다. 열심히 적은 것을 잘 보이시지도 않는 노안으로 끄끖거리며 열정적으로 읽어주실 때에는 할머니가 귀여워 웃음이 나왔다.

할머니께서는 쓸 돈이 별로 없어 쓴 게 별로 없다면서 괜히 나한테 미안해 하셨다. 할머니의 순박한 모습에 가슴 한 구석이 아릿했다.

정부생계보조금 30만원, 보증금조차 없는 월세 5만 원짜리 단칸 방,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정부미, 일주일에 한 번 복지관에서 나오는 반찬, 이것들이 할머니의 생활의 전부였다. 어렵게 사시는 많은 노인들이 그렇지만 할머니에게는 시간의 흐름 외에는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만 같았다.

이렇게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내가 올 때면 텃밭에서 딴 풋고추며 부추를 잘 다듬어 신문지에 정성스레 싸놓고 기다리셨다가 손에 쥐어주셨다. 전화 약속을 해놓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꼭 전화를 하셔서 온 동네가 떠나갈 듯 한 큰 목소리로 물으시고는 딱 끊으신다.

“어딘데 아직도 안 오나?”

항상 운전 조심하라며 밤늦게 다니지 말라고 하시는 마음은 손녀를 걱정하는 할머니의 그것이었다.

가끔 점심때 동네 국밥집에서 국밥을 사드리면 어린아이처럼 정말 좋아 하시면서 고맙다고 연신 말씀하시던 할머니. 할머니가 내게 주시는 사랑과 정을 느낄 때마다 내가 늘 그리워하는 일찍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났다. 할머니를 뵈고 돌아올 때면 따뜻하고 행복한 기분과 그리움과 애뜻한 마음이 교차되었다.

통계조사 때문에 인연을 맺었지만 할머니는 내게 조사원과 통계응답자와의 관계가 아닌 할머니와 손녀로서 조사를 끝내게 하셨다. 할머니와의 인연은 통계조사라는 업무적 성과뿐 아니라 내 마음과 삶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가르침을 주셨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할머니께서는 항상 화통한 웃음소리와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나를 맞아주시고 할머니께는 꽤 어려운 일이었을 통계조사를 열심히 도와주셨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면서 조사구 인계를 하게 되었다. 할머니와의 연락도 점점 뜸해져 갔다. 마음속으로는 연락을 해야지 하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렇게 점점 할머니는 내 기억 속에서 멀어져만 갔다.

시간이 흘러 나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결혼 준비로 정신없이 몇 달을 보내면서 할머니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렇게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신부대기실에 앉아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멀리서 할머니가 나를 보며 빙그레 미소 짓고 계셨다. 죄송하고 고마운 마음에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연락조차 드리지 못했는데….

할머니는 조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받고 같이 오신 거라면서 봉투 하나를 내미신다. 꼬부라졌지만 또박또박 눌러 쓴 축하한다는 글씨. 봉투 속에는 만 원짜리 4장이 들어있었다. 할머니에게 4만 원이 어떤 돈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더욱 가슴이 찡해왔다.

할머니를 처음 만났던 2006년 봄날의 따스함은 꼭 2년 후인 나의 결혼식에 잔잔하지만 넘쳐흐르는 사랑의 물결로 다시 돌아왔다. 할머니의 외로운 일상에 작지만 행복한 틈이 되고 싶었던 나의 바람이 할머니께 어떻게 받아들여졌을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오히려 할머니로부터 받은 것들로 인해 나의 내면이 풍성하고 행복해졌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정신없이 지내며 할머니를 한번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아직도 못 지키고 있다. 이번 겨울에는 우리 아들과 함께 꼭 할머니를 찾아뵈어야겠다. 할머니께서는 서운함보다는 마치 간절히 그리운 사람을 기다렸다는 듯이 반가운 얼굴로 우리를 맞이하실 것이다. 우리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아들이 재롱을 피우면 그 모습을 보고 귀엽다고 또 쌈짓돈을 꺼내주시려고 하실지도 모른다.

기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조사를 통해 이렇게 따스한 정을 느끼고 애뜻하고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고 흐뭇하다.

요즘 통계조사 환경이 많이 열악해지고 힘겨워졌지만 분명 우리 이웃에는 우리를 미소 짓게 하고 가슴 따뜻하게 해주는 많은 분들이 계신다. 조사원 대 응답자가 아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 보다 알차고 정확하게 조사 본연의 임무에도 충실할 수 있고 마음이 훈훈해지는 온정을 느낄 수 있다.

오늘도 나는 이런 분과의 만남을 생각하며 힘을 내고 또한 조사업무에 자긍심을 느끼며 새로운 활력을 얻는다.

마음을 넓고 깊게 해주는 말 “미안해”
겸손한 인격의 랍을 쌓는 말 “고마워”
날마다 세롭고 감미로운 말 “사랑해”



VOLVO의 통계청 사랑

장려상

충청지방통계청 서산사무소 최 미 향

곤파스의 위력이 대단했던 지난 초가을, 많은 농가들이 날아간 지붕을 고치느라 축사위에 올라갔다 떨어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비닐을 구하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내게까지 경상도(참고로 내 고향이 경상북도임) 쪽에서라도 재료를 구할 수 있냐며 다급한 소리를 하셨다.

태풍이 핏퐁고 간 상처의 처참함을 눈으로 확인한 나 또한 마냥 손 놓고 바라만 볼 수가 없어 전국망을 동원하여 물심양면으로 동동거렸었다.

그랬던 초가을이 지나 이제 어느덧 겨울 문턱을 지나며 농가마다 월동 채미를 하느라 벌써부터 분주하다.

내가 농축산물생산비조사 결음마를 시작한 지 벌써 일 년 하고도 9개월.

어느 사이엔가 여기저기 농가를 다니다보니 내 피부에는 검은 자외선 그림자가 흔적을 콕콕 남겼고 행여나 내가 오기를 기다리는 어느 할머니는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고구마 줄기 껍질까지 까놓으며 호의적으로 날 반기시니 내 어찌 반가운 얼굴들이 기다리는 농가를 그냥 스치듯 지나칠 수 있겠는가!

그런 까닭에 나는 오늘도 날 기다리는 분들을 만나기 위해 단풍이 물든 구룡리 휴게소를 지난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모두들 나에게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한 집. 유독 나를 힘들게 했던 외제차 “볼보”를 타시는 볼보아저씨가 기억난다. 왜 하필 통계청에서 나를 지목해서 이렇게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아내가 회귀 암으로 10년을 고생하는데 이런 집에 오면 서로가 힘드니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다른 집으로 바꾸라며 갈 때마다 호통을 치며 나를 지치게 만들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굳이 이 나이에 욕 얻어 먹어 가면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이집에서 이런 대접을 만나 싶어 당장에라도 팀장님께 협조를 구하고 싶었지만 오기란 놈이 날 가만두지 않았다.

그래 하는 데까지 해보다가 그래도 그래도 안 되면 그때 협조를 구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 끝까지 내가 아는 모든 친절과 상냥함으로 무장했다.

그러던 올 2월에 그렇게 힘들어 하던 볼보 아저씨의 아내가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 당시 볼보 아저씨 또한 삼성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던 터라 부인의 장례도 자식들만 참여한 가운데 치러지고 결국 본인은 장사지낸지 일주일 만에 병원에서 마련한 앰블런스에 누워 납골당에 모셔진 부인을 만날 수 있었다.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난 그 집에 가려면 큰 바윗덩어리를 가슴에

매달고 가는 심정이었던 터라 눈치를 보며 온갖 위로와 함께 이것 저것 조사를 마치고는 예민해져 있는 그분께 다음 주에 다시 오겠노라며 깊은 고개 숙임의 인사를 뒤로 하고 서둘러 발걸음을 돌린 지 어느새 5개월쯤 되었을 무렵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볼보 아저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가슴 두근거리는 것은 두 말 할 것도 없고 말이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낮선 여자와 함께인 볼보 아저씨는 여전히 냉랭한 기운을 풍기며 소파에 앉아 계셨다. 누군지도 모르는 그 여자 분은 내게 커피를 끓여 주었고 나는 휘둥그레진 눈을 미처 감지도 못한 채 뜨거운 커피를 단숨에 마시는 귀염을 토했다.

볼보 아저씨는 거실의 어색함을 감지했는지 내게 27살 먹은 자신의 베트남 부인 '마이'라고 그 여자분을 인사시켜 주었다. 그 부인에게는 나를 선생님이라고 소개하면서.

나중에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어린 부인이 나에게 질투를 느낄까 봐서 그렇게 얼렁뚱땅 둘러댔다는 것이다. 아뿔싸.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그렇다면 경영주랑은 37살이나 차이나는 사이가 아니던가. 그래 그렇다면 일단 진짜 선생님이 되어주자 싶어 나는 얼른 일주일 1시간 정도 한국어 공부와 한국음식 한 가지를 가르쳐 주겠노라고 즉석에서 약속을 해버렸다. 볼보 아저씨와 나이 어린 외국인 부인은 얼마나 기뻐하던지.

그때부터 사태는 역전이 되고 말았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약속이었지만 일주일엔 왜 그리도 빨리 다가오던지...

공부할 자료가 없어서 우리 아파트 이웃집에 아쉬운 소리를 해가며 유치원 아이들의 학습지를 모으고 또한 집에 있는 암전히 놓여 있는 먼지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쌓인 녹음기도 챙겨 가서 외국인 부인에게 한글을 가르쳤다.

한국어 공부가 끝나면 바로 시작되는 한국의 요리들. 하루는 삼계탕, 또 하루는 멸치볶음, 그 다음은 김치찌개 등등... 일주일에 한 가지 음식이지만 막상 하려니 어떤 음식을 가르쳐 주어야 할지 인터넷을 뒤지고 잡지책을 참고 하고... 나름 퇴근하고 난 후의 시간이라 내 가족들에게 미안했고 어린 부인과 통하지 않는 대화를 하려니 정말 힘든 두 달은 참으로 더디게 흘러갔다.

하지만 “선세임! 선세임!”하는 외국인 부인을 보며 어린 나이에 코리아드림을 외치며 한국에 와서 무엇이든 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 애처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했다.

“꼬리아 마니 마니 조아요! 선세임 마니 마니 좋아요. 우리 남편 마니 마니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가르치는 보람일까. 그리고 더불어 볼보 아저씨랑도 굉장히 가까워지면서부터 텃밭에 기르던 부추며 상추며 호두까지 싸 주셨다. 그러면서 고마우니 뭐든지 물어보라고 하시는 모습에 묻기가 어려운 부채까지도 스스럼없이 모두 물어 볼 수 있었다. 본인의 사생활까지도 내게 의논하며 묻는 볼보 아저씨께 나는 이제 통계청의 직원이라기보다도 한 가족의 일원이 되어 있었다.

“통계청에 당신 같은 사람만 있으면 거부감 없이 다 응해주겠네요. 허허허~ 상품권으로도 농협에 가면 은근히 살 것들이 많더라구.”

나이 들어도 선물은 참 고마운 건가 보다. 살짝 상품권에 대한 고마움까지 비치는 걸 보면 예전의 부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때는 상품권을 드리면 확 집어던지시던 그 분이 이렇게 180도로 바뀔 수

있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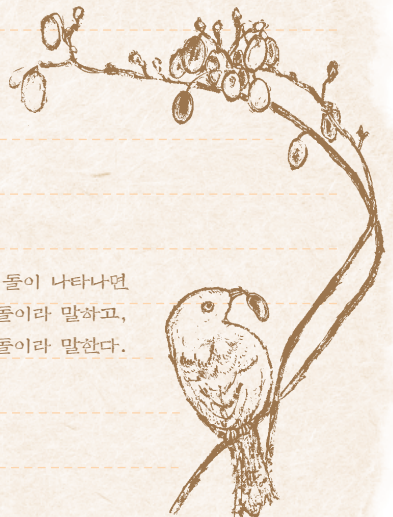
“이까짓 것 현금도 아니고 이런 적은 금액으로 뭘 한단 말이야?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보면 그 분도 참으로 사람 놀래는 재주는 있는 듯하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노력한 것 이상으로도 무언가를 얻게 되겠지만 내게는 그런 요행은 지금껏 오지 않았었다. 그런데, 그래도 무조건 하나를 굳이 말하라면 이것을 조사하면서 얻게 된 나의 요행이 아닐까 싶다. 정말 막무가내로 딱 하나만 꼽으라면 말이다.

오늘은 햇살이 유난히 따사롭다. 이런 날이면 볼보 아저씨의와 있었던 여러 일들이 생각나 입가에 웃음이 번진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말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 말한다.



가끔 보고 싶은 언니



장려상

충청지방통계청 천안사무소 김은영

성인으로 사회생활의 첫발을 1992년 농업통계사무소에서 시작하여 1998년 농업통계업무가 통계청으로 이관되면서 현장에서 통계조사 업무를 담당한 지도 벌써 17년이 흘렀다.

그 동안에 농가경제조사, 전국가계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광공업동태조사, 물가조사 등 통계청 지방사무소의 조사업무는 모두 경험하여 17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응답자가 있었지만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응답자는 역시 가계조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 심한 불응을 했던 가구인 것 같다.

그래서 체험사례를 생각하면 늘 처음으로 가계조사업무를 담당했던 가구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난다.

농가경제조사를 8년 정도 담당하다가 가계조사 업무를 처음으로 하면서 담당하는 조사구는 여러 직원들이 담당하였지만 모두들 포기하고 신규 담당

자가 오면 넘겨주던 정말 공포의 조사구였다.

작은 평수의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였다. 전 담당자와 인수인계하러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였는데 아파트 전체에 햇빛이 비치지 않아 음침해 보였다. 10가구 중 회수가구가 3가구로 회수율이 30%인 조사구인지라 입구에 들어서자 왠지 가슴에 서늘한 기운이 엄습해왔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웠다.

전 담당자와 가계조사 가구 10가구를 다 방문했지만 만난 가구는 다은이네 1가구를 제외하고는 면접이 어려웠다. 맞벌이 가구와 불용가구들이라서인지 집안에서 소리가 나는데도 일부러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 같았다. 그래서 다음날 퇴근 후 저녁에 방문하기로 하고 사무실로 발길을 돌렸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너무너무 무겁고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다.

다음날 퇴근하자마자 굳은 마음을 먹고 조사구로 향했다. 아이들을 봐줄 사람이 없어 세살, 다섯 살배기 아이들과 함께 갔다.

똑. 똑. 똑. 302호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노크를 하였다

“계세요? 계세요?”

“누구세요?”

아주 쌀쌀맞은 목소리의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 통계청 직원인데요.”

대답을 하자마자 안에 계시던 아주머니가 현관을 향해 무언가를 던져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큰소리로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안 한데는데 왜 자꾸 와?”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깜짝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느라 우리는 숨을 죽이고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큰아이가 울먹였다.

“엄마, 저 이쭤마 왜 그래? 엄마, 왜 저 집에 가려는 거야? 그냥 집에 가자.”

얼굴도 못 본 이주머니가 너무 무섭기도 하고 한번도 이런 경험이 없던 지라 서러운 생각이 들어 벌써 눈에는 눈물이 한가득 고여 흐르고 한동안 다른 가구로 이동할 수가 없어 세 모녀는 눈물을 훔치며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조사과장님께서 회수율 때문에 언성을 높이셨다. 회수율이 제일 낮은 조사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면담시간이 길어졌다. 다음 달 회수율을 꼭 올리기로 약속하고 면담을 마무리 지었다.

다음날 다시 출장을 갔다. 아파트에 도착하여 입구에 들어서자 오지 말라며 소리치던 302호에서 사내아이가 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아가, 잠깐만.” 하며 현관문에 발을 끼워 넣었다.

“계세요? 통계청에서 왔는데요.”

이주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아이를 큰소리로 혼내는 것이었다. 누가 아무한테나 문을 열어 주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바람에 놀라 발을 빼고 주춤하는 사이에 문이 닫히고 말았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설득하고자 하는 의욕을 잃어버려 그냥 가려다 유일하게 통계청 직원을 반겨주는 다운이네로 향했다. 다운이 엄마는 반갑게 맞아주며 “어렵지!” 하며 나의 사정을 다 아는 것처럼 위로를 해주었다.

302호는 처음부터 사생활을 내보이기 싫어하는 가구로 아파트 통로

내에서도 별로 왕래가 없는 가구라고 하였다. 점점 설득할 자신이 없어 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용기를 내어 퇴근 후에 다시 음료수와 과자를 가지고 찾아갔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용기를 내어 푹푹탁 노크를 힘차게 하고 기다렸다.

“누구세요?”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다. 늦은 시간까지 다시 찾아와 기다리는 모습이 무척이나 애처로웠는지 아주머니는 안 한단데 자꾸 오지마라며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인사나 드리려고요. 앞으로 잘 좀 부탁 드려요.”

음료수와 과자봉지를 현관에 밀어 넣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다음을 기약하며 얼굴 인사를 다섯번 방문 끝에 성공하고 경제활동인구 조사만 간신히 하였다. 현관문 사이로 보이는 집이 무척이나 깨끗하고 정돈이 잘 된 가구였다. 아주머니의 성격을 보는 것 같았다.

그 후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핑계로 답례품과 보조조사표를 소화전에 넣고 메모를 남겨 놓았다. 사실 처음에는 큰 기대는 없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보조조사표가 기입되어 놓여져 있었다. 그 날은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다. 그 후로 1개월 정도 지나 우연히 아파트 입구에서 마주쳤다. 반갑게 인사를 드렸더니 “아~ 통계청 직원!” 하시며 웬일인지 인사를 받아주셨다. 그러더니 다음 달에 이사를 한다고 한마디 던지고 사라졌다. 마음 한편으로는 차라리 잘 되었다고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생각 하였다. 아마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니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 바로 위층으로 이사를 간다는 정보를 다운이네에서 입수를 했다. 402호는 신혼부부로 가계부를 잘 쓰고 있던 가구라 걱정이 배가 되었다. 왜냐하면 302호에서 402호를 구입해서 302호를 판 게 아니고 전세로 내놓았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세입자까지 불응하게 만들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입맛도 없어져 밥알이 모래알처럼 깔깔했다.

조금은 무섭기도 했지만 새롭게 이사한 402호에 세제를 사가지고 방문하기로 하였다.

“똑. 똑. 똑. 계세요?”

안에서 사람 인기척 소리가 났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누구냐고 물어 보지도 않고 문을 활짝 열어주더니 차 한 잔 하고 가라며 들어오라고 하셨다.

그동안 아이가 좀 아파서 사람들 오는 것을 꺼렸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는 것이었다. 큰아이는 어렸을 때 잃었고 둘째아이는 약간 발달장애아어로 걸으로는 잘 표가 안 나지만 좀 산만하고 학습능력이나 운동신경이 늦어 이웃과의 왕래도 싫어하고 남에게 알려지는 게 두렵고 창피해서 사람을 피했다는 것이었다. 지난번 밤에 아이들을 데리고 눈물을 훔치며 가는 모습을 베란다에서 내려다보았다는 것이었다.

조금은 안쓰러워 보여 마음이 열린 것 같았다. 나이는 나보다 6살 정도 많았지만 집안 사정상 아이가 늦어 우리 아이와 비슷하여 육아에 대해서 이야기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그래서 가계부 이야기를 어렵게 꺼냈는데 가계부를 바로 받아 들더니 자세하게 살펴보고 알았다고 하며 문갑 서랍에 넣었다.

다음 달 가게부 회수기간에 큰 기대 없이 방문하였다. 그런데 회수한 가게부는 보완할 항목이 없을 정도로 잘 기입되어 있었다. 그리고 302호 세입자에게 미리 통계조사 구역이라고 설명해주어서 전입가구 설득 시 어려움 없이 바로 가게부 기입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해서 30%이던 가게부회수율이 80%까지 올라서 가장 가기 싫었던 조사구가 제일 가고 싶은 조사구로 바뀌어 갔다. 어느덧 표본 개편이 되어 가게부는 쓰지 않지만 친자매보다 더 친한 사이가 되어 지금도 가끔씩 안부를 궁금해 하는 사이가 되었다.

지금은 그 아이가 잘 커주어 발달 장애도 어느 정도 극복하여 정상 아이들과 별 차이 없이 학교생활을 잘 하고 언니도 학교 급식보조원으로 일하고 있고 아저씨는 카센터를 개업하여 열심히 살고 있다. 일 때문에 만난 인연이지만 소중한 만남으로 기억되어 가끔 생각나고 보고 싶은 언니다.

때로는 조사업무가 힘들고 어렵지만 환경이 다른 여러 사람을 만나 배우는 것도 많고 느끼는 것도 많아 감사할 뿐이다.

지금은 농가경제조사를 담당하고 있어 푹푹푹 노크 없이도 “어머니, 저 왔어요.” 하며 우리 집처럼 드나든다.

지금은 출장길이 즐겁기만 하다.

가을 하늘과의 약속

장려상

동북지방통계청 속초사무소 최 승 희



파란 하늘이 유난히도 예쁜 가을날!

남편과 가을 나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언니, 둔전린데…”

“네.”

“옆집 할아버지가 언니가 보고 싶대. 언니 고향이 인제라고 했는데…
전화하라고 하면서 보고 싶다고…”

“네, 알았어요. 갈게요.”

3년 전 경제활동조사구 응답가구원이었던 할아버지 옆집에 사는 언니의
전화 한통에 우리 부부의 일정은 갑자기 변경되어 버렸다.

양양군 둔전리. 이곳은 200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을 계기로 2007년

1월 속초사무소에 입사하여 처음으로 경제활동조사를 맡았던 조사구이다. 길지 않은 짧은, 1년도 채 안 되는 조사구였지만 참 많은 정이 들었고, 애착이 가는 곳이기도 했다.

‘옆집할아버지’께서는 양봉을 하시는 80세 고령이십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노트에 그날그날의 기상과 농사일, 가사일, 특이사항 등을 평생 동안 기록하고 계시는 분이셨다. 또한 유난이 정이 많으셔서 방문할 때마다 친정 나들이 왔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편안하게 맞아주셨다.

그렇게 자상하시고 건강해보이시던 어른께서 올봄에 갑자기 중풍으로 반신 마비되어 누우셨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 가끔 찾아 뵈 때마다 할아버지께서 지키시던 양봉 통은 덩그러니 나뒹굴고 반듯반듯하게 텃밭 일구시던 일도 무릎관절 수술로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께서 대신하시느라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오면 며칠 동안 가슴 아프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곤 했다.

그런 생각도 잠시뿐. 먹고 사는 게 뭐지….

지난여름 한 달을 까맣게 잊고 살았더랬다. 휴가철이랍시고 찾아오는 손님대접 핑계로 나 즐기기 바빠서 남 배려하는 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었다. 아니 까맣게 잊고 살았던 것이다. 아마도 그것이 나의 자연스런 일상이었다는 표현이 옳을지도 모르겠다.

자리에 누워계신 어르신께서 보고 싶어 할 때까지 무심했었던 자신이 창피하고 한없이 부끄럽기까지 했다.

발걸음을 재촉하여 할아버지 댁 방문을 열었다. 냉장고에 아껴두었던 잣을 꺼내어 정성껏 죽을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 가지고 갔다. 그동안 누워만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벽에 묶어놓은 형짚 줄을 잡고 일어나 앉으셔서 준비해간 잣죽을 남김없이 다 받아 드시는 것이었다. 어쩌나 맛있게 드시던지 그 모습에서 또 다른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할아버지께서는 방문요양보호사에 대한 고마움과 다음날 병원 진료 예약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마디 한마디씩 혹시라도 내가 못 알아들을까 봐 천천히 말씀해주셨다. 그러시더니 살며시 투박하고 굳은 손으로 내손을 잡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었다.

“집이 인제라 그랬지? 참 고마워”

“사람 죽고 사는 건 참 맘대로 안 되는 거야.”

귀를 겨우 가까이 대야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짧은 한마디에 참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조사원으로서 할아버지와 삼 년 전에 만난 나는 두 손을 꼭 잡고 소리 없는 눈물로 많은 마음 속의 대화를 나눴다.

어린이 눈물과 콧물 닦아주듯이 할아버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드리고 또 닦아드리고 가슴속으로 흐르는 눈물을 삼켰다. 그리고 가슴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부디 하루 빨리 건강하셨던 예전의 아버님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일어나 걷기라도 하게 해주세요. 또박또박한 명필로 기상일기와 농사일기 장도 계속 기록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리고 나는 업무의 일환으로 어른을 뵙고 정을 드렸다고 생각했었는데 나의 작은 정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계셨다고 생각하니 나름대로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었다. ‘내가 베풀 수 있는 만큼 모두 다 드리리다.’ 라고….

통계조사원 4년차인 내게 가장 큰 고민거리가 있다.

2007년 신표본개편과 동시 농가경제담당으로 조사구가 농촌이다 보니 7~80대 고령의 연세이다.

올 한 해 동안 한조사구에서 세분의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그때마다 응답가구는 아니어도 참 마음이 아프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까지는 꽤나 긴 시간이 필요했다. 혹시라도 정이 들대로 든 주 응답자 가구의 일이라면 ‘그 슬픔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하고 말이다. 한 해 한 해가 달라 보이는 어르신들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철렁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전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젊어서부터 시골에서 힘든 농사일을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셔서 성한 곳이라곤 한 곳도 없으신 것 같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더욱 더 가슴 찡하다.

유난히도 높고 푸른 가을 날!

오랜만에 잊고 살 뻔 했던 삼 년 전 조사구인 둔전리도 다녀오고 그동안 너무 무심한 만딸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에 양미리 서너 두름 사가지고 미시령너머 인제에 계신 친정아버지, 어머니를 찾아뵙고 왔다. 그래서인가 이번 주는 나의 가슴이 가을 하늘 만큼 아주 많이 넓어진 것 같다.

앞으로는 생각이 날 때마다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는 내가 아닌, 말과 행동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가을 하늘과 약속해본다.

내 삶의 내검

장려상

충청지방통계청 옥천사무소 김 태 경



작년 이맘때의 일이다.

가을의 하늘은 어찌 이리 푸를까? 그리고 대청댐의 강물은 어찌도 저리 푸를까? 현장조사 출장을 다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계절의 변화를 만끽하면서 그날도 나의 밥줄이자 삶의 터전인 33203819 가계조사구로 비록 남자지만 여유롭고 부드럽게 핸들을 돌린다.

하늘도 맑고 단풍도 적당히 물들고 도로도 한적하고 옆으로 지나가는 강물은 흐르는 것인지 멈춰있는 것인지 말 그대로 유유자적이다.

이 맛에 출장을 다니고 이 맛에 직장을 다니고 이 맛에 삶의 여유를 찾게 되는데 그 날의 돌아오는 길은 내가 이렇게 한기롭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인생을 무의미하게 허비해야 하나? 하는 반성과 부끄러움을 함께 느끼는 날이었고 한동안 잊고 지냈던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된 날이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가장 친숙한 응답자이자 정보원 역할을 하고 있는 가구에 먼저 들러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는데 우리 정보원께서 옆집 2층에 웬 총각이 이사 왔다고 고마운 정보를 알려 주신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나와 총각이 이사 왔다는 허름한 양옥집 2층 계단을 올라 현관문 앞에 서서 통계조사 경력 16년 베테랑의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리드미컬하게 불러댄다.

“계십니까? 계세요?”

현관문은 열려 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안에서는 TV소리가 들리는데 순간 그냥 갈 것인가 들어가 볼 것인가를 잠깐 고민하다가 나는 화장지 파는 트럭 아저씨보다 더 큰 목소리로 겁나 크게 부른다.

“계세요?”

어라? 아무 소리도 없다. 나는 남자답게 용기를 내어 거실을 지나 TV 소리가 들리는 안방으로 향한다. 노크를 해도 반응이 없어 안방 문고리를 잡는 순간 갑자기 어떤 남자가 허파에 바람 빠진 목소리를 질러대며 나를 향해 방문을 확 밀어재깁다. 너무 놀라 뒤로 물러서며 쳐다보니 젊은 남자가 양 손짓을 허공에서 놀리면서 목에 뭐가 걸렸는지 나오지도 않는 불멘 쉼 소리를 연방 질러댄다.

놀란 토끼눈으로 조금 지켜보니 금방 농이분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고 바로 굽실거리며 인사를 하고 명함을 건네주었더니 명함과 나를 교대로 쳐다보더니 그제야 경계의 눈빛을 풀고 입 꼬리를 살짝 올리는데 그분이나 나나 놀랐던 가슴이 살짝 안심이 된다.

메모지를 꺼내 글을 써서 내 소개를 하고 협조 부탁드리고 어찌고 저찌고 하며 나를 열심히 조사를 해보지만 글로써의 한계가 있다 보니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이분께서 슬슬 짜증을 내고 귀찮아하는 빛이 영력하다. 우리 현장조사 공무원은 이럴 때 가장 혈압이 빨라지고 뇌수면체도 활성화되며 모든 말초 신경이 하나가 된다.

어찌할까? 어떡하나? 방법을 찾는데 마침 들어오기 전 도로 옆에 있던 충북농아인협회 보은군지부 사무실이 생각난다. 양손을 부여잡고 커피 한 잔 하지는 손짓을 해대며 급하게 신발을 신고 한참을 걸어서 내가 먼저 사무실로 들어가니 일면식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반긴다. 순간 뒤를 보니 우리 응답자가 내 뒤에 서서 손을 번쩍 들어 흔들며 인사하는 것이 아닌가?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은 농아자이면서도 전문 수화통역사로서 이 사무실에서 농아인들을 위한 주요 봉사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대전에서 새로 오신 직원이었다. 그곳에는 많은 농아분들이 계셨는데 이곳에 모여 그네들끼리 TV도 보고 인터넷도 하고 커피도 마시는 일종의 사랑방이었다.

그 한 구석에 굉장히 예쁘고 착하고 단아하게 생기신 분이 입가에 한 가득 미소를 지은 채 나를 쳐다보고 계셨는데 순간 어찌 저리 예쁜 분이 어찌다가 하는 측은지심이 드는 순간 “커피 한 잔 드릴까요?” 하는데 깜짝 놀라는 것도 잠시 속으로는 기쁘기 그지없었다. 저런 미인분과 차를 마시고 앞으로 우리 응답자를 매개체 삼아 자주 볼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면서 말이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차를 마시면서 부끄러움과 창피함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분은 목사님의 아내로서 시골에 있는 장애우들에게 헌신 봉사하기 위해 청주에서 이곳 보은 시골까지 10년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다니시는 너무도 훌륭한 수화통역사셨고 남편 역시 봉사와 희생의 신념으로 가난하고 병든 노인 분들을 위해 시골 오지를 다니며 인생을 아낌없이 바치고 계시는 훌륭한 목사였다. 비록 통계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선생님의 개인적 얘기들을 억지와 칭찬으로 조금씩 꼬집어내어 들었지만 두 분의 가정생활은 일반적인 생활이 아니라 고행 그 자체였다. 조금 전까지 기대했던 달콤한 상상에서 깨어나는 데는 불과 채 5분도 걸리지 않았다.

어릴 적 동네가게에서 주인아줌마 모르게 주머니에 사탕을 넣고 나와 너무도 가슴 졸였던 어린 소년의 마음처럼 작지만 무슨 죄지은 사람처럼 부끄럽고 속세에 물든 내 자신이 너무도 작아지고 너무도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다.

얼른 정신을 가다듬고 본연의 업무자세로 돌아가 전자가계부 작성 및 기입요령 등을 알려드리고 소정의 상품권 지급을 약속하자 농아자인 응답자는 기쁘지만 찡그린 기쁜 표정을 지으며 흔쾌히 협조를 약속하였다. 수화통역사 선생님께 고마움을 전하고 거기에 계셨던 모든 농아 분들께 일일이 인사를 드리고 밖으로 나와 차에 올랐다.

사무소를 향해 운전대를 잡았지만 올 때의 핸들처럼 가벼운 핸들이 아니었다. 돌아오는 가을의 파란 하늘이 올 때와 똑같은 파란 하늘임에도 불구하고 여유롭고 낭만적인 파란 하늘이 아니라 세상의 따스함과 정이 묻어있는 푸근하고 따스한 담요처럼 느껴졌다.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보니 나의 삶만 바라보기도 매우 지쳐있었지만
오늘 해맑은 농아들과 그 속에 함께 섞여 너무도 행복한 미소를 짓는 선생
님을 바라보면서 가계부만 내검 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내검 또한 중요함을
일깨워준 소중한고 매우 뜻 깊은 출장이었다.

가슴 벅찬 행복이 손에 들어 와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면
불행한 법입니다.
행복을 나누는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상관 없습니다.



자네와 사모님



장려상

경인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 윤 용 복

[장면 1]

“안녕하세요? 저 통계청 윤용복인데요…. 댁에 안 계신가요?”

“응, 나 성내천에 운동 나왔어. 왜?”

“아, 잘하셨네요. 가계부 새로 드리고….”

“응, 그럼 우유주머니에 넣어. 지금 나와서 금방 못 들어가니까.”

“네. 그럼 운동 잘하세요.”

[장면 2]

“안녕하세요? 저 통계청직원 윤용복인데요.”

“근디 왜?”

“저 이 댁이 통계청 표본조사구로 지정돼서요. 앞으로….”

“그게 뭐인디?”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나라에서 실시하는 통계조사인데요…”

“나라? XX. 아니 나라에서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조사는 무슨 조사여?
응? 내가 사는 꼴을 봐. 큰놈은 사람 구실도 못하지 이 똥 냄새나는 굴 속
같은 지하방서 애새끼 둘하고 사는데 동사무소고 뭐고 쌀 한 톨 안 보태
주고 해주긴 뭘 해준다고. 난 몸뚱이 구석구석 성한 데가 없는 사람인데
나라서 도와준 게 뭐 하나 있느냐고, XX…”

어느 날 드라마를 보다가 이런 대사를 들었다. ‘돈에도 심장이 있다’ 고
돈은 보려하지 말고 사람을 보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왜 돈뿐
이겠는가 이 세상에 심장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길가의 돌 하나도
이름 모를 한포기도 풀도 보는 이의 시선이나 손길에 의해 그야말로
‘이름’ 이 주어지는 것이다. 서로에게 의미 있는 그 이름으로.

“자네 커피 한 잔 하고 가.”

나는 그녀에게 ‘자네’ 라는 이름을 얻었다.

“사모님, 요즘은 뭐하고 지내세요?”

그녀는 나에게 ‘사모님’ 이라는 아주 우아한 이름으로 불린다.

처음에는 그 핏발선 큰 눈동자 속에 접근하지 못할 분노가 이글이글
타고 두툼한 입술에서 씹 없이 빠져나오는 상상조차 힘든 욕설은 너무
무서웠다. 현관 앞에 서면 손은 초인종을 누르면서도 마음은 ‘제발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 는 생각으로 가득 찼 뿐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관심도
없었다. 그저 어서 인구조사 마치고 불응으로 처리하든지 어떻게 회피할
생각뿐이었다.

왜 또 왔냐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그녀도 계속되는 답례품 덕택인지 현관에 서서 얘기하는 것에서 집안으로 들어오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다.

“우리 큰놈 좀 봐. 저놈이 병신이야. 내가 저놈 땀에 못 살겠어.”

받침 있는 말을 전혀 못하고 ‘으, 어’로 모든 생각을 표현하고, 먹어도 또 먹을 것을 찾고 그럼에도 술과 담배를 즐기고 내 앞에서도 화장실 문을 활짝 열어 놓 채 쿵쿵 소변보는 남자. 그 서른 살의 남자가 그녀의 큰아들이다. 그러니까 그녀 심장에 박힌 대못인 것이다. 나는 최대한 그녀의 아들에게 정중하려고 애썼다. 만나면 인사하고 민망한 장면도 못 본 체하고 차 한 잔 대접 받아도 아드님은 드셨냐는 인사를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서서히 마음을 열게 된 그녀에게 남편 얘기도 듣게 되었다.

둘째아들이라도 제대로 키우려고 멀리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시키며 아들 뒷바라지로 남편과 떨어져 지냈는데 남편이 그만 손님과 눈이 맞아 딸살림 차린 지 10년이 넘었다는 것이었다. 그녀 심장에 박힌 또 하나의 대못. 왜 그 큰 눈에 핏발이 섰는지 험한 말을 내 뱉어야 했는지 두통과 근육통, 가슴앓이로 힘들게 지내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지하에 마그마가 가득차면 분화구로 솟구치듯 그녀의 가슴에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 눈에 핏발이 서고 머리가 깨질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하다며 명치에 물파스를 마구 바를 때면 “제게 다 푸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하며 그녀의 가슴앓이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기를 바라며 원망 어린 막말과 큰소리와 푸념을 다 들어주었다. 조사원이기 전에 나도 아내고 아이들의 엄마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여자니까.

“내가 자네한테나 이런 말 하지. 자존심 상해서 친구한테도 못 한다.”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물론 이런저런 험한 말을 듣고 나면 기분이 우울할 때도 있지만 나름 고마워 할 때면 ‘그래, 의사가 별거냐. 이러는 내가 바로 의사지.’ 라며 마음을 다독였다. 그러면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물론 언제부턴가 가게부도 자연스럽게 써주게 되었다. 게다가 가게부에 누락된 게 너무 많다고 야단(?) 치는 내게 눈웃음까지 치신다.

“알았어. 안 빠지게 잘 쓰고 있다니까.”

조사구 가구원과 우리는 약속된 기간 동안만 만나는 정말 사무적인 관계일 수도 있다. 그렇게 계속 사무적이길 원하는 가구원도 있다. 그러나 가능하면 인간적으로 가구원과 소통하기를 나는 노력한다. 그 사람의 관심사나 취미가 무엇인지 가족과는 어떻게 지내는지 어르신들은 과거에 어떤 추억이 있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보면 같은 고향, 같은 경험, 같은 고민 등 뜻밖의 일치점을 찾게 된다. 그럼 그때부터는 통계조사원과 해당 가구원을 넘어 친구나 동생, 지인이 되는 것이다.

통계조사원과 조사구 가구원이라는 동일한 인물이 연출하는 전혀 상반된 상황, 그건 우연이나 기적이 아닌 조사원의 진심이 담긴 노력만이 가능할 것이다. 통계조사를 넘어 한 사람의 심장을 바라보는 노력이다.

전자가계부 사용이 가져다준 작은 선물

우수상

| 가계동향조사 대상가구 |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1동 장 여 진

“통계청입니다. 전자가계부 한번 써보세요!”

사례금과 가끔씩 답례품도 있다하니~ 작은 달콤한 유혹에 내 집 살림 정보를 그저 내어 주는 거 아닌가? 처음에는 의심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선뜻 승낙하길 잘했다 싶어요.

결혼하고 나름대로 가계부 꾸준히 적어오고 있었고 한 달이면 엑셀로 양식을 만들어 정리를 해오고 있었기에 컴퓨터에 적는 거야 쉬우니 승낙했지요. 그리고 나만의 가계부에서 뭔가 부족한 2%!

수입과 지출에 맞게 사용한 내역은 맞춰졌지만 분야별로 얼마 정도가 쓰이는지 그 분석은 안 되고 있었거든요. 다음 달 예상 예산을 짜보거나 지출을 분석하는 수준까지는 미흡해서 그저 정리하는 정도의 나만의 가계부! 그걸 채워봐야겠다는 생각도 있었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전자가계부는 처음에는 그저 가르쳐주시는 대로 입금과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출금내역을 적어가고 또 세세한 항목으로 더 분류를 해서 적어가고 입력하는 걸로 만족했습니다. 너무 세세하게 분류해서 적는 게 귀찮긴 했지만요.

1년이 다되어 가던 어느 날 남편과 아주 사소한 가정 경제문제로 다툼적이 있었답니다. 남편의 용돈 지출을 줄여볼까 싶어 돈타령을 좀 했더니 다른 거 다 덮어놓고 그건 순전히 제가 먹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

제 나름대로 정리했던 가계부를 프린트해서 보여주긴 했지만 솔직히 정말 내가 먹는 데만 얼마나 쓰는지 궁금해져 입력만 하던 전자가계부를 한번 열어봤어요. 보고서 항목이나 지출내역 같은 큰 항목 총액만 눈도장 찍고 넘어 갔던 부분에 속속들이 열어보고 많이 놀랐지요.

귀찮아도 세세하게 나누어 적었던 항목이 잘 요약되어 우리 가족들이 한 달 동안 고기는 몇 만 원, 과일은 몇 만 원, 야채와 아이들 군것질과 배달 음식을 얼마나 먹는지 등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웃음도 나고 새삼 우리 가족이 이런 비율로 먹고 있었구나 싶고 아이들 사탕과 과자 좀 줄여야겠다는 반성도 하는 계기가 되었지요. 물론 신랑에게는 당당하게 한 달에 식료품비에 지출되는 비용이 결코 과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보여줬죠.

그 후로는 가끔씩 지출이 과하다 싶거나 하면 어느 항목인지 그리고 정기적으로 뭘 줄여볼까 고민되면 지출항목을 열어 본답니다. 전자가계부 쓰고 직접적으로 제대로 덕본 셈이죠.

또 하나 간접적으로 덕 본건 '사례금' 이랍니다.

한 달에 5만원이란 돈은 아주 적은 돈이지만 전업주부로 남편이 벌어드는 월급 이외에 부수입도 없고 생활비에서 일부러 용돈삼아 '내꺼!' 라고 빼서 나만을 위해 쓰기도 눈치 보이는데 작은 비자금이 되어 주었지요.

육아박람회 갔다가 우연히 후원금을 모집하는 '세이브 더 칠드런' 행사를 보고 문득 그 처음 받은 사례금 생각이 나서 '10%만 후원 해볼까?' 라는 생각에 아이 이름으로 해도 된다는 것을 당당히 제 이름으로 후원이란 것을 처음 실천해 보게 되었습니다. 달랑 5천 원이지만 어찌나 마음이 뿌듯 하던지 나머지 4만 5천원은 아낌없이 저를 위해 쓰고도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작은 그 돈이 결혼 후 가정에만 매여 감춰진 저를 찾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 후 주변 지인들에게 통계청에서 이런 것도 하더라도 자랑도 하게 되고 기회가 오면 꼭 해보라고 추천도 한답니다.

국가적으로도 우리 가정이 작은 보탬이 되고 제 개인적으로도 유용하게 잘 활용하게 된 전자가계부 쓰기가 좋은 선물이 되었네요.



그리운 남편의 잔소리

장려상

| 가계동향조사 대상가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이 경 애

수원에 올라온 지 9년째...

추운 날 더운 날도 참 많았지만 이번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던 것 같다. 비도 많이 오고 힘든 날도 많고, 지친 날도 고장 난 선풍기 그대로 잘 지냈는데 이번 여름에는 잘 알고 있는 지인의 에어컨 선물로 시원한 여름을 보냈고 무엇보다 애들이 좋아해서 덩달아 즐거웠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때 아닌 노크 소리가 들렸다. 이 시간에는 동생이 자주 와서 동생인 줄 알고 설거지하고 있던 고무장갑을 벗고 문을 열었을 때 처음 보는 낯선 얼굴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다.

요즘은 이상한 방문객이 많아 문을 잘 열어 주질 않는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하느님 믿으시죠?” 라든가 “복 받는 얼굴이시네요.” 라며 불공을 드리라는 등, 문을 여는 순간 아차 싶었다.

“통계청입니다. 이 주택이 가계 동향조사 표본가구로 선정되어 관리명 부작성으로 몇 가지 확인사항이 있는데 잠깐 들어가 봐도 될까요?”

이 인사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멍해졌다.

예전에 출판사에 취직한 적이 있었다. 사무직으로 경리일을 보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책을 판매해야 하는 영업직이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남의 앞에 서는 것도 사람들 눈과 잘 마주치지 못하는 내성적인 성격인 나는, 일주일 교육을 마치고 그 다음날 2인 1조되어 시골마을에서 책을 1인당 5박스씩 판매하고 오라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 쓰던 멘트가 “통계청에서 인구조사 나왔는데 죄송하지만 문 좀 열어 주시겠어요?” 였다. 그래서 많은 반감이 있었음은 사실이었다.

나의 작은 마음속에서 두 마음이 스쳐지나가는 순간 한쪽에는 웃는 얼굴, 다른 한쪽으로는 예전의 나를 생각해보며 얼마나 힘들까 싶은 마음이 들었다. 반신반의하며 서로 인사를 나누고 예전에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집으로 들어오시게 했다. 그 직원분의 반갑고도 놀라운 표정이 얼굴에 나타났다. 다른 가구에서는 문조차 열어 주지도 않던데 어떻게 쉽게 문을 열어주시고 들어오라고 말씀까지 해주셔서 고맙다고 내게 말을 건넸다. 사람들은 거짓 말을 쉽게 하지만 그 사람의 눈을 보는 순간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고 나는 알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나 좋은 일인가. 크게 받아들이면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수원에서 그 많은 가구 중에 우리 집이 뽑혔다는 게...

무슨 조사인지 어떤 일인지 어떤 곳에 쓰이는 것인지 하나하나 짚어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주시며 설명해 주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이해되게 설명을 다해주시면서 하나하나 작성해 가는 그분. 작성이 다 끝난 후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고 몇 번이고 인사하고 가신다. 아참! 선물도 주고 가셨다. 주부라면 모두가 좋아하고 반기는 선물(세계 세트). 옆에 있던 남편도 살다보니 이런 것도 해 보는구나 하고 말을 하면서 웃는다.

다음날부터 생각지도 않던 가게부 작성~

가게부 한 권을 주면서 “이것도 해 주셔야 하는데 영수증이 있으면 붙여 주시고 사실 그대로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을 건넸다. 남편은 날 보며 웃고만 있다. 왜냐하면 나는 가게부 쓰는 것이 습관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게부 쓰는 것은 자신이 없었고 작심삼일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나보고 가게부를 쓰라고 하시는 그 직원분이 살짝 미웠다. 사실 가게부는 남편이 쓰고 있었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써 보자라는 남편의 말에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나는 마지못해 “써 볼게요.”라고 말을 건넸다. 어떤 가게부 인가 싶어서 이리저리 살펴 보는 남편은 계속 웃고만 있다. 그럼 이번만큼은 마음먹고 써보자 스스로 다짐하고 직원에게 “믿고 가세요. 제가 꼼꼼히 작성해서 드릴게요.”라고 말을 건넸다.

가게부를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남편하고 대화도 많이 생겼다. 남편과 내가 같이 쓴 거나 만찬가지이다.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적으면 안 돼!”

“맞는 거 같은데?”

티격태격하면서 하루하루가 저물어 행복한 숫자공간이 되어갔다. 통장을 꼼꼼히 살펴보며 체크도 해주고 빠진 것 없이 다 메워주고 지출이 좀 많다 싶어서 한두 종류 빼려하면 거짓으로 쓰는 게 무슨 가게부냐며 남편은 나에게 정확한 가게부를 쓰도록 권유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자상하고 마음 따뜻한 남편은 없다. 무엇이 그리 급한지 우리 세 식구만 남겨놓고 하늘나라로 갔다. 그래서 혼자 쓰는 가게부.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챙겨주는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지만 옛날을 생각하며 가게부 한 장 한 장 채워간다. 남편을 그리며….

네식구에서 세식구가 된 우리 가족. 남편이 하늘나라로 여행을 말도 없이 가는 탓에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이 세상에 가장이 되어 살아야 했다. 너무 힘들 때 통계청 직원한테 전화가 왔다.

“지금 제가 일이 있어서 전화를 통화 할 수 없어요. 죄송해요.”

“그럼 편안하실 때 전화 드릴게요.”

며칠 후 통화로 집안사정을 얘기했더니 집으로 방문해 주셨다. 밖에서 오래 기다리셨던 것 같다. 너무 고맙웠다. “힘들지만 꾀꾀이 잘 사세요.” 하면서 위로도 많이 해 주시고 같이 울어 주시던 감사한 분이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전화 주시고 나도 궁금하면 전화하고….

통계청이란 곳이 신문이나 TV에서만 듣고 나에게 아니 우리에게는 그냥 뉴스처럼 흘러가면서 지나치는 그런 곳인 것 같았는데 나에게 많은 생각을 주고 좋은 친구도 만나게 해주는 곳이다.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요즘은 지출이 감소한 것 같다. 사는 게 힘들어서인지 아니면 아껴야 잘 산다는 생각에서인지 남편 없는 생활에 변화가 생겼다.

인테리어 일을 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할 때가 많다. 솔직히 일하는 도중에 “통계청입니다.”하고 전화가 오면 “바쁘는데 나중에 할게요.” 거절한 적도 많았고 받기 귀찮은 적도 있었다. 내 일도 있고 바쁘게 처리해야 할 일도 가정에서도 애들도 돌보아야 했었기 때문에... 모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에 힘든 일을 겪었다. 특히 가게부를 쓰기 싫어하는 나에게 애들이 흔히 쓰는 말로 “짱”이다. 살아가면서 그 보다 힘든 일도 많이 겪을 것이다. 우리 남편이 남겨준 가게부. 하루하루 빼지 않고 적으면서 내일을 생각하고 싶다.

저녁 늦게까지 퇴근도 못하면서 한 번씩 안부도 잊지 않으시는 직원분께 “힘을 내세요.”라고 말하고 싶다. 아파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데도 늦게 까지 맡은 일을 다 하시고 여러 가지 다 챙겨 주셔서 항상 고맙다는 말도 전하고 싶다.

지금 만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친한 친구로 남고 싶고 나한테는 특별한 인연 같아서 끝이 나도 쉽게 잊히지 않을 것 같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들은 기억이 있는데 “한 달이 길게 느껴지면 한 달이 짧다.”라는 말을 들었다.

나는 ‘하루하루를 지루하게 살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자’라고 느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다.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산다면 통계청에 다니는 직원, 아니 우리 담당 언니처럼 예쁘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영화 '라이언 킹'에서 나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

'하쿠나 마타타(걱정거리가 없다)' 라고...

창문밖 흩어지는 낙엽속에
머물러 있던 시간들이 그리웁고,
밤별들을 헤이던 수많은 시간들이
쉬이 돌아올줄 몰라 더더욱 그리워라.



노년의 즐거움



장려상

| 기구동향조사 대상가구 | 태백시 구문소동 박주연

새 계절이 시작되는가 싶더니 어느새 산과 들은 초록 옷을 벗고 황금 옷으로 갈아입었다. 가을바람에 하늘거리는 코스모스 길 따라 마스크를 하고 등산복 차림으로 완전무장하고 산으로 향한다. 한 발 두 발 발걸음을 옮기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노래도 부르며 산등성이에 도착하여 운동 기구로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온다.

아침을 먹고 작업실에 가서 서각공예로 오전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는 기타, 피아노 연습 또는 시간이 있을 때는 영월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나의 하루 일과이다.

교직생활 사십 년 동안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열심히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다. 아이들 셋 공부 시키느라 혼신의 노력을 했고 졸업을 시킨 후 학자금 대부분을 모두 갚고 나니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고 이제는 늙었구나 하는 허무한 생각도 들었다. 월급 타면 모든 것을 아내에게 맡기고

세상물정 모른 채 살았다. 한 가정의 가장이면서도 퇴직 전까지는 살림살이 돌아가는 형편도 모르고 살았다. 어려서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워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없었고 그러다보니 항상 절약이 몸에 배었고 늘 허리띠를 졸라매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통계청 직원이 찾아와서 가계부를 한번 써보라고 했다. 이 나이에 무슨 가계부냐며 아내는 화부터 냈고 내 속을 남에게 내보이는 것이 싫다는 쓴 소리까지 하며 조사원을 되돌려 보내기를 몇 번이나 한 것 같다.

나도 처음에는 ‘가계부는 여자들이나 쓰는 것이지 남자가 무슨 가계부냐’라는 생각과 ‘어려운 생활에 가계부는 무슨 가계부’라는 생각으로 거절을 했다. 하지만 통계청 조사원의 거듭되는 권유와 현직에 있을 때 컴퓨터를 사용한 경험도 있어 시작한 통계청 가계부.

이렇게 통계청과 인연을 맺은 지도 벌써 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하루 하루 쓰다 보니 이제는 일과에 넣어서 일상생활이 되었다. 매일 저녁 숙제를 하듯 가계부를 쓰고 있다. 그리고 혼자서 풀 수 없는 숙제는 아내의 도움을 받는다. 나의 영역을 벗어나는 항목, 아내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있다.

월말이면 “콩이야 팥이야” 물어대는 조사원의 응답은 아내 몫이다. 혼식을 좋아하던 아내는 통계청 응답이 귀찮다며 잡곡 시는 것을 꺼려하기도 하고 조사원과 함께 입력하면서 되와 흠으로 말하는 아내와 kg으로 환산하는 조사원과 정확히 맞출 수도 없는 재고량에 투덜거리기도 한다. 아내와 함께 가계부를 적으며 투덜거리는 아내의 잔소리마저도 감미롭게 느껴졌다.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여태껏 모르고 살았던 가정형편 돌아가는 것도 알게 되고 아내가 화장실 쓰레기통에 던진 치약을 다시 꺼내 비틀어 몇 번을 더 쓰는 알뜰함도 이해하게 되었다. 한 평생 힘들게 살아온 아내의 고충과 입장을 조금이나마 공감하게 되면서 꼭 필요한 물건만 구입하게 되었다. 가끔 방문하는 손자들도 내가 가게부 입력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신기하게 쳐다보더니 이제는 용돈 기입장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습관처럼 적어오던 통계청 가게부와도 다음 달로 작별을 해야 한다는 조사원의 말에 시원함보다는 섭섭함이 더 크게 느껴진다. 평생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도 나 자신이 알지 못했던 우리 집안의 살림살이를 통계청 가게부 덕분에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정년퇴직 후 허전하고 어수선 했던 마음에 통계청 가게부는 새로운 즐거움을 준 것 같다. 통계청 조사원에게 “통계청조사원 상관없이 전자가계부를 계속 써도 되겠냐.”고 나는 물었고 아내는 며느리보다 더 많이 어머님이라 부르며 살갑게 굴던 조사원과도 이별이라 생각하니 무척 아쉬운가보다.

오늘도 다섯 시에 일어나 하루를 계획하고 노년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밝고 즐겁게 보내려고 노력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 일원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시간에도 많은 퇴직자들이 지나간 세월을 탄탄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많다고 본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보람 있는 생활을 하여 노년을 즐겁고 생기 있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겠다.

우리 집 행복바이러스!

장려상

| 가계동향조사 대상가구 | 서울시 송파구 가락2동 양 윤 실

“여보! 여기 찌개용 두부, 계란 그리고 이건 우리 서준이 우유, 참 우유는 4단계 맞지? 뭐 또 빠진 것 없나?”

장봐 온 물건들을 식탁 위에 우르르 쏟아놓던 우리 신랑, 이것저것 살펴 보고는 이내 만족스런 얼굴로 무슨 귀한 선물이나 되듯이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다.

“짠~ 이건 영수증!”

그 모습이 하도 웃기기도 하고 싱겁기도 해서 피식 웃음이 흘러 나왔다. 이제 우리 신랑이 장만 봤다하면 으레 ‘나 잘했지 여보?’ 하는 얼굴로 딱하니 영수증을 코앞에 들이밀고는 웃음을 날린다. 이게 무슨 연애편지나 되는 줄 아나? 하다가도 이내 그런 남편이 고마워진다. 동네 슈퍼에서 한 두 가지 산 것까지 영수증 챙기기 번거롭다고 툭툭대던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나보다 더 꼼꼼한 살림꾼이 다 되었으니 말이다. 이게 바로 통계청 가계부와 함께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찾아온 우리 집의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10년 만에 다시 얻은 늦둥이 때문에 장보기가 어느새 남편 몫이 된 이후로 이상하게도 생활비가 두 배로 늘어났다고 잔소리만 늘어가던 지난해, 행운처럼 우리 집에 찾아온 통계청 ○○○씨와의 만남!

어색한 만남에 쑥스럽고 계면쩍어 하던 나에게 친절한 설명과 함께 미소를 짓는 모습이 하도 정중해 보여서 거절하지도 못하고 받아들게 된 가게부였다. 처음에는 솔직히 애 핑계로 한동안 미뤄두었던 가게부를 다시 써야 하는 것이 번거롭게만 느껴지고 가끔은 부담스럽기도 했었다. 거기다 우리가 먹은 양곡의 양까지 꼭 써야하나 불평도 했다. 하지만 어느덧 가게부와 함께 1년이란 세월을 맞아가면서 우리 집에 작은 웃음과 즐거움을 가져다준 이 가게부와의 인연이 고맙기만 하다.

그동안 우리 남편의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는 식의 장보기 습관 때문에 장바구니 한가득 채워진 물건들만 봐도 ‘어? 또 덤으로 준다고 비싼 물건 막 고른 거 아냐?’ 더럭 겁부터 났었는데 이제는 내가 가게부를 쓸 때면 쓱 다가와 “저번에 받은 쿠폰 써서 물건 싸게 샀지?” 하면서 좋아하는 남편이 정말 발전도 이런 발전이 없지 싶어 웃음부터 나온다.

돈만 벌 줄 알았지 가정경제가 어찌 돌아가는지 또 물가가 오르는지 내리는지도 도통 관심 밖이었던 남편이었다. 매 달, 물가 탓 경제 탓 하면서 별 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도 제대로 못하고 또 적자라고 푸념이라도 할라치면 “다 쓸 만한 데 썼겠지, 조금 있으면 월급인데 뭐!” 별걸 다 고민한다는 무신경한 대답만 듣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야채 값이 오른 줄도 알고 무조건 끼워 파는 변들상품이라고 다 쓴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 맞장구까지 친다. 정말 통 컸던 우리 남편이 아줌마가 다 됐다. 얼마 전에는 가게부를 보고 외식을 좀 줄여야겠다는 내 말에 입이 썩 나온 딸에게 남편은 생각지도 않던 제안을 하는 것이다.

“그럼 그 줄인 돈으로 나중에 뭘 할까? 유진이 네가 한번 계획을 세워 볼래?”

이 작지 않은 우리 가정의 변화가 정말 새삼스럽게만 느껴진다. 아이에게 경제 교육시킨다고 경제캠프에 보내고 그와 관련된 책을 한 아름 사서 안기는 것보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올바른 소비습관을 배우게 하고 계획해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더 값진 산교육이 아닐까?

거기다 내가 쓴 가게부가 우리 가정 경제뿐 아니라 올바른 물가 지수를 반영하게하고 올바른 자료로써 활용되어 나라 경제에까지 미약하나마 도움이 된다고 하니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있을까 싶다. 또 그것이 결국은 우리 가정에 더 큰 혜택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걸 믿는다.

또 거기다 이번 내 생일 때 남편에게서 두둑한 보너스까지 받게 되었다. 다 늦게 아이 키우느라 애썼다며 멋진 옷 한 벌 해 입으라고 그간 모은 용돈을 현금으로다 두둑하게 안겨 주는 것이 아닌가!

정말 행복이 뭐 별건가. 이렇게 속 깊은 신랑, 한참 사고 싶은 것 많은 나이에도 참을 줄 아는 기특한 딸, 그리고 늦둥이 우리 아들, 이렇게 알콩달콩 살아가는 게 최고지!

이게 다 행운처럼 우리 집을 찾아와준 통계청 ○○○씨의 인연, 그리고 무한한 행복바이러스를 우리에게 전해준 통계청 가게부 덕이 아닌가 싶어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고맙기만 하다.

모두들 우리 가정처럼 이런 행복바이러스에 듬뿍 감염되어 작은 행복과 즐거움을 맘껏 누리보길...

“엄마, 나 내일 친구 줄 생일 선물 샀는데, 이것도 영수증 받았어요.”

학교 갔다 오기가 무섭게 우당탕 소란스레 들어오는 우리 딸. 아! 이렇게 예쁜 딸과 자상한 남편에게 어떤 맛난 음식으로 보답할까?

오늘도 나는 고민 아닌 고민, 행복한 고민 속에 깊숙이 빠져든다.

미소는

아무런 대가를 치루지 않고서도

많은 것을 이루어 냅니다.

받는 사람의 마음을 풍족하게 해주지만,

주는 사람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My Plan 가계부

장려상

| 가계동향조사 대상가구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 조 명 숙

통계청 직원이 우리 집 문이 닳도록 드나든 지도 어언 3년이 다 되어 간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이 집을 방문하여 통계청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계동향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통계청 직원이 앞으로 하게 될 조사에 대해 목적을 설명하고 상세히 설명해 주었지만 솔직히 통계청이라는 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조사의 취지에 대해 설명을 들어도 잘 알아듣지 못해 나는 선뜻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라는 것은 내가 지난주에 한 일에 대해 말해주고 직원이 물어보는 것에 간단한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가계동향조사라는 것은 우리 가족이 한 달 동안의 지출과 수입을 일일이 적는 것으로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다. 물론 내가 따로 가계부를 적고 있지만 통계청에서 바라는 것은 세세한 물품 하나하나의 항목과 우리가족 구성원 각자가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지출하는 내용도 써야하기 때문이었다. 바쁜 일상 가운데 남편과 딸이 통계청에서 하는 조사에 관심이 있을 리가 없었다. 나 또한 내 가족들이 쓰는 것에 대해 일일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점점 갈수록 나 개인의 가계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런 우리 집의 가계부의 실태에 대해 통계청직원이 은근히 걱정을 하는 눈치였다. 직장을 다녀서 자주 보지 못하는 내 딸과 하루가 멀다 하고 통화를 하며 남편과도 자주 통화로 어디에 용돈을 쓰는지 물어보는 통에 문득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가계부를 쓰는 것이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하찮게 생각했던 일이 통계청 직원에게는 큰 의미 있는 일이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통계지표의 기초자료가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딸에게 몇 년 후에 훌륭한 살림꾼이 되기 위한 연습을 하라면서 용돈 기입장을 쓰도록 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한 달 용돈을 한꺼번에 준 것을 매일 매일 쓸 만큼의 용돈을 주게 되었다. 물론 처음에는 가족들의 반발이 대단했다. 하지만 이것은 통계청의 조사에 협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었다. 지금은 이런 생활에 우리 가족 모두가 익숙해져서 예전보다는 훨씬 계획적인 소비 생활을 하고 있다.

나 또한 시장을 한 번 가더라도 꼼꼼히 적어서 꼭 필요한 물품만 구입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족들이 힘을 모아 조그마한 적금도 하나 들게 되었다. 앞으로 몇 번만 더 부으면 만기가 되어 지금 가족 모두가 머리를 모아 어디에 적절하게 사용할지 고민 중이다.

단지 매일매일 평범하게 살아가는 아줌마에서 이제는 제법 계획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아줌마가 될 수 있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준 통계청 직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해야 할 것을 하라.
모든 것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동시에 나의 행복을 위해서이다.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좋은 관계는 좋은 소문을 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향기가 납니다.
행복한 얼굴은 행복을 전염시킵니다.

자기를 이야기하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내 마음이 전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2

힘들수록
더
가까이



alleh!!



우수상

호남지방통계청 보성사무소 정 선 화

아침에 출근하여 자리에 앉기도 전에 모르는 전화번호가 핸드폰이 떴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3월의 좋지 않은 추억이 떠오르면서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됐다. 전화통화가 끝난 뒤 나도 모르게 손뺌을 치면서 “alleh!!”를 외쳤다. 주위 동료들이 깜짝 놀라는 얼굴로 무슨 일이냐는 듯 쳐다봤다.

어제까지도 가게부 기입을 거부하시던 시계방 가구주께서 오늘 우리 집에 방문하려면 가게부를 가져오라는 전화였다. 9월부터는 가게부를 기입해 주시겠다고. 내 가슴에는 벅찬 감동과 함께 바로 어제까지도 건디었던 힘든 일들이 떠올랐다.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게동향조사의 연동표본이 시작되면 가구부문 조사담당자들은 끊임없이 ‘잘 될 거야. 그래, 다 잘 될 거야’를 되뇌면서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들처럼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나선다.

나도 그랬다. 읍 소재지치고는 조금 번잡한 아니, 인근에서 제법 번잡한 상가가 속해있는 지역이 조사구였다. 80%이상의 가구들이 몇 십 년 전부터 터를 잡고 장사를 해온 토박이들이었고 이제는 쇠락해져가고 있는 터전을 떠나지 못하고 번성했던 예전의 기억들을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는 곳이었다.

1월부터 시작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미리 가구마다 조사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1구역, 2구역은 조사안내문 덕분인지 불응 없이 조사가 잘 되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 했던가? 미리 조사안내문을 발송했던 3구역의 가구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조사 안내문을 읽어봤는데 자기는 절대 이 조사에 응할 수 없으니 괜히 헛걸음하지 말고 자기 집은 절대 방문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바로 응대하기 보다는 알았다고 일단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가구를 방문하였다. 방문하기 전에는 그래도 희망이란 게 보였다. 그러나 직접 방문은 절망뿐이었다.

신발가게를 부인과 함께 운영하는 60대 초반의 가구주는 다짜고짜 소리부터 질렀다. 자기는 몇 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적이 있어 다른 일에 신경 쓰면 큰일 나니까 아예 자기 가게는 발도 들여놓지 말라고, '대화' 라는 말은 국어사전이나 얌전히 모셔져 있는 단어였을 뿐이었다. 대화가 이루어져야 조사에 대한 이해도 시키고 설득을 할 텐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나를 보면 외면해버리는 어르신에게 가게 문 너머로 활짝 웃으면서 받아주지도 않는 인사를 하는 게 고작이었다. 웃는 얼굴에는 침을 못 뱉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믿으면서...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그래도 다행이었다. 다른 가구들은 별다른 불응 없이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협조해주었다.

3월부터는 가계동향조사가 시작되었다. 2월부터 미리 병행조사를 실시해서 1구역에서는 4가구 중 1가구만 불응하고 3가구가 가계부를 기입해주었다. 출발이 좋았다. 100%는 아니었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구나 하면서 스스로가 대견했다. 3월에 2구역의 가계부기입을 설득했다. 5가구 중 2가구가 불응이었다. 하지만 자신 있었다. 시간을 가지고 설득하면 가계부 기입을 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가구들이었고 완강한 불응가구들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하루에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는 날이 있을 만큼 한산한 금은방과 시계방을 겸한 가게를 가구주(60세) 혼자서 운영하시고 부인은 인근의 개인 의원 물리치료실 보조로 일을 하고 있는 가구가 있었다. 가구주는 가게를 방문할 때마다 친절한 얼굴로 조사에 성실히 임해주셨고 가계동향조사 대상가구로 3월부터 가계부 기입도 선선이 응해 주셨다. 본인이 가계부를 직접 작성하고 있다고 하셨다. 3월 중순경 가계부 기입지도를 위해서 방문을 했더니 꼼꼼하게 가계부 작성을 잘 하고 계셨다. 가계부를 기입하시면서 궁금한 점을 이것저것 질문하시는 그 분을 보면서 세상은 참 좋은 분들도 많고 살만한 세상이구나 하고 느꼈다.

3월에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가 실시되었다.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 직장에서의 급여, 교육시간 등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된 민감한 부분이 많아 조사에 협조적인 가구에서도 가끔씩은 꺼려하는

아주 힘든 조사인데 연동표본 조사가구에서 처음 이런 조사를 실시하면 불응가구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 조사담당자들이 제일 긴장하는 시기이다.

경제활동조사기간에 그 가구를 방문하였다. 부가조사 안내문을 배부해 드리고 부인이 임금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항목을 여쭙 보기 시작했다. 부인의 직장에 관해서 가구주가 알고 있는 조사항목은 성실히 응답해주셨다. 조금 미진한 항목에 대해서는 미안해하시면서….

다음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핸드폰이 울렸다. 낯선 전화번호였다. 휴대 전화 저편에서 착 가라앉는 목소리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는 기분이 들었다.

“통계청 정선화 씨죠. 나 ○○읍에 사는 ○○댁입니다.”

웬지 가슴속이 서늘해지면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예상은 적중했다. 다짜고짜 통계청 때문에 부부싸움이 크게 났다고 하셨다. 그러니 가계부와 그동안 받았던 답례품을 모두 모아두었으니 오늘 와서 당장 가져가라는 것이었다.

초봄의 싱그러운 아침공기를 마시면서 한 시간 십 분 걸리는 출근시간이 드라이브처럼 즐거웠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50Km가 넘는 먼 거리의 조사구를 단숨에 달려갔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했다.

얼굴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다시 생각하기 싫은 듯 말씀을 안 하려고 하셨다. 부부싸움 잔해를 나에 대한 적의와 분노로 표출해내면서 하시는 말을 어림잡아 보면 직장에서 퇴근하신 부인에게 경제활동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항목 중 의문이 생긴 시간외 근무수당, 연월차수당 등 직장의 근무여건에 대해 이모저모 물어보셨단다. 확실하게 알아봐서 조사구를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재방문하는 나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모양이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다. 비정규직으로 다니시는 부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하실 만도 했다. 도대체 통계청에서 왜 그런 걸 조사하고 다니느냐? 제대로 복지혜택을 실시하지 않는 직장에 어떤 불이익이나 제재를 가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나도 혹시 그 직장에 다닐 수 없지 않느냐? 등등. 부인께서 별별 상상을 다하시면서 가구주에게 화를 내셨단다. 그래서 결국 큰 부부 싸움으로 이어졌다.

결국 통계청조사는 절대 해주지 말라는 부인의 다짐이 있었다. 이제는 대형마트에 밀려 장사가 안 되는 가구주를 대신해 도시에서 대학에 다니는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위해 다니시는 직장이 어떠한 대우를 받더라도 소중한 일터인 부인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으셨을 터이다. 당장 어떤 말도 당장 할 수 없었다. 그냥 조용히 인사만 하고 물러났다. 이 보 전진을 위해서는 일 보 뒤로 물러서야 했다.

그달 가계부 회수율 50%의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새벽에 잠이 깨는 날이 많아졌다. 어떻게 하면 될까? 방법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특별한 방법은 생각나지 않았다. 그래, 마음을 보여주자. 사람과 사람 사이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다.

어느 날 새로 전입해 온 여직원이 나에게 자신이 직접 손뜨개 한 예쁜 딸기모양의 극세사 수세미를 선물로 주었다. 친한경이면서 모양도 양증 맞게 예뻐다. 갑자기 예쁜 딸기 수세미를 내가 직접 손뜨개 해서 조사구에 선물로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장 극세사 실을 구입해 손뜨개질 하는 법을 여직원에게 배웠다.

토요일, 일요일에 20개를 단숨에 만들었다. 가구를 방문하면서 내가 직접 손뜨개 한 친환경수세미라고 드렸더니 다들 너무나 예쁘고 마음에 든다고 정말 좋아하셨다. 처음부터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 신발가게, 조사를 거부한 시계방에도 이걸 답례품이 아니고 내가 직접 손뜨개 한 수세미니까 부담 갖지 마시라고 했다. 그리고 답례품도 꼬박꼬박 가져다 드렸다. 조사는 안 해주셔도 답례품은 가구 뒤편으로 나오는 거라고, 그리고 그냥 조사해주시기 싫으면 인사만 하고 가겠다고 했다.

조사와 관계없는 무심한 일상사의 간단한 대화들만 이어지는 날들이 계속되어갔다. 그러나 그 무심한 대화 속에 언뜻언뜻 조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면 화를 내시면서 다시는 방문하지 말라는 엄포도 있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응답자가 곁으로 다가오는 게 느껴졌다. 이제 알 수 있었다. 조금씩 응답자와 소통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소통이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큰일에 감동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의외로 작은 일에서 감동을 받는다. 살아간다는 것은 책임질 일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을 만나가면서 인연을 맺고 그들에 대한 자신의 존재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한다면 남들이 어떤 불편을 겪을까? 또 남들이 나한테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나는 어떨까? 사람들은 작은 일에 감동을 받는다.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는 커다란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엄청나게 큰일들이 아니다. 평소에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던 사소한 것들이 때로는 삶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대변수로 등장한다.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오늘도 나는 책상 앞에 붙여져 있는 배려에 관한 좋은 글을 다시 한 번 새겨보면서 조사구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통계조사를 하기 전에 먼저 응답자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1. 배려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2. 배려는 받기 전에 먼저 주는 것이다.
3. 배려는 날마다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4. 배려는 자연스럽게 즐거운 것이다.
5. 배려는 사소하지만 위대한 것이다.



소비자가 웃는 그 날까지

우수상

충청지방통계청 천안사무소 이 민 자

아직 가을의 풍경을 느껴 보기도 전에 날씨는 겨울을 달리고 있다. 길가의 코스모스가 한낮의 태양빛을 받아 한껏 기지개를 펴려다 미리 온 겨울 손님에 놀라 몸을 웅크리고 우울한 빛을 하고 있다.

마치 올 한해 우리 곁에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경기둔화, 물가불안정, 부동산 침체 등 더운 여름에도 우리를 춥게 했던 미운 녀석들처럼….

내 나뉠대로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 했던 한 해가 아닐까 생각된다.

먼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시민들은 제2의 6.25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며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던 일, 북한의 3대 세습의 가시화,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확정,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선진국 발 환율전쟁, 6.2지방선거에서 야당의 압승 그리고 얼마 전,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칠레 광산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붕괴와 구출 등 그 외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던 한 해였다고 본다. 특히나 이상기온의 여파로 배추와 채소 값의 폭등은 농민들에게는 한숨과 시름을 안겨주었고 소비자들에게는 가게 경제에 큰 부담을 안겨다 준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소비자물가조사를 하는 나로서는 그 어느 뉴스보다 요즘도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물가에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된다.

그동안 물가조사를 하면서 이게 정말 판매 가격이 맞나 싶을 정도로 배추와 채소 값이 오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 일반 소비자들이야 하루 아침에 김치가 아닌 금치를 먹게 되었다고 하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가끔 물가조사를 하다보면 전 순기에 가격이 인하 되었던 품목이 금 순기의 가격은 전 순기 조사 때보다 더 인상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잠시 내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부터 하겠다.

소비자물가조사는 국민의 소비생활에 관한 중요한 지표인 소비자물가 조사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조사 기준일은 농축수산물의 경우 매월 5, 14, 23일이 포함된 주의 월~금요일 중 1일간, 공업제품은 매월 14일이 포함된 주의 월~금요일 중 2일간, 서비스 부문은 매월 23일이 포함된 주의 월~금요일 중 2일간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 처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포함한 2만2000여 개 소매점포 및 서비스점포를 조사 대상 처로 선정해 가격을 조사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화장품, 가전기기 등을 추가해 현재 19개 품목에 대해 전자상거래 가격을 반영하고 있다.

조사 지역은 38개 주요 도시이며 조사 방법은 조사담당직원이 조사

대상 처를 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PDA를 사용해 가격 조사와 동시에 입력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공공요금 등 일부품목의 가격은 조사품목의 특성에 따라 전화, 팩스, 인터넷조사로 병행조사가 가능하다. 일반적인 조사요령은 지정된 조사 일에 통계청 물가조사 담당 직원이 지정된 조사대상처를 직접 방문해 지정된 조사규격에 대한 실제 거래되는 현금 판매가격을 조사한다.

2년 전 처음 소비자물가조사를 담당 했을 때 나는 이 업무를 알잡아 본 게 사실이다. 시장에서 물건 값 알아오면 되고 물건 값이야 주인장에게 여쭙보면 어려운 일도 아닌데 설마 물건 값 안 가르쳐 주겠어? 하지만 나의 자만심은 일을 하면 할수록 크나 큰 오산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소비자 물가조사라는 것이 물건 값만 알아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생각처럼 대상처 업체들은 소비자물가조사라는 생소한 조사에 불신과 불만으로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 그나마 대형할인마트는 코너별로 담당자가 다르고 특히 사무실 업무 대표를 통해 사전에 협조를 구한 터라 조사하기에 수월한 편이다.

문제는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 중에 통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고 하루하루 월세내기도 빠듯한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이 많다.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통계는 해서 뭐해?”

“통계가 밥 먹여줘?”

“이거 해주면 나한테 뭐해 줄 건데?”

“귀찮게 하지 말고 다음에 다시 와요.”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각종 뉴스에서는 우리나라 경기회복 속도가 G20 주요 20개국 회원국 가운데 상위권인 6위에 속하고 경기회복 형태는 V자 형태로 회원국 중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을 뛰어다니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된다. 특히나 올 해처럼 경기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삶 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는 더 할 것이라 여겨진다.

장사가 조금 되다가 싶으면 건물주들은 가게 세를 올리려 하고 또 어떤 가게는 손님이 절반은 줄어 더 이상 가게를 유지하기가 힘들 것 같다며 다른 직종을 알아봐야 될 것 같다고 하시는 분도 있다.

“더운데 일일이 찾아다니며 조사하기 힘들겠어요?”

속옷가게 아주머니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음료수를 주시며 따뜻한 인사를 잊지 않으셨다. 이번 달 조사를 위해 가게를 찾았더니 가게 문이 닫혀 있고 가게 문에는 ‘매매 연락처 0000-0000’ 이란 글자만 있는 게 아닌가. 오래도록 그 문 앞에서 허탈함을 달랬던 기억이 난다.

또 한 번은 아파트 앞에서 마트를 하고 계신 분한테 전화가 왔다. 앞으로 우리 집에서 조사를 못하니까 오지 말라는 전화였다. 처음 이 대상 처를 인수받고 조사하러 갔을 때 가격을 물어보니(아파트 앞 소규모 마트는 가격 표시를 해 놓지 않음) 직접 하라는 것이다.

“직접 물건을 가져다 바코드를 찍어보아야지. 내가 다 해줘야 돼?”

그래서 다음부터는 품목들을(21품목) 일일이 계산대로 가져다 바코드를 대보고 요리저리 제품을 확인해 보아도 그러려니 이해해 주셨다. 혹 바코드를 찍고 있는 중에 손님이라도 오시면 잠시 기다리게 하시고 조사부터

하게 하셨던 고마운 분이셨다.

“아니 왜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왜 그러세요?”

그렇기에 전화를 받은 나는 내가 뭐 잘못해서 아저씨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물었다. 그동안 조사했던 과정들이 짧은 순간 뇌리에서 영상처럼 돌아갔다. 그런데 아저씨는 그게 아니라 건물 주인이 가게 세를 올려 달라 하는데 그게 터무니없이 많이 올려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신다는 것이다.

그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도 들고 우리 집에 왔다가 허탕치고 갈까 봐 지난번에 주고 간 명함이 있어 전화해주신다는 것이다. 순간 너무 당황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에 뭐라 위로의 말도 못해드렸다. 그곳을 지날 때마다 아저씨가 바코드 스캐너를 건네주시던 모습이 떠오르며 그때 위로의 말한 마디 못해 드린 것이 내내 마음에 걸린다.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고마운 분이 계신가 하면 그렇지 못 할 때도 많다.

한 번은 품목을 확인하며 가격조사 하고 있을 때였다.

“누가 여기서 조사하라고 했어?”

자초지종을 말 할 사이도 없이 쫓겨나보기도 했다. 손님들 있는데 물건 이리 저리 만져가며 조사하면 물건에 이상이 있어 조사하러 나온 사람인 줄 알고 손님이 떨어진다면 문 밖으로 내미는 곳도 있다. 사실 소비자물가 조사를 하려면 품목의 가격 외에 여러 과정들이 있기에 그분의 마음도 이해는 한다. 용량 확인해야지 규격 확인해야지 그리고 먼저 조사하던 품목과 포장지라도 달라진 것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도 이리저리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손님이 많을 때에는 싫어하는 기색이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확연히 보인다.

더구나 농축조사는 일일이 채소와 생선을 저울에 달아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주인의 눈치가 여간 보이는 게 아니다. 채소나 과일 그리고 생선은 자꾸 만지면 신선도도 떨어지고 상하기 쉬워 농축조사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조심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가끔 주인의 눈치가 있다 싶으면 다른 손님들이 듣도록 큰소리로 얘기한다.

“저도 한편으로는 손님이에요. 이거, 제가 살 거예요. 아휴, 이번 채소는 아주 신선하고 좋네요.”

“뭘 사기까지야...”

그러면서도 주인은 은근히 좋아하는 눈치다.

이렇게 시작하게 된 나의 시장보기는 대형마트에 가선 공산품과 채소를 화장품가게에서는 화장품을, 빵가게에서는 아이들 간식을 사가지고 온다. 지금은 집 앞 상가에 옷 수선하러 갔다가도 되돌아오게 되고 주말에 가족과 외식을 할 때도 물가 대상 처를 먼저 찾게 된다. 한번은 통닭집을 운영하고 계신 아저씨가 손님이 하나도 없어 푸념하시기에 통닭도 한 마리 튀겨 온 적도 있다.

이렇게 통계조사를 할 때는 조사원과 응답자로 때로는 물건을 사기위한 손님과 주인장으로 역할이 바뀌기도 하면서 응답자와의 유대감을 쌓아가고 있다. 그래도 이제까지는 기존 대상 처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대상 처가 폐업되었거나 기존 대상 처에서 조사하던 품목이 취급중단으로 조사할 수 없으면 다른 대상 처를 찾아 기존 대상 처에서 조사하던 모든 품목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조사품목을

용량과 규격에 맞는 것도 찾기도 어렵지만 품목을 찾았다 하더라도 대상 처 대표를 설득하기도 쉽지가 않다. 처음에는 조사해도 된다고 하면서도 매월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대부분 난색을 보이며 한 번이면 모르지만 계속적인 조사는 어렵다는 분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거절한다고 물러설 수도 없는 것이 대상 처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며칠을 두고 소비자가 되어 대상 처의 물건을 매입 하면서 대표자와 얼굴을 익히고 대화를 하면서 친근감이 느껴질 때 자연스럽게 대상 처를 잡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나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물가 조사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번씩은 경험해 보았을 것이라 본다.

지금까지 짧게나마 현장조사를 하면서 경험했던 그리고 현재도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를 펼쳐보았다. 통계에 익숙하지 않고 통계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소비자물가조사를 하면서 만났던 소규모 점포를 경영하시고 계신 분, 마트에서 시간제로 일하고 계신 분들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맞서 열심히 살고 계신 분들이었다. 가끔 그분들에게서 힘을 얻고 행복을 느끼고 위로를 받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물가안정이라 했다. 물가야말로 소비자 접점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정신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물가 변동을 잡아내야 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라 본다. 우리의 할 일은 통계적 지식이 부족한 곳에는 끈임 없는 인내를 가지고 홍보해야 할 것이며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들도 좀 더 세심한 눈길로 꼼꼼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통계조사는 결국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소비자의 생계비 변동과약 및 임금조정의 기초 자료 등에 활용되고 있는 중요한 자료라는 것을 인지하여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의 낡음을 버리고
새로운 변화에 두려워 말고 받아 들이다.
그리하면, 지금까지 꿈만 껴왔던 인생을
앞으로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우수상
호남지방통계청 군산사무소 박 상 미

현장조사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눈코 뜰 새 없이 발품을 팔며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새 오늘 하루도 정신없이 지나간다. 어서 오라고 기다리는 집은 없어도 날짜가 되면 항상 방문해야만 하는 조사인지라 바쁘게 마련이다. 내가 맡은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한창 구직활동 중인 젊은층과 사업이 안 돼 새로운 사업을 구상중인 자영업자, 일자리에 관심이 많은 노인층 등 취업자, 실업자 파악으로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며 회사에서 근로계약은 했는지 기간은 정했는지 정했으면 얼마의 기간인지 4대 보험은 되는지 등 자칫 응답자 입장에서는 민감해질 수도 있는 내용인 각종 부가조사 또한 한 달 걸러 있어서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다. 하여 연동표본을 한 지 얼마 안 된 가구나 평상시에도 까칠한 가구는 문 두드리기가 쉽지만은 않다. 가구 입장에서 너무 사생활을 파헤친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내가 조사하는 아파트 조사구의 경우 맞벌이가 대세인지라 낮에 방문 하면 고령이신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사시는 노인가구와 어린아이를 키우는 젊은 새댁과 저녁에 야간근무를 하여 아침에 퇴근해서 자고 있는 가구주 등 3가구 남짓밖에 만날 수 없다. 하여 조사표를 회수할 때면 가구가 퇴근할 무렵부터 저녁 9시까지 부지런히 돌아다녀야 면접조사가 가능하다.

누가 알랴? 남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갈 어두컴컴한 저녁 무렵이 우리에게는 왕성한 활동시간이라는 것을...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꼭대기 층까지는 갔지만 한 층씩 계단으로 내려와 가구를 방문할라치면 계단은 왜 이리 깜깜한지 잘못하다가는 발을 헛디디 구를 수도 있어 여간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다.

한데 문제는 늦은 오후의 방문을 그 가구에서는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통 경찰 조사표를 작성하거나 종이 가게부나 전자 가게부를 작성해주는 응답자가 주부들이다. 저녁 무렵에는 한창 저녁 준비와 배고픈 아이들이 엄마 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린지라 밥을 챙겨주느라 바쁘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편안히 쉬어야 하는 그 시간대 거실에 누워있는 가구주도 마찬가지로다.

현대인은 왜 이리 바쁜지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한 자리 깔고 온갖 수다를 떨며 가구에 대해 요것저것 자세하게 묻고 싶지만 정말 바쁘다. 간신히 현관문을 열고 얼굴만 빠끔히 내밀면 어서 가라는 신호다. 중요한 요점만 물어보고 최대한 신속하게 면접조사를 마칠 수밖에 없다.

“전 달과 똑같은데요.”

이런 대답이 나오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 자칫하다가는 귀찮

아서 조사 안 한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다. 마침 식사를 하거나 샤워를 하는 경우는 동네 한 바퀴를 돌다 다시 방문하는데 그때도 역시 많은 시간을 내주지는 않는다.

만족할 만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꼼꼼한 현장조사가 중요함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현실은 만족할 만한 조사환경이 안 된지라 애로사항이 많다. 응답자의 피로감을 최소화하고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항상 부족한 것은 아쉽지만 친밀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한 전화나 문자 등으로 여쭙볼 수밖에 없다.

처음 통계조사를 접한 응답자의 경우 기존의 통계 이미지는 딱딱한 그래프와 용어들의 나열로 뉴스에서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숫자라서 나완 상관없는 별개의 것으로 여겨 귀찮고, 힘들고, 어렵다는 부정적인 선입견이 가득하다.

근래 배추 가격 폭등으로 관심이 고조된 물가조사 등 항상 우리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다. 우리 가까이에 각종 통계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중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데 대한 서운함이 들어 아무리 힘들어도 꼭 응답자 입장에서라도 만족할 만한 설득을 하리라 맘을 먹는다.

연동표본 개편으로 조사구를 방문했을 때 유난히 거부가 심했던 가구가 생각난다.

개인택시를 하는 60세 전후의 가구주는 10여 년 전부터 그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예전에 통계청 조사를 한 번 하셨다고 하신다. 처음 예비조사 때는 몰랐는데 막상 본조사가 시작되니까 방문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셨다.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뭣 모르고 조사를 해보니 한 번 조사를 해주면 몇 년간 요것저것 수시로 물어봐서 귀찮다며 처음에 협조해주면 계속 힘드니까 절대로 안 해주겠다고 하셨다. 무슨 대단한 각오를 하셨는지 또다시 귀찮게 하면 통계청에 전화해서 따진다는 등 복도까지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며 심한 거부감을 나타내고는 다시는 오지 말라 하신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아래 위층 이웃들에게도 내가 조사를 해보니 한번 해주면 끝까지 고생이니 절대로 협조해주지 말라고 말리신다. 본인 안하면 그만이지만 친절하게도? 옆집까지 들썩이게 하시니 아니나 다를까 그 여파가 금세 아파트 전체로 퍼져 이집 저집 조사를 못하겠다고며 손을 내젓는다.

이 가구를 설득시키지 않고는 다른 가구도 조사가 불가능하리라 생각하고 떨리는 가슴을 억누르고 시간을 갖고 재차 방문했을 때 아니나 다를까 배우자가 나와서 아저씨가 엄청 화를 내시며 절대로 열어 주지 말라고 했다고 그 전에 주었던 답례품도 차곡차곡 도로 내놓으신다.

하지만 마냥 갈 수는 없어서 배우자에게 간단한 가구원사항과 하는 일만이라도 알려달라고 십여 분 가량을 사정하니까 마지못해서 가구주 모르게 휴대전화로 물어보라고 하시며 안쓰러웠던지 차마 거절을 못하셨다.

그 뒤로 방문 시 조사구 앞에서 항상 전화로 여쭙보고 답례품도 나와서 받아갔다. 무슨 비밀작전도 아니고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아저씨가 아시면 큰일 나는 양...

그러던 중 그 가구 딸에게서 밤늦은 시간에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무척 화난 목소리로 엄마가 통계청 조사에 응해주시는 걸 아빠가 아시고 대판 부부싸움을 하셨다고 하신다.

“왜 아빠가 싫어하시는데 전화를 해대서 집안을 힘들게 하세요? 또다시 사람을 귀찮게 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 알아서 하세요.”

다짜고짜 막말을 해가며 항의를 한다. 일순간 정신이 멍하다. 아직 20대 중반밖에 안된 젊은 애가 큰소리로 호통 치며 갑자기 전화해서 내가 변명할 기회나 설득할 시간도 안주고 전화를 끊으니 그도 그럴 수밖에….

한편으로 그 배우자이신 아주머니께 어찌나 미안하던지 바로 전화할 수도 없고 해서 나중에 찾아뵙고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자 기회를 엿 보던 중 우연히 손자를 업고 나온 아주머니를 뵈었다.

먼저 사과와 말을 여쭙고 죄송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더니 의외로 아주머니 말씀이 어차피 혼났는데 걱정 말고 전화로 물어보란다. 아저씨가 식사하러 집에 오는 시간과 딸이 학원근무로 저녁에 출근하는 시간 등을 꼼꼼히 알려주시면서 이 시간대는 되도록 피하고 정 급하면 문자로 하라며 알려주셨다.

“매일 뉴스를 보면 취업자, 실업자가 몇 명이고 청년 일자리가 심각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딸도 취직이 안 돼 내가 잠이 안 옵니다. 마지 못해서 임시로 학원 강사 다니는데… 내가 대답한 이 통계조사가 젊은이들 일자리 정책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니 내가 도와줄 테니 걱정 말아요.”

아주머니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겠다고 하신다. 또한 통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어떻게든 시간을 가지고 아저씨도 설득하시겠다고며 오히려 나의 염려를 덜어준다. 이렇게 고마울 수가. 아주머니도 그동안 아저씨 때문에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터라 마음 풀이하며 있었는데….

안도의 한숨과 함께 응답자가 진정 우리 결의 통계의 중요성을 알고 스스로 협조해주겠다는 말에 내가 날마다 밤늦게 발품 팔아가며 돌아다니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것이 헛된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 한편이 뿌듯해졌다.

그 후로 아주머니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용기를 내어 가구주에게도 다가서서 협조를 받아낼 수 있었다. 그동안 손자는 무력무력 자라서 가장 가장 걸음마를 떼고 할아버지와 나들이를 다닌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그동안 손자가 많이 자랐네요! 오늘은 택시 영업 안 나가셨어요?”

“내 걱정은 말고 부지런히 다녀... 통계가 정확해야 경제도 살지. 설령 설령 조사해서 내놓으면 조사 안 한 것만도 못해.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안 그래요? 박 선생.”

그렇게 호랑이 같이 사납던 어르신과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는데 반년 이란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꾸준히 시간을 가지고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사람들의 협조도 있었지만 불응에도 포기하지 않고 밤낮으로 계단을 오가며 열심히 조사의 중요성을 알리며 응답자가 만족할 만한 믿을 수 있는 통계가 되기 위해서 현장에서 땀 흘린 대가가 아닌가 한다.

통계의 대한 응답자의 만족이 또한 나의 만족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집세조사로 맞벌이 가구가 대세인 고층 아파트를 찾아간다.

창문이 없는 복도는 그 유명한 군산의 바닷바람 때문에 아직 가을이건만 찬바람이 살갓을 파고든다. 고장 난 초인종 대신 목청껏 “통계청입니다.”를 외치며 대문을 두드린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열심히 뛰어다니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조사자나 불편함을 참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는 응답자 모두가 만족

할 때까지 만족할 만한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제대로 된 통계조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꾸미지 않아도 아름다운 사람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솔직함
아는 것을 애써 잘난 척하지 않고도
자신의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겸손함과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승강기에 안내장을 붙이고 다음날 가면 뜯어 버리고 현관 앞에 행복 주머니를 걸어두면 주차장 앞 쓰레기통에 보란 듯이 버리고 아파트 총무를 맡고 있는 분을 설득해서 도움을 청해 보아도 너무나 완강해서 처음에 응해주던 가구조차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불응은 늘어 갔다.

내가 그만두면 되지 하고 생각을 하니 눈앞에 그동안의 일들이 스쳐가고 이렇게 허무하게 그만둔다는 것은 자신과 자녀들에게도 직장은 힘들면 그만 두는 것이란 것을 보여 주는 꼴이라 꼭 참았다.

팀장님께 협조를 구해 작년 그 출던 겨울에 연말, 식당에서 반상회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니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협의 중이라고 기다리라고 해서 문 밖에서 기다렸다. 어찌나 출던지 덜덜 떨고 있는데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다. 팀장님이 조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설명하자 완강히 반대하던 그 가구는 본인들 각자하고 싶은 대로 하자고 했다.

그 덕분에 가구에서 주민들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지만 네 가구는 여전히 벨을 누르면 문도 열지 않았다.

“통계청이 왜 오느냐.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몇 개월이 지난 뒤에 응답해 주다가 불응한 가구는 해주지 말자고 해서... 말끝을 흐리면서 협조해 주었을 때 얼마나 고맙고 반가운지 눈물이 핑 돌고 정말 고맙다고 인사한 기억이 있다.

사무실에서 불응가구들 사유를 매일 적어야 하는데 사유를 뭐라고 적어야 할지 설득불가라고 해놓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지난달에는 또 한 가구가 보조조사표를 슬그머니 내어 놓은 것이다. 떨리는 마음에 바로 벨을 누르지 못하고 그 다음날 부가조사표를 들고 다시 찾아가니 문을 열어 주었다.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문도 열지 못하고 조사표와 메모를 해서 답례품과 함께 문 앞에 두고
오기를 몇 번 했던가! 현관 앞에서 마주쳐도 제대로 인사도 받아주지 않았
지만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하니 이런 날도 있었다.

문득 옛 생각이 난다.

처음 담당할 가게지역에서 아파트 평수가 50평대이다 보니 여유가 좀
있는 대상가구들이 많아서 사생활 노출과 바쁘고 귀찮은데 왜 이것을 써야
하느냐 모두 가게부를 쓰지 않겠다고 해서 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시절이
있었다. 맡은 책임은 해야 하는데 못하니 돌아서서 오는 길에 그 슬픔은 말
할 수 없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주문을 외우며 약국을 하는 가구는 약국으로, 이불가게를 하는
가구는 이불가게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기 시작했다. 약국을 찾아
가면 도저히 가게부는 못하겠다고 하고 “내가 외국에 나가고 안 산다고
하라.”고 하면서 불응하던 가구를 항상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다가 가서 서서히 마음을 열게 했다. 이불가게로 가서 이불을 사기도 하면서
자녀들 교육에 관해서 공통점을 얘기하면서 가까워지자 가게부가 나오기
시작했다.

남자만 살아서 못 쓴다고 하던 그 멋쟁이 할아버지는(70세가 넘었지만
멋쟁이 신사분이라 항상 선생님이라 호칭했다) 일일이 각종 세금영수증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 주던 어느 날 말씀하셨다.

“고생이 많은데 이제는 아랫사람을 좀 보내지요.”

(속으로는 내가 가장 아랫사람인데... 누굴 보내지)“제가 맡은 업무입니다.”

지금은 그 할아버지도 그렇고 양곡가계부 열심히 작성해준 ○○가구 사모님도 그렇고 경비실에 계신 할아버지께서는(연세가 많으셨음) 그 당시는 답례품이 세제, 샴푸 등등 무거워서 힘들어하는 나를 도와준다고 손수레로 끌어서 옆 동네까지 갖다 주고 하셨다. 3년의 조사기간이 끝날 때는 서로가 아쉬워했던 기억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정이 많음을 느끼면서 그렇게 헤어졌다. 지금 찾아가면 매우 반가워하실 텐데... 고향이 그리워 찾아가는 마음으로 한 번 가보고 싶다.

9번 조사구는 10월로써 가계부가 마지막인 가구와 경제활동이 마지막인 가구가 있다. 지난번 현장실사 점검기간에 동행한 팀장님과 같이 방문하니 한 가구는 담당자가 바뀌느냐고 눈이 동그래서 묻더니 이번 달로 그 가구도 마지막이다.

3년 동안 가구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요 슬픔이 나의 슬픔이니 그동안 희로애락을 같이 해서 돌아서 나오는 마음은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었다. 조사에 협조 해주는 가구는 모두가 고맙지만 특히 가계부를 기입하는 가구는 어느 광고에서 “좋은데 정말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라는 말처럼 고마운데 정말 고마운데 글로써 표현할 방법이 없다.

다시 새로운 지역에 연동이 시작 되었다. 가계부를 부탁하니 누가 이런 것을 써주는 사람이 있느냐고 나에게 묻는다.

본인이 전자가계부 입력할 날을 기다리며!!!

딩동~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장려상

동남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 배 은 경

아. 떨러~!

아파트 문 앞에서 주저하며 초인종을 누르는 내 마음은 기대 반 두려움 반이었다. 오늘도 체중계가 나를 가리키는 숫자보다 더 무거운 짐을 마음속에 담고 영도구 남향동 A 조사구에 가계부 설득을 위해 ○○○아파트의 계단을 오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베이터 안에 발을 들여 놓았다.

벌써 5일째 연이어 저녁 식사시간에 맞추어 501호를 방문하고 있지만 어머니는 통계청이라는 말만 듣고는 문을 열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오늘은 분명히 집안에 계시는 것을 경비실 아저씨에게 들어 알고 있었지만 501호 안에서는 인기척조차 나지도 않았다. 초인종을 다시 한 번 더 누르고 싶지만 옆집 502호 어머니가 저녁마다 “웬 초인종 고문이나?”고 하신 말씀 때문에 더 이상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501호 앞에 10분간도 서 있지 못하고 아파트

화단 계단까지 내려 왔다.

처음 이곳에 명부 조사를 하러 올 때는 아파트 입구가 개나리꽃 천국이었는데 지금은 그 잎들마저 다 떨어진 겨울의 초입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나는 이러다 ‘올 한해 그냥 다가겠네.’ 그냥 마냥 무대포식으로 열어주지 않는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를 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501호 어머님만 설득하면 그 다음에는 옆집과 13년을 자매처럼 정답게 살고 계신 이웃 502호 어머니에게도 가계부 기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다. 그동안 들인 공이 얼마인가?

“그럼 어떻게 하지?”

당장 오늘 밤부터라도 단계별로 목표 설정을 하자.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디테일한 목표 설정 구상을 하자. 처음 산에 오를 때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모르듯 나도 나의 조사 패턴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뒤 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경험이 부족하여 면접 불능이 습관화가 되어 버린 나에게 스스로 반성할 기회도 갖게 되었다

나의 가계부 설득 디테일 작전 구성은

1단계 - 어머니와 아파트 바깥 주변에서 우연히 마주치기 -

평소 501호 어머니의 행동 패턴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었다. 즉 나의 설득 조사 패턴에 더 디테일을 가미하는 것. 501호 어머니께서는 거의 매일 저녁 두부 한 모를 사더라도 운동을 삼아 인근 남향 재래시장으로 시장을 보러 가신다고 경비 아저씨가 말씀해 주셨다. 그 말을 듣고 이제부터는 501호 초인종과의 싸움이 아니라 시장에서 501호 어머님을 기다림으로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작전을 바뀌었다.

1단계 작전 개시 이후에는 재래시장을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에도 출근하듯 입구에서 어머니를 기다렸고 특히 501호 아머님께서 밀양에서 5일 근무가 끝나고 남편이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에는 점심시간부터 501호 어머니를 기다렸다

그렇게 며칠을 기다리던 어느 날 한손에 노란 시장바구니를 든 501호 어머니를 채소를 팔고 있는 채소 가게에서 마주치게 되었다. 나는 어떤 때는 무섭고 또 때로는 나에게 차가운 말씀으로 나를 얼음뎠으로 만들어 놓는 어머니였지만 노란 시장바구니를 들고 걸어오는 어머니를 보니 정말 1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친척처럼 반가워 그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큰 목소리로 “어머니, 저예요. 저.”라며 인사를 드렸다.

어머니 역시 금방 기억이 나지는 않는 듯했지만 매번 “통계청 직원이 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라는 목소리를 기억하셨는지 “통계청 직원이네. 여긴 어떤 일이야?”라며 자연스럽게 인사를 해주었고 관심을 가져 주셨다. 나는 저도 시장 구경을 좋아하고 물건을 보러 왔다고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로 말씀드리며 요즘 채소가 어떤 것이 싱싱하고 저렴하다는 이야기를 주제로 첫 마디를 열 수 있었다. 드디어 1단계 작전이 이루어진 듯하였다

다음 2단계 - 501호 어머니가 이용하는 지하철을 함께 이용하기 -

시장에서 501호 어머니와 만남이 있는 후 나는 약간의 자신감을 얻고 조금은 더 진보적인 방법으로 평소 어머니가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어머니를 만나 어머니와 목적지까지 함께 이동하는 계획을 생각했다. 나는 평소 어머니는 독신한 불교신자로 지하철 1호선에 위치한 범어사에 수요일마다

기도를 드리러 간다는 정보를 갖고 2단계 작전에 들어갔다.

수요일 아침 10시부터 어머니가 늘 이용하는 남포 지하철 입구에서 501호 어머니를 기다렸다. 지금의 상황은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기다렸다 가는 것뿐이었다.

몇 주를 기다린 후 어느 수요일 절복을 단정하게 차려 입은 어머니가 걸어 나오는걸 보았다. 지하철 입구에서 수요일마다 몇 주를 기다린 나는 입구에서 뵈 어머니에게 저번 시장에서 뵈 때보다 더 씩씩하게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라며 더 힘차게 인사를 건넸다. 어머니는 저번 시장에서 만났을 때 보다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통계청 직원이네요. 여기서 또 만나네.”라며 인사를 받아 주셨다.

어머니와 나는 자연스레 같은 지하철 칸에 같은 자리를 잡게 되었다. 우린 서로 나란히 옆자리 앉아 오늘 날씨 이야기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였다. 남향동 A 조사구 연동 명부 작성 후에 월마다 경상 조사 때에 방문 하였다. 문을 두드리며 잠깐이라도 면접을 말씀 드렸지만 한 번도 문을 열어 주지 않는 어머니와 이렇게 나란히 옆에 앉게 되다니 수요일마다 몇 주간 지하철 입구에서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마지막 3단계 - 501호 어머니에게 정식으로 통계청을 소개를 하다 -

501호 어머니와 시장과 지하철에서 만남 이후 501호 어머니에게는 울렁증을 갖고 있던 나 또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 불기 시작하였다. 오늘은 501호 어머니 택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힘차게 발을 디뎠다. 날씨 또한 초겨울이지만 너무 화창해 살랑대는 햇빛에 마음이 위안이 되었다.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딩동~ 초인종을 눌렀다.

“어머니, 통계청 직원이에요.”

“네, 알았어요.”

5초의 초인종 벨소리가 울린 후 안에서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다.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이었는지 나는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는 순간 남향동 조사구에서 크고 작았던 문 앞에서 실랑이한 생각이 들어 눈물까지 약간 나오려고 하였다. 생각보다 빨리 내 단계설정 목표가 이루어져 현실로 만들어졌다는 성취감이 한층 더 자신감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었다.

나는 이번에는 처음부터 어머니에게 통계청의 통계작성의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가게부 기입을 부탁드렸다. 어머니는 분홍색 표지의 통계청 가게부를 한참 손으로 잡고 있더니 어머니께서 친한 친구 분에게 카드를 이름으로 빌려주었는데 그 카드가 탈이 나서 5년 동안 남편 모르게 친구가 쓴 카드 빚을 갚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믿었던 친구의 배신으로 사람들에게 금전적으로도 큰 손해와 사람의 실망으로 한때는 우울증까지 앓고 있었고 그래서 낯선 사람의 방문이 싫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사람은 감정의 동물인 지라 낯선 사람도 매번 만나고 목소리를 들으니 처음보다는 좋은 감정이 생기더라고 말씀하셨고 가게부를 기입해 주신다고 하셨다.

나는 이런 경험을 통하여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디테일 단계 설정은 일상에서 하던 설득의 패턴으로 지치지 말고 또 같은 고민하지 말고 더 디테일할수록 성공률이 높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매우 간단하고 현실 가능한 목표부터 세우는 것이 좋고 분명한 것은 1단계에서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단계에서 기회가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단계가 높아질수록 꿈을 이루기 위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지금의 나는 더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 힘들었던 남향동 A조사구가 3년이라는 조사 기간을 끝나고 용호동 9번 조사를 다시 시작하고 있다. 요즘 나는 새로운 단계설정을 시작하였다. 용호동 조사구에 1단계 통계청의 통계작성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가구들의 문을 열어줄 더욱더 더 디테일한 단계 설정을 구성하고 있다.

늘 힘든 일만 있는 법은 없다. 반드시 힘든 일 뒤에는 좋은 일이 찾아오게 된다는 진리를 다시 깨달았다.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레이더는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만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



해마다 3월이면



장려상

동남지방통계청 창원사무소 문 명 숙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통계인이라면 누구나 소설책 한 권 정도는 쓸 수 있을 만큼의 애환과 별의별 에피소드가 있을 것이라. 문전박대는 기본이고 한여름 소나기를 피하지 못해 비에 젖은 생쥐 꼴이 되는가 하면 좁은 농로로 잘못 들어가 차가 빠져 오도 가도 못 하고 발을 동동 굴리던 일에, 드물게는 풀려있는 개에 물리기까지...

나에게도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해마다 3월이면 생각만으로도 빙긋이 미소 짓게 하는 아저씨가 있다.

처음 입사 후 줄곧 어가경제조사를 담당하다 사무분장조정으로 본격적으로 생산통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가축이라면 아직 암수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던 햇병아리 시절에 가축조사 표본가구였던 이 댁은 젓소 사육가구로 평균 사육 두수가 40두 정도라 조사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착유와 건유, 1일평균 착유량 등의 복잡한 조사항목으로 실측조사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따로 조사구를 인계해줄 사람도 없던 터라 조사구요도와 조사표를 챙겨 점심을 먹는 등 마는 등하고는 조사구로 향했다. 면소재지에서도 차로 20분 이상 떨어진 산중턱에 위치한 산골마을이니 사람들이 순박하고 유순하리라 제 멋대로 판단하고 조사구에 도착했지만 이런 내 생각은 여지없이 빗나가고 말았다.

“계세요! 계세요!”

첫 가구에 들어서면서 큰소리로 몇 번이나 불리도 대답이 없기에 안게 시나 하며 돌아서려하니 머리는 부스스하게 엉클어지고 금방 잠에서 깬듯한 얼굴의 아저씨가 나오시더니 소리를 지르셨다.

“뭘요!”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한 나는 최대한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통계청에서 가축 조사하러 나왔습니다.”

“뭘~어? 가축조사? 엇그제 이장이 조사해 갔고 또 며칠 전에 축협에서 조사해갔는데. 뭘 가축조사를 또 하네! 와~아? 소 많이 키우모 사료라도 한 포 줄라꼬?”

순간 당황하여 말끝을 흐렸다.

“아니... 사료를 드리는 건 아니고...”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저씨는 혀를 끝끝 차셨다.

“참말로 공무원들 할 일 없는 기라.”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시·군 행정기관에서의 조사와 통계청 표본조사가 서로 다르고 정부의 정책 결정에 통계자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짧은 지식을 짜내가며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부탁드렸다.

“그렇게 중요한 일이면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직접 세어 가소!”

아저씨는 문을 광 닫고 들어가시는 거다.

지금이야 이런 일이 있어도 어디 한번 부딪쳐보자 하는 두둑한 배짱이라도 있지만 그때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한참동안 멍하니 마당에 서있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저씨는 나올 생각이 없어보였고 마침 집 옆에 축사가 있기에 축사에 들어가서 마릿수를 세는데 낯선 사람의 방문을 소들도 싫어 하는지 어찌나 도망을 다니는지...

3월초 매서운 바람에도 진땀을 뻘뻘 흘리고 몇 번을 다시 세기를 반복 하여 총 두수는 겨우 파악했지만 암수와 구간을 확인해야하고 또 변동사항도 파악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조사가 불가능할 것 같아 다음 가구로 향했다.

첫 집에서 진을 빼고 나니 조사의욕이 뚝 떨어졌지만 다행스럽게도 그 맥을 제외한 대부분은 가구는 대체로 친절한 편이었다. 그 중 유독 나에게 고생한다며 음료수까지 건네주시는 할머니에게 문제의 그 맥에 대해 슬쩍 여쭙었다.

“동네일도 열심히 하고 좋은 양반이다.”

불행 중 다행이었다. 좋은 분이라면 여지가 있다는 의미이겠지. 속으로 생각하며 조사를 마치고 한 번 더 그 맥에 가서 사정을 해볼까 고민을 하다 차라리 며칠 후에 재방문하는 게 나올 것 같아 대충 마무리하고 사무실로

향하는데 돌아서는 마음도, 발걸음도 무거웠다.

며칠 동안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마도 단잠을 깨운 게 화근이었던 것 같았다. 젖소를 키우시는 분들은 하루에 두 번(이른 아침, 초저녁) 착유를 하기에 주로 점심시간 후 1~2시간 정도 낮잠을 주무시는데 그 시간에 오는 조사원이 반가울 리 없었다. 조사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갔다. 내일은 기필코 출장을 가야지 작성한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조사구로 향했다.

가는 길에 마트에 들러 출출할 때 드실 두유도 한 박스 사들고 조심스럽게 그 맥 대문을 열었다. 대학입시 면접을 기다릴 때만큼이나 심장이 쿵쿵거리고 불안했지만 용기를 냈다.

“가축동향조사 나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렸다. 착유 후 늦은 아침을 드시고 계시다 나오시는지 연신 입으로 무언가를 오물거리며 그분이 고개를 빠끔히 내미셨다.

“가축조사! 내가 엿그제 직접 세 가라고 안 하던가?”

특유의 통명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고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셨다. 나는 가져간 음료수를 얼른 문 안으로 밀어 넣으며 말했다.

“그날 총 두수는 확인했는데요. 구간하고 변동사항 파악을 해야 돼서요.”

“총 마릿수만 알모 됐지!”

돌아서시기에 그날은 제가 쉬는데 방해해서 죄송하다고 다음부터는 그 시간에 방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콧소리까지 섞어가면서 온갖 애교를 총동원했다.

“뭘 알아야 되는데?”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조사는 마쳤다. 하지만 다음 조사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생각하니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왜 이렇게 시간은 잘 흐르는지...

어느덧 3개월이 흘러 또 다시 가족동향조사 시기가 돌아왔다. 처음 방문 때와는 사뭇 다른 불안한 마음으로 조사구로 향했다.

“또 조사하러 왔나? 뭘 조사를 이리 자주 하나! 오늘 동네잔치가 있어 바빠서 안 된다.”

여전히 투명스러운 말투에 한 치의 여지도 없어보였다. 잠깐이면 된다고 아무리 애원해도 본 척 만 척 하시기에 어쩔 수 없어 그분 뒤를 졸졸 따라서 마을회관으로 향했다. 마을회관에서 모인 어르신들이 나를 보시고 무슨 일로 왔냐고 물으시기에 ○○○씨가 우리 아버님이라고 오늘 마을 잔치가 있어 일손이 필요하다 하셔서 아버님 따라 왔다고 했다.

“아니, 그 집에 아들도 없는데 웬 며느리?”

모두들 나와 그분을 이상한 눈빛으로 힐끔거렸지만 나는 그저 웃으면서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도 하고 마을 어르신들에게 술도 권해드렸다. 그렇게 한참을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그만하고 나오라고 하셨다.

“네, 아버님!”

얼른 따라 나섰다. 그렇게 조사를 마치고 안녕히 계시라는 인사와 함께 돌아서려는데 나에게 다음번에 올 때는 헛걸음 안 하도록 꼭 전화를 미리하고 오라고 당부하시는 거다. 아! 그때 느꼈던 뿌듯함과 가슴 벅참이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모를 것이다.

그분의 뽕뽕 얼었던 마음이 이렇게 쉽게 녹을 줄 상상도 못했는데... 한번 마음을 열고나니 완전히 판사람이 되셨다. 마을 입구 당산나무 아래 세워둔 차만 보고도 내 방문을 아시고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다. 그뿐만이 아니다. 조사구 전체를 동행하시어 가축통계조사에서 조사하러 나왔으니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그래야 통계자료가 정확하다고 목소리 높여가며 마치 자신의 일처럼 함께해주시기까지 하신다.

그렇게 선뜻 통계인이 되어주신 그분, 밭에서 금방 수확한 갖가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담아주시며 촌이라 줄 게 이거 밖에 없다며 되레 미안해 하시던, 3개월에 한 번씩 오는 별 달갑지 않은 손님의 방문을 기다려 주시던 그분.

그분과의 만남은 채 3년이 되기도 전에 인사이동으로 끝이 났다. 떠나는 날 찾아뵙지도 못하고 전화로 드리는 안부인사에 언제 또 볼 수 있겠냐며 못내 아쉬워하시던 친정아버지처럼 따스한 마음을 가진 그분이 지금도 3월이면 생각난다.

남자 직원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가축동향조사, 농작물생산량조사, 농업면적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나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남자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며 의아해 한다.

물론 7월 무더위, 가만히 서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날에 하루 종일 작물재배면적조사 하느라 논밭을 쏘다니고 나면 다음날 아침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힘들고 지친다. 더구나 매 조사시기마다 어김없이 나타나 깎듯이 인사하는 뱀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삼십육계 달음박질을 하고나면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주르르 흐르고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 그 자리에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주저앉기도 하지만 지금 내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보다 남녀의 조화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꼭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자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

어느덧 17년, 베테랑이 되어있어야 할 경력이지만 아직도 한 번씩 브레이크가 걸리면 어떻게 풀어야 하나 하고 며칠을 고민한다. 하지만 그분을 만난 이후로 언젠가는 내 진심이 통하리라는 믿음과 또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겼고 지금의 불운 농가가 또 다른 통계인이 되어 줄 것으로 확신하며 노력하게 되었다.

끝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누가 알아주던 말든 세상이 두 쪽이 나지 않는 한, 늘 그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모든 통계인에게 힘내라는 말을 하고 싶다.

아자! 아자! 파이팅!



당신, 외판원 맞지!

장려상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 문 석 환

“우리팀에서 1명을 빼고 인원보강이 없다는데요?”

“응! 무슨 소리야?”

사회팀 업무 중에서 각종 연간조사가 많은데 인원은 빠지고 업무만 감당해야 하니 팀원들 보기가 민망하기만 하였다. 팀장으로서 업무분장을 해야 하는데 난감하기 이를 데 없어 내가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업무분장을 실시하였다.

전임자는 가구에서 협조를 잘 해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 다소 안심이 되었지만 사업체를 주로 담당하여 사업체를 방문하였는데 이제는 가구를 일일이 방문하면서 주부들을 상대로 경제활동 및 가계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지고 엄청난 부담이 느껴졌다.

담당조사구는 아파트로 가구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조사가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고 있기에 주부들과 대화를 하면서 가구원에 대한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취업자 및 실업자 파악 및 가계부 작성을 하도록 유도해야 했다.

우선 조사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응답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생각에 응답자를 만날 수 있는 퇴근시간에 방문하기로 하고 사무실에서 퇴근 후 조사구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약 20가구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층에서 부터 한 층 한 층씩 내려가면서 가구에 대해서 취업자 및 실업자를 파악 하고 거의 조사가 마무리 될 무렵 시간을 보니 저녁 10시가 넘어감을 알 수 있었다.

늦은 시간이 되다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오늘은 피곤하니 내일 다시 와서 돌아볼까? 아니, 오늘 조금 늦더라도 몇 집 안 남았으니 다 만나고 가야겠다는 갈등이 있었다. 하지만 그래 또 내일은 사무실에 가면 무슨 바쁜 일이 생길지 모르니 오늘 모두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땡땡 땡땡...

“누구세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문 안에서 들려왔다.

“예, 안녕하세요?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문석환입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쭙보려고 찾아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주머니의 따스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여러 가족 분들이 모여서 삼겹살을 구어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늦은 시간 코를 찌르는 삼겹살 냄새... 여태껏

삼겹살 냄새가 그렇게 좋게 느껴진 적은 없었던 거 같다. 저녁을 거른 상태라 배고픈 마음이 더욱 들었다. 오신 손님 중 한분이하며 반가이 맞아주셨다.

“이렇게 늦은 밤까지 수고가 많으시네요. 이리 들어오세요. 식사하지 않았으면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늦은 시간인데도 짜증부리지 않고 식사까지 하고 가라는 말 한마디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어 한결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오늘의 마지막 가구를 방문하기 위해 바쁜 발걸음을 재촉하며 초인종을 눌렀다.

“안녕하세요?”

전에 가구를 방문하면서 한 인사말을 다시 한 번 되풀이하였다. 안에서 젊은 아주머니의 피곤한 목소리와 함께 문이 반쯤 열렸다. 얼굴은 짜증이 잔뜩 묻어 있고 짧은 핫팬츠 차림에 끈으로 된 민소매 차림을 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젊은 주부가 눈에 들어왔다. 순간 시선을 어디에다 두고 해야 될지 난감했는데 당황한 내색은 하지 않았다.

“전에 여직원이 담당했는데 이번에 새로 업무를 맡게 된 문석환입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 때문에 방문을 했다고 하면서 조사에 대한 필요성 등을 설명하였다. 응답지는 듣는 등 마는 등 하면서 하면서 막무가내로 쏘아붙이는데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픈 심정이었다.

“아니, 도대체 담당자가 몇 번이나 바뀌는 겁니까? 그리고 이 야심한 밤에 그것도 웬 남자가 불쑥 들어오는 거예요?”

“시간도 너무 늦은 시간이고 하니 나중에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아주머니가 너무나 다그치는 바람에 서둘러 인사를 하고 아파트 계단을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내려왔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아파트에는 여자들만 주로 있는데 남자가 방문하니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남자로 태어난 것이 죄는 아닌데~~ 하며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하늘은 내 마음을 대변이라도 하듯이 주룩주룩 비가 내리고 있어 마음의 서러움을 더해 주는 듯 했다.

며칠 후 다시 그 집을 방문하여 늦은 시간에 방문한 이유와 남자 직원이 조사하는 이유 등을 설명하니 아주머니도 미안했는지 그때는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너무했다고 하면서 마음을 열어주었다.

이후 조사구는 아무 문제없이 조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져 안심을 하였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었다.

조사구가 9번 연동으로 9월부터는 새로운 조사구를 개척해서 조사를 시작해야 하는 걸로 되어 있었다. 조사구요도가 내려오고 아파트 조사구를 확인 한 후 전체 90여 가구의 취업자에 대한 산업, 직업을 먼저 파악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우선 관리사무소에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 공문을 작성하여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협조를 부탁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아파트 출입구 게시판에 공문을 부착하고 조사에 응해 줄 수 있도록 안내방송까지 친절하게 도와줘서 너무나 기뻐다. 그러나 기쁨은 여기까지인 듯싶었다.

90여 가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금요일 저녁시간대와 주말을 이용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계획을 세웠다.

때는 바야흐로 2010년 7월 하순경 휴가철이기도 하고 올 여름은 너무나도 찌는 듯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었다. 조사원인 나도 너무나 더워서 수건과 부채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더위를 이겨내느라 땀땀대며 조사를 시작하였다.

조사는 맨 위층에서부터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조사에 임하였는데 어떤 응답자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방송을 하고 와야지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이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집안에 인기척이 있어 문을 두드리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사람도 있다.

“웬 삼복더위에 여자들만 있는데 이렇게 무례하게 방문하는 거예요? 당신, 외관원 맞지!”

“아이고 사모님 저는 외관원이 아니고 통계청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입니다.”

“무슨 공무원이 가구를 다 돌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주머니는 의문의 질문을 한다. 이에 목에 걸고 다니는 공무원증을 보여줬다.

“사모님, 공무원 맞죠?”

그제야 아주머니는 의아한 얼굴로 조사에 응해주면서 협조해 주시는 가구도 있었다.

“몰라봤네요.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또 어떤 가구에서는 이렇게 무더운데 어떻게 일일이 가구를 다 방문을 하냐고 하면서 시원한 음료수를 챙겨주는 노부부도 있었다.

가구부문은 대부분 여성들이 조사를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조사를 해야 하는 남자 조사원으로서 처음에는 해당 가구 문을 열고 조사해달라고 하기가 많이 망설여졌지만 그 가구에 대해 진심으로 다가가니 태도가 달라짐을 알게 되었다. 가구조사를 하면서 여성들은 가구부문을 조사해야 되고 남성은 사업체부문을 꼭 조사해야 한다는 불문율이 단순한 선입견이었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

즉, 우리 조사에는 어떠한 조사는 여자가 하고 어떠한 것은 남자가 하는
그러한 편견을 버리고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어떠한 조사를
담당하게 되면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한다면 누구라도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감히 해본다.

자신이 염려하는 만큼만
자신이 하는 일에 정열을 쏟는다면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더 진실하게,
더 친절하게,
더 열심히

장려상

호남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 김진아

많은 일 가운데 어려운 일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통계조사는 응답하시는 분의 협조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조사할 때마다 자주 깨닫곤 합니다. 통계업무를 하기 전 내가 접했던 대부분의 일이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가져다주는 일이었지만 사람을 상대로 하는 통계조사는 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의 호응이 없이는 정말 힘든 일이 바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조사인 것입니다.

A사무소에서 B사무소로 발령이 났을 때 일입니다. 마침 그 때는 가축 동향조사 기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은 후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혼자 출장을 나갔는데 길눈이 어두운 터라 정신을 집중하며 인계 받은 지역을 겨우 찾아갔습니다. 일단 첫 집부터 기준을 잡아 차근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차근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조사구는 주로 소를 키우는 가구로 30두 이상 키우는 집이 드물었고 농가에서도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분이 많아 대체로 수월하게 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주인이 출타 중인 곳은 못 만나 뵈었지만 어차피 조만간 다시 와서 조사할 계획으로 조사구를 한 바퀴 돌고 늦은 점심을 먹은 후 다음 조사구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다음 조사구는 첫 번째 조사구와는 달리 조금 넓은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쪽, 저쪽 골목도 많아 차근차근히 하지 않으면 저 같은 길치+방향치는 헛갈리기 안성맞춤인 구조였습니다. 역시 처음 조사구처럼 맨 첫 집부터 기준을 잡아 한 가구, 한 가구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리품을 팔아 이 댁, 저 댁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니 꽤 시간이 흘러 4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종일 걸어 다녀 다리가 아프기도 하고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목도 아팠습니다. 게다가 겨울이라 오후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콧잔등이 맵고 슬프지도 않은데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겨우 조사구를 한 바퀴 돌고나니 집집마다 축사는 꽤 있는 것 같은데 주인을 만나 뵈지 못한 집이 여러 곳이어서 아쉬운 마음에 한 분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다시 한 번 조사구를 돌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꽤 늦은 터라 몇 집만 더 들르고 다음에 올 요량으로 중간 중간 못 만난 집을 몇 군데 들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쪽 골목이었던가 하며 주인을 못 만난 집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다시금 들어갔는데 마침 주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통계청에서 가축동향조사 좀 하러 방문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니 어르신이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잠깐 말없이

쳐다보셨습니다. 나는 어색함을 지우려 다시 말을 붙였습니다.

“선생님, 조사는 얼마 걸리지 않으니 잠시만 시간 좀 내 주세요.”

그러자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아가씨, 아까 와서 조사했잖아. 내가 〇〇마리라고 말 했는데... 또 해야 되나.”

성함을 여쭙어 보니 과연 아까 조사를 한 곳이었습니다. 아빨싸, 골목이 여러 개고 만난 사람도 여러 분이다 보니 조사한 집을 다시 방문하는 어이 없는 실수를 하고 만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마을을 처음 조사하다 보니 골목이 많아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와서 시계를 보니 5시가 좀 넘어 그쪽 골목이라도 다 마치고 가려고 다음 집으로 서둘러 들어갔습니다.

얼핏 주인아저씨가 축사 쪽에서 일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들어가서 인사를 건넌 후 가축동향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 바쁘니까 빨리빨리 물어보라고 하셔서 우선 전체 두수를 물었습니다. 한우 〇〇마리라고 하시고는 답변이 다 끝난 것처럼 다시 사료 주는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저는 구간별로 물어보기 위해 생후 1년 안된 암소는 몇 마리, 수소는 몇 마리 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가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 조사를 하느냐며 자신도 모른다고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대체 조사를 일 년에 몇 번씩 해 가느냐며 저번에도 해 준 것 같은데 만날 조사만 하면 뭐하느냐고 불만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불만을 듣다보니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저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씨는 비를 맞으며 힘없이 듣고 있는 내가 좀 안되어 보였던지 비가 오니
축사 지붕 밑으로 들어오라시며 어떤 것을 답변해 주면 되느냐고 물었습
니다. 저는 다시 구간별로 여쭙었고 아저씨는 축사 안에 있는 소들을 빠른
속도로 일일이 세어 가며 답변해주셨습니다. 조사를 끝내고 아저씨가 좀
호의적으로 대하시는 것 같아 나는 통계가 정확해야 정책 수립도 올바르게
되지 않겠느냐며 분기마다 조사를 하니 좀 귀찮으시더라도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저씨는 이렇게 갑자기 와서 물어보면 본인도
잘 알 수 없고 바쁘면 일일이 답변할 시간이 없으니 다음번에는 미리 연락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복사해간 조사표가 몇 장 있어 한 장을 드리며 다음번에는 3월 1일
00시 기준 마리수를 조사하니 여기에 구간별 마릿수, 과거 3개월간 변동
사항을 파악해 두시면 3월 조사 시 연락을 드린 후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집을 나서니 이미 어둠이 깔리고 비도 그치지 않을 것 같아 치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며 차에 올랐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그나마 이렇게
협조의 가능성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어두운 길을 돌아오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는 조사를 나가기 전에 연락을 드리면 조사표에 미리 파악해
놓으시고는 댁을 방문했을 때 기록해 두신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미리 작성해 두시니 조사 시간이 한결 단축되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 상황
하게 말하지 않아도 되어 간편했습니다.

또, 한번은 돼지를 사육하는 가구가 동네와 좀 떨어져 있어 차를 타고
비탈진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포장 안 된 길이 이따금씩 움푹 파인 곳이
있어 작은 차를 몰고 조심조심하며 도착하였습니다. 입구에 있는 차가

지나갈 때 소독을 해 주는 장치를 통과하여 적당한 곳에 주차를 해 두고 집에 들어서려는데 돈사와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주인이 안 보여서 안팎을 서성대다가 안 되겠어서 조사표에 적힌 핸드폰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모님이 받으셨는데 통계조사로 왔다고 방문 목적을 말씀드리자 사장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시고는 끊으셨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자 사장님이 일하시다가 나오셨습니다. 걸어 나오시는 도중 인사를 드리자 사장님이 갑자기 화를 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짧은 순간 머릿속에 ‘바쁜 시간에 와서 그러시는 걸까? 원래 협조를 잘 안 해 주시는 곳일까?’ 여러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글 못 읽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안 보여요?”

말씀하시면서 가리키는 곳을 보니 한 쪽에 하얀 큰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방역 철저, 용무가 있을 시 아래 전화로 먼저 전화 주라는 내용과 함께 전화 번호가 쓰여 있었습니다. 왜 그 큰 간판이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걸까요? 그것도 보지 못하고 척 안으로 들어갔으니 화가 나셨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 화를 내셔서 조사는 고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달리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꼭 먼저 전화를 드린 후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독 절차를 거친 후 방문하겠노라고 약속을 드리니 노여움을 거두시고 신발 소독 등 절차를 거친 후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있는 사육일지를 보시고 구간별 마릿수며 지난 3개월간 생산, 폐사 두수 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후에는 조사 시 미리 전화를 드리고 방문하여 소독 절차를 거치고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그 후로 사장님은 조사를 가면 음료수를 주시며 친절히 조사에 협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통계조사를 하면서 마치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분도 만나고 통계의 중요성을 아시고 통계가 정확해야 한다며 적극 협조해 주시는 분도 만납니다. 그러나 때로는 조사를 거부하시거나 귀찮게 여기시는 분도 만납니다.

응답자분의 반응에 따라 제 기분 역시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있지만 기분에만 좌우되면 진정한 통계인이 아니겠죠? ‘더 진실하게, 더 친절하게, 더 열심히’ 를 매일 배우며 나아갑니다.

국가통계 품질향상과 신뢰받는 통계 생산은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해 중요한 일임을 알기에 우리들은 오늘도 논밭을 누비고 대상 처를 방문하고 응답자를 만나며 통계조사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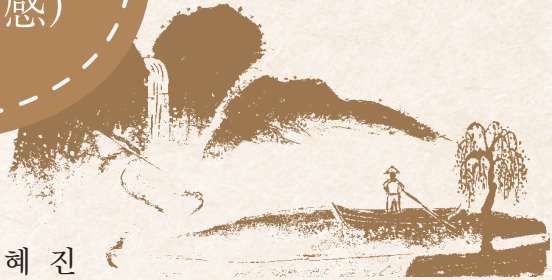
꿈은 영혼의 창이라고 하니,
그 창으로 안을 들여다보면
영혼의 본질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농심(農心) 그리고 공감(共感)

장려상

충청지방통계청 홍성사무소 곽혜진



매미의 울음소리가 시작되는 금년 7월의 시작과 더불어 열정이 불타 올랐던 첫 출근의 기억을 회상해 본다.

결혼하여 남편 직장으로 인해 홍성으로 이사와 주부로만 생활한 지가 2년 정도 됐을 즈음, 당시 통계청 사업 일부인 2010 인구주택총조사 시범예행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 시범예행조사 아르바이트 활동을 계기로 통계청과는 짧은 인연을 맺은 터였다.

그때의 인연으로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금년 6월 통계청에서 기간제 조사원을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력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면접 후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나라 일을 맡게 되었다는 자부심과 긍지에 불타올라 출근할 날만 기다렸다. 첫 출근하던 7월 첫날 아쉽게도 전 직원이 위크숍에 참석하여 단 한 명의 직원만 남아있는 사무실에서 통계조사관련 규정 및 자료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돌아와 주말을 보내고 처음 인수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받은 일이 작물재배면적조사 업무였다.

모든 것이 처음이라 낯설고 생소한 용어들을 알아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힘들었지만 전임자인 ○○○조사관님과 함께하는 인수인계 과정이라서 불평할 새 없이 고된 업무를 감수하며 뒤를 졸졸 쫓아다녔다.

정규 직원과 함께 동행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작물재배면적조사를 실시하던 입사초기 어느 날!

먹어는 보았어도 떡잎 자체가 다 비슷한 모양이라 콩인지~팥인지~분간하기 어려운 농작물에 문의한인 내가 집중하여 작물 명을 조사하고 있던 중 참기 힘든 현기증이 밀려와 급기야 농로에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나는 손과 바지 옆 부분과 엉덩이에 흙이 묻었다.

33도가 넘는 땀별에 그늘 하나 없고 산이 깊어 휴대폰 통화도 간간히 끊어지는 지역이다 보니 조사관님의 속은 타들어 가고 나름대로 응급조치를 취해 모자를 벗어 그늘을 만드시고 부채질을 하고 계셨던 조사관님은 흐릿한 눈을 뜨며 깨어나는 저에게 말씀하시며 안도의 숨을 몰아 쉬셨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지 그랬어.”

50대이신 조사관님 앞에 이제 갓 30대를 시작한 나에게는 나약함이라는 수치스러움도 있었지만 이런 땀별에서 물 주전자만 달랑 놓은 채 하루 종일 밭과 씨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농부들의 인내력과 공지가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

그날을 떠올려 생각해 보면 이 날로부터 시작된 나의 업무는 업무가 아니라 배움터 자체였다는 생각이 든다. 밥을 할 때 무심코 흘려버린 쌀 몇 톨도 소중한 것이란 생각에 다시 주워 밥솥에 담게 되는 마음가짐이 자라게

되었고 피약별에 검게 그을린 농부들의 구릿빛 피부도 진리를 아는 자연에 순응하는 힘없는 인간의 표상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으니 말이다.

어느 해보다도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은 80% 이상을 현장에서 근무해야 하는 나에게도 얼마나 가혹한 더위였는지 모른다. 우여곡절 끝에 작물재배 면적 조사기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틀 동안의 교육을 거친 후 또다시 15일간 가축 동향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필지 안에 심어진 작물면적만 조사하게 되는 작물재배면적조사에 비해 가축동향조사는 질문데이터를 문답형으로 질의하여 답변을 채워야 하는 방식이므로 일일이 농가에 방문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방문하는 게 무슨 어려움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방문의 어려움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더욱이 우리 지방청에서 가축조사 업무량이 전체의 26%를 차지하는 가장 많은 가축동향조사이니 말이다. 어떤 농가는 개를 가둬놓지 않고 사육하는 집이 있어 대문 안으로 성큼 들어갔다가 공포스럽게 짖어대는 개에게 바지 끝자락을 물려 도망치듯 줄행랑을 치고 닭똥을 밟고 넘어지기도 하고 독한 모기에 여러 군데 물리고 가축의 분 냄새와 파리의 전쟁 등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경험해야만 했다.

가축동향조사는 태풍 곤파스가 혹독한 기습 피해를 강타했던 날 이후 보름동안의 기간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인지라 하루 한 집이라도 더 들러 조사를 해야만 했다.

신 도청 예정지인 흥북면에서 그리 멀지 않은 농가에 도착하여 방문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하니 축사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농장주를 만나게 되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인사하며 기본적 질문에 들어가니 예상외로 농장주는 답변에 응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이번 태풍으로 축사 한 쪽 지붕이 날아가고 무너져 가축이 일부 우리를 빠져나가는 긴박한 사태가 벌어져 바빠서 답변에 응할 수 없다고 내일 다시 오기를 요청하여 답례품만 전달하고 되돌아오고야 말았다.

하루에 전수 조사 농가 이십여 집을 방문하는 실정인지라 일을 마치고 어제의 농장주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방향을 바꿔 그 농가에 도착하니 대파 수확 작업에 분주하던 농장주가 약속과는 다르게 지금 바쁘니까 저녁 7시에 전화로 해달라며 또 나를 되돌아가게 만들었다. 전화해 달라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 퇴근시간 이후 사무실에서 7시가 조금 지난 시간에 전화를 드렸다. 그런데 또, 식사중이니 1시간 이후에 다시 하리는 따가운 말로 대신하는 농장주님.

어쩔 수 없이 오늘 안에 마무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아홉 시가 다된 시간에 전화를 드렸더니 호된 꾸지람을 들었다.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이렇게 늦게 전화를 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여운을 남겨주셨다.

“내일 전화하세요.”

다음 날 저녁 전화 통화를 했다. 그런데 이걸 또 뭐람. 모친인 듯한 어르신 전화 받기에 농장주(아버님)를 바꿔달라니 당신의 아들이라며 바꿔주시려 하시는데 옆에서 들리는 소리가 전화를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없다고 잔다고 해요!”

“야! 그러지 말고 받아봐.”

늙으신 어머니의 말씀이 들린 뒤 몇 분이 지나고 나서야 전화를 받으

시는 농장주 앞에 나는 따지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지금까지 겪어왔던 나의 진심어린 깨우침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대화를 열기 시작했다.

“아버님 태풍 피해 때문에 여러모로 많이 힘드시죠? 죄송해요. 힘드신 상황에 제가 도움은 못 드리고 어려운 심정이신데 자꾸 귀찮게 해드려서요…”

나는 나도 모르게 말끝을 흐리며 목이 메어짐을 느꼈다. 이것은 내가 연기를 한 것도 아니었고 나의 진심이 목소리를 통해 그대로 보임이었으리라. 이렇게 내가 말끝을 흐리자 너무도 자상하고 편안한 음성으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뉴~ 아가씨도 보니까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던테유, 제가 빨리 도와드렸어야 하는데 이놈의 태풍 때문에 축사가 무너지고 소는 나가고 하니까 속이 터져서 정황이 없어서 그랬슈. 미안허유!”

악의도 없고 천성 자체가 너무도 곱고 선하신 분이란 걸 이제야 깨달았다. 새벽부터 황혼에 이르기까지 땀 흘리며 애써 지은 한해 농사가 하룻밤 태풍에 다 쓰러지고 거액을 투자해 지어놓은 축사까지 망가졌으니 농장주의 마음이 오죽했을까? 오히려 이런 농장주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지 못하고 내일에만 급급해 조사하려 했던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부끄럽게 느껴졌다.

통계청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업무든 모든 업무가 조사대상자들의 권익과 발전을 지향하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표면적인 일에만 매달리는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

입사 후 일주일 동안은 숙지가 안 되고 출장이 많은 업무특성을 소화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하지 못하여 사무실에 들어와 눈물을 보였을 때도 있었는데 선임자들의 따뜻한 격려와 조언이 오늘까지 있게 만들어 준 요인이었던 것처럼 나를 공감해 주지 못했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있지 못했을 것이다.

근무연수와 관계없이 사무실 내에서는 모두가 언니고 오빠고 친구라서 긴 주말을 지내다가도 빨리 월요일이 되어서 그들을 만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진 것은 힘들고 지칠 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받아주는 그 공감대가 아닌가 싶다.

힘들고 어려운 농가와 축산농가도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읽어준다면 그들도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을까 싶은 작은 소견을 비취본다. 또, 농가의 경영주가 덜 고생하는 풍요로운 농촌이 실현되기까지의 꿈을 꾸어본다.

그리고 출근하는 시간이 매일매일 기다려지고 행복하다.

지성이면 감천



장려상

경인지방통계청 평택사무소 갈 정 숙

통계청과 인연을 맺어 통계조사원으로 일한 지도 벌써 10년하고도 7개월. 여러 조사구의 많은 응답자들과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또 헤어지고를 여러 번...

햇볕 따사로운 날 어느 날 문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는 방문과 면접으로 가계조사, 경제활동 인구조사, 농가경제조사, 농축산물생산비조사 등 여러 업무를 번갈아 하면서 설움과 어려움도 많았고 절대불응을 외치는 응답자도 만나보았지만 그들을 이해하여야 했고 통계조사에 응답해 준다는 것이 개인정보유출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응답자를 이해하며 오늘도 현장조사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만난 응답자 한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제가 농관원 이관업무인 가축동향조사를 담당하게 된 것은 2009년 5월 소장님께서 기존 통계청 조사업무와 농관원 이관 업무를 혼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직 융합을 이루고 서로 다른 업무를 해봄으로써 힘든 상황을 서로 이해하며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지는 차원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축동향조사가 어떤 것인지도 몰랐고 어떻게 조사하는지도 몰랐는데 이관되어 오신 선배님들께 많은 교육과 현장지도 방문으로 어렵게 배우며 이제는 많이 익숙해진 업무입니다.

한우, 비육, 젖소가 구간별로 어떻게 이동하는지? 돼지의 종돈과 모돈, 이유자돈, 육성, 포유 돈들의 사육 사이클은 어떻게 되는지? 산관계와 육계의 관련 질병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등.

9월 어느 날, 오리에 대한 가축동향조사 시험조사 차 처음으로 2010년 9월 안성시 삼죽면에 위치한 가축 농가에 도착하였습니다. 연일 더운 날들이 연속인데다 불쾌지수까지 하늘을 찌르고 있으니 옆에 애꿎은 사람이라도 만나면 대뜸 싸움이라도 한판 벌이고 싶은 그런 짜증나는 날이었습니다. 조사원의 애환을 뺏속깊이 느끼게 해주는 구수하다 못해 역겨운 분노냄새로 무장한 축사와 돈사, 계사 사장님들을 뵈러 그날도 여지없이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조사 기간 내내 여러 번 방문하였으나 주인은 불응하고 나를 반겨주는 것은 죽어 있는 많은 오리들의 시체들뿐... 아이고!!!

오늘도 죽을 맛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내 발걸음은 어느새 그 집 앞. 한없이 작아지지만 위축되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잡으며,

“안녕하세요? 통계청에서 가축동향조사 나왔습니다.”

목록부담.

“계세요. 통계청에서 가축동향조사 나왔습니다.”

여러 번 여러 번 목청을 높여~~~

아무 인기척이 없어 발걸음을 돌리려는데 마당 안쪽 끝 축사에서 부부가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어떻게 말이라도 한번 붙여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단걸음에 축사로 달려가 축산소식지를 전해주며 한마디 말을 건네었습니다.

“통계청에서 나왔는데요. 선생님 댁이 오리를 키우시므로 앞으로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가축동향조사에 협조해 주십사 이렇게 방문 드렸습니다.”

“뭐라고!! 개 풀 뜯어 먹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정부에서 또 뭘 하라고??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지금은 시험조사기간이라 대략적인 수치만 여쭙어보고 가겠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막말을 해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니 다른 데 가서 알아봐.”

통계조사에 대해 설명을 하며 계속 방문을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 아줌마가 왜 이래, 시끄러워!”

특히 아주머니께서는 완강하다 못해 건네준 통계소식지를 축사바닥에다 내 팽개치며 시끄럽다고 빨리 나가라고 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분위기가 도저히 설득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일단 후퇴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깎듯하게 인사를 하며 돌아서려는데 아주머니께서 불러 세우셨습니다. 손가락으로 소식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저 가져가야지.”

아니 이 일을 어찌란 말인가!!! 소식지는 분노에 떨어져 만신창이가 되어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있는데 그걸 나더러 주워가란다. 하지만 내일을 기약하려면 어떤 일이라도 참고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에 분노가 잔뜩 묻어있는 종이를 주워 깎듯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버릴 곳을 못 찾아 대중 차 한 귀퉁이에 쳐 박아 둔 통계소식지에서는 그칠 줄 모르고 냄새가 솔솔 풍겨대고 있어 공기청정기를 돌려도 역겨운 분노 냄새는 가실 줄을 모르고 계속 진동하며 내 비위를 거스르게 하였습니다. 그래도 참으며 기존의 가축조사를 위해 다른 농가로 이동하는 중 드디어 속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세우고 육~ 토하고 가다 또 논바닥에 육~ 도로에 육~ 차 뒤에 육~.

조사도 포기한 채 비위가 약한 나는 드디어 4번을 토하고 난 후에야 기진맥진하여 사무실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조사하면서 힘든 일을 여러 번 겪어 봤지만 정말이지 그날은 죽을 것만 같았고 설득을 못해서 속상하고 응답자가 밋기까지 했습니다.

다음날 그래도 조사를 마쳐야 했기에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굳게 마음을 다지며 내 자신에게 최면을 걸며... '나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통계 조사를 하러 나왔지! 그 집에 구걸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를 수없이 되뇌며... 당당하게 맞서리라!! 다짐하며 다시 방문하여 문을 두드리며 불렀습니다.

“계세요. 통계청에서 가축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계세요. 통계청에서 가축동향조사 나왔습니다.”

아무런 대답은 없었지만 안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와 발자국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한 번.

“계세요~~~”

“누구냐?”

그때 걸쭉하고 육중한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헉! 공포의 주인아주머니가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웬만하면 소리부터 지르며 다른 말을 할 틈도 주지 않고 짱 소리 나게 문을 닫아버리는데 오늘은 웬일로 현관문이 조금 열려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손님들이 와 계신지 집안이 시끌벅적하고 맛있는 음식냄새가 코끝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 번의 헛걸음과 불응, 몇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열린 문이기에 반갑기도 하고 손님들이 계신니까 아주머니께서 면박을 주시지 않으리라는 계산으로 냉큼 현관 안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최대한 밝은 모습으로.

“안녕하세요. 통계청입니다. 손님이 계신데 잠깐 여쭙보고 가도 될까요?”

“글쎄! 안 한다니까. 왜 자꾸 와서 귀찮게 해, 빨리 나가”

그때 안에 계신 여자 손님 중에 한 분이 되묻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요? 통계청요??”

“네, 통계청 평택사무소에서 왔습니다.”

나는 웬지, 그분이 되묻는 말이 너무 고맙고 반가워 최대한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이모! 별일도 아니고 어렵지도 않은데 이모는 통계청 직원에게 왜 그리 면박을 줘! 선물도 주는데... 왜 그렇게 매정하게 그래? 저 직원이 물어보는 대로 대답만 해주면 되는데...”

그 여자 손님은 저 대신 주인아주머니를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이때다 싶어 창피함에 눈시울이 붉어져 나오려는 눈물을 꼭 참으며 가축동향 조사를 해서 우리나라의 가축 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이며 통계자료는 통계청에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니는 회사에서, 학교에서, 연구기관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쓰는 것이라는 등 구구절절 설명을 최대한 빠르게 해냈습니다. 그때 다른 손님들도 일심동체로 제 편이 되어 모두들 제 말에 한 마디씩 거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순간 제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어안이 병병했습니다. 그때 한층 목소리가 부드러워진 주인아주머니께서는 지금은 시끄럽고 정신없으니 내일 다시 오라며 그동안의 무섭던 목소리는 온데 간데 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손님으로 와 계신 주인아주머니의 조카가 경인지방통계청 서울본부 관할에서 가계부를 쓰고 계신 응답자분인 것이었습니다. 체계는 정말 구세주 같았습니다.

다음날 다시 방문을 드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아주머니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고 다니시던 ○○의 ○○님 부인에게 2억이라는 거금을 빌려 주고 받지 못하여 소송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은 절대 믿지 않고 세상에 대한 부정과 타인에 대한 거부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통계조사를 하러 갔으니 당연히 불응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성껏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 드리며 틈틈이 통계조사의 중요성과 쓰임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설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드디어 무섭고 사납기만 하던 아주머니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묻는 대로 술술 답변을 하시며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동안 미안했다며, 딸 같다고 오리 알까지 챙겨 주시며 좋아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또 다시 한 편의 극적인 드라마가 쓰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내가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런 사연도 모르고 불응하고 문전박대한다는 이유로 가축동향조사 오리대상가구를 포기했다라면 정확한 통계조사도 못하고 나 자신에게도 많이 화가 나고 속상했을 텐데... 끈질기게 방문하고 설득한 결과 이제는 서로의 속사정을 얘기하며 자세한 마릿수를 제공해 주려고 애쓰시는 엄마와 딸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러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진 응답자들을 적극적인 응답으로 이끌어 내려면 그들의 입장에 서서 ‘응답자들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라도 의심할 수밖에 없겠구나!!’를 바꾸어 생각하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쉬지 않는 열정과 진실 된 마음으로 대하다 보면 불응은 언젠가는 설득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통계조사관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통계조사 업무를 잘 모르시고 불응하시며 문전박대 하시는 응답자들을 향해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힘차게, 우리의 넓은 가슴을 활짝 열고 가슴깊이 그들을 이해하고 끌어안으며 오늘도 열심히 소중한 응답자 한분 한분을 설득해 봅시다.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지금까지의 세월동안 소중한 통계조사 자료를 저에게 응답해주신 응답자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통계청 현장조사 업무를 가르쳐 주시고 불응하는 응답자들을 설득하는 노하우를 가르쳐 주셔서 포기를 모르는 오늘날의 저를 만들어 주신 선배님들께도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나의 부족함을 함께 나누는 동료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나는 변함없이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해 열심히 현장을 뛰어다니며 응답자 한분 한분을 설득하여 내 소중한 가족으로 등록시켜 아픔과 슬픔을 같이하며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내 스스로에게도 부끄럽지 말자고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통계 가족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오늘도 파이팅~~~!!!

시작



장려상

충청지방통계청 증평사무소 김 선 영

가을 물빛 하늘이 가슴을 덮고 겨자 빛 들녘을 미소로 채우는 때가 되면 생산통계팀은 비상대기조가 된다. 오전 9시 전화벨소리와 울려 퍼지는 생산통계팀 행동대장 홍 조사관님의 목소리가 출동을 알린다.

“선머슴, 괴산 ○○○농가에서 지금 벼를 베기 위해 갓 돌림하는 중이란다. 얼른 준비해라.”

“네, 알겠습니다.”

활기찬 부름과 대답이 사무실 정적을 깨운다. 팀원 8명이 군대의 비상 훈련처럼 일사분란하게 준비물을 챙기느라 분주하다. 어느새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낫, 끈, 물, 조사표, 답례품, 계산기 등 5분도 되지 않아 봉고차 앞에 선 모습에 옆에서 지켜보던 농가경제팀장님의 한마디 “군대 같다.” 하는 소리에 웃음이 뺨 터진다.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일 년 전만해도 사회경제과에서 가계조사와 사업체조사를 하고 있던 나.

언제나 농부 차림으로 장화를 신고 챙 넓은 모자에 수건을 두른 모습으로 사무실을 나가 퇴근시간이 다 되어 옷에 흙을 묻히고 쾅한 모습으로 사무실을 들어오며 제각각의 힘들었던 일정을 보고라도 하듯 하소연하는 소리가 들린다.

“오늘 물을 몇 병을 마셨는지 배탈이 날 것 같아요.”

“땅이 너무 질어 밭이 눈에 빠져 못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 보는 작물인데 알겠습니까?”

이런 사항을 귀 동냥으로 들으며 ‘논이 불응사업체도 아니고 밭이 대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도 아닌데 육체적 고통쯤이야 논밭에 심겨진 작물만 파악하고 면적을 알아오면 되는데, 엄살들이 너~무하네.’ 애써 힘든 척하는 것으로 보였었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던 내게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몸으로 체험할 시간이 주어졌다. 업무변경으로 농업생산통계팀원으로 첫 인사하던 날 별명을 붙여주신다.

“우리 일은 남자도 힘든데 여자가 하기에는 더욱더 힘들다. 머슴이 되어야만 일을 할 수 있으니 오늘부터는 선머슴이다.”

목적 및 방법

“표본 조사구 논밭에 심겨져 있는 작물명과 재배면적을 파악하는 조사로 현지에 가면 공부상 등록과 실제 경지 이용 여부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우리는 현지 답사하여 실측 및 목측에 의한 조사를 하면 됩니다.”

그 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히 알려주신다. 첫 작물재배면적조사

팀장님의 교육과 고참들의 실습이 끝나고 혼자서의 첫 조사가 실시되었다.

첫 조사

자동차로 30분을 달려왔는데 조사구가 보이질 않는다. 인수 받을 때만 해도 긴장해서 그런지 조사구가 이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내비에 의존해 달려오다 보니 산길 막다른 길이다. IT강국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내비가 찾지 못하는 곳인 것이다.

좁은 길에서 후진도 전진도 못하고 식은땀만 난다. 이런 길을 운전하기는 처음이라 그저 기아 변속만 수십 번하고 뽀~옥 소리와 함께 검정 차에 흰색 브릿지를 넣고는 방향을 틀었다. 속상한 것도 잠시 나의 눈앞에 짐작도 해보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누런 것은 흙이요 초록은 풀이라. 어떤 것이 작물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 막막하고 한없이 답답하여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고 돌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멍해진다. 정신을 가다듬고 혹시나 하는 맘에 챙겨온 식물도감을 펴들고 닭은풀 맞추기를 한 지 얼마나 지났을까.

인기척에 놀란 것도 잠시 지나가던 아주머니를 붙들고 질문을 쏟아낸다. 아주머니 설명과 함께 차근차근 실습 때를 되짚어 보며 고랑을 세어 면적을 나누고 보폭으로 면적을 재고 적은 면적의 작물은 준비해간 줄자로 한 번 더 확인하고 보폭과 비교하며 오차를 줄여간다. 요즘은 신폼종이 많아 농부들도 다 모른다면 오히려 미안해하는 아주머니를 보내고 암호를 풀 듯 수사를 하듯 자세히 살피고 나서도 확신이 서지 않아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땅을 파헤쳐 씨앗을 확인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작물을 뽑고 꺾고 해서 귀청을 한다. 인터넷을 통해 작물을 찾고 시들해진 작물을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팀원에게 보이며 하나하나 해결해 간다. 일희일비하길 수차례 겪고 나서야 나의 첫 땅과의 인사를 마쳤다.

둘째 조사

7월의 무더위 속에 눈만 빼고 온 몸을 옷으로 휘감은 채 조사구 앞에 섰다. 그간 작물은 자라 첫 조사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쉽게 할 수 있겠지 하는 기대와는 반대로 수난의 연속이다.

집 옆 텃밭은 경이로울 만큼 20여종의 작물로 땅이 보이지 않았다.

작물을 확인하기 위해 잎사귀 뒷면을 보다 벌레를 보고 기겁하고 인삼밭으로 가는 길에 뱀을 보고 놀라고 논둑의 개구리가 뛰어 올라도 놀란다. 동물들로부터 곡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해 놓은 울무에 다리가 걸려 넘어져 손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콩밭의 핑이 날아오르는 소리에 가슴을 감싸기도 하고 갑자기 내린 소나기에 샤워도 하고 땀벌터위에 더운 공기가 목을 톡 메우는 하우스 안에서 작물조사하며 사우나도 하고 긴소매 옷에 땀띠가 나 고생도 하고 장마로 인해 조사구를 한참 걸어가며 다리가 아파 눈물도 찼끔 흘리고….

사무실 문을 열며 아무도 들어 주지 않는 푸념을 내뱉고 나서야 나도 생산통계팀원이 되어 닳아가고 있음을 느끼며 조사를 마칠 때쯤 열악한 나의 일터로 인해 나는 간 큰 여자가 되고 강심장을 소유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

셋째 조사

표본조사로 주어진 15개의 대상으로 수확기에 해당 작물의 생산량을

현지 조사하여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총 생산량을 산출하는 농작물 생산량 조사를 하기위해 우선 경작자를 만나야 한다.

위로 하늘만 보이고 주위로 산만 보이는 조사구에 생산량표본이 선정되었다. 논벼, 콩, 고추, 참깨, 과수 등 산간지대가 많은 나의 조사구의 경작자 파악은 신이 나에게 주어진 능력을 초과하여 알아내야 한다. 탐정이 되어 조사구 요도 하나 들고 마을을 찾아 나선다. 경작자 파악이 끝나면 이제는 수확을 준비한다.

벼 수확

옆 논에서는 콤바인으로 단숨에 탈곡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팀은 아날로그 방식대로 낮으로 한 포기 한 포기 벼를 베고 자로 예취 길이를 확인한다. 벼단을 묶은 후 주변을 단정히 정리해 놓고 탈곡장에 도착하여 탈곡을 시작한다. 키질을 하고 벼단의 무게를 재고 조제 벼의 무게를 재고 필지 표시를 한다. 그런 과정이 분업이 잘 되어 있는 공장을 방불케 하는 진풍경이 이루어진다.

처음으로 해 보는 타작과 키질은 나의 허리를 굳게 하고 온 몸에 몸살이 돋게 했다. 탈곡기의 신비함도 잠시 바람에 날려 온 까끄라기가 맨살을 파고들어 온몸이 따끔거린다. 서투른 키질에 축정이를 날려 보내고 알곡만 남았을 때는 가슴이 뭉클하기까지 하다. 쌀 한 톨 소홀히 할 수 없음을 몸소 뺏속에 새기며 이렇게 고통이 따르는데 어떻게 날마다 힘든 내색 없이 일을 하고 있는 선진들의 노고에 그간 나의 편견과 오만이 얼마나 경솔한지 죄송할 따름이다.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10월의 마지막 수확으로 콩이 선정되었다. 21C와는 대조적으로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수확에 들었다. 제법 쌀쌀해진 날씨로 사무실 앞에서 땀 돌리랴아 콩 꼬투리를 하나하나 따다. 태풍과 강수량 증가 및 일조량 부족으로 생산량이 많이 감소함을 눈으로 보며 흰 콩, 약 콩, 콩나물 콩 땅에 떨어진 한 톨 한 톨을 챙기며 그 동안의 무용담을 쏟아낸다. 논벼 예상량 조사 시 허리춤까지 올라온 장화를 신고도 밭이 빠지지 않아 도움을 받아 탈출한 일, 태풍으로 쓰러진 벼를 보며 걱정이 앞선 일, 길에서 만난 농부님의 막걸리 한 잔에 농촌 현실의 한탄 등이다.

그 중 백미를 장식한 것은 탈곡하는 날 점심에 팀장님에 제공해 주신 자연산 버섯을 소장님이 직접 끓인 버섯찌개와 동태찌개의 주재료인 동태 손질을 하지 않고 찌개를 끓여 내장에서 배어나온 새우를 두고 왈가왈부 했던 일이 두고두고 중평사무소의 전설로 전해질 듯하다. 콩 털로 입안이 꺼끌꺼끌할 때쯤 수고에 미안하다며 간식을 챙겨준 동료들의 정에 빠근해지는 몸의 피로를 풀고 일 년을 마무리하는 김장배추, 무, 총각무 생산량 조사와 경지면적조사를 남겨두고 있다.

다사다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나름 조사원칙을 세워가고 팀원의 애로 사항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에 열성 쏟는 모습을 보면서 남은 조사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을 거라 의심치 않는다. 통계인이라면 퇴직 전에 꼭 한번은 해봐야 할 업무로 강추한다. 다양한 별호를 더해가며 오늘이 끝이 아니기에 또 시작을 알리는 구령과 함께 날마다 새로이 시작한다.

나는 당신의 연예인!!!



장려상

동북지방통계청 원주시사무소 박 문 봉

우리가 알고 싶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자료화, 수식화하여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 통계인의 몫이고 또 우리 통계인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 또한 그 동안 눈물과 땀이 섞인 많은 통계자료를 만들어 내는데 일선 현장에서 기여하였고 그런 현장 경험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매일 매일의 다른 나를 대면하고 있다.

어느덧 통계와 인연을 맺은 지도 17년이 되어간다.

사람을 워낙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는 자신이 있었던 나는 평소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을 찾아가고 관계를 맺는 것은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들에게 민감한 사생활 질문을 하거나 통계 조사에 대한 이유 없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은 쉽지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만은 않았다.

특히 이번에 새로이 맡게 된 가계조사는 대부분 여성응답자를 직접 만나 가계부에 대한 조사 자료를 정확히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남자인 내가 혹시 응답자들에게 거부감을 주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요즘같이 무서운 사건 사고가 매일같이 보도되고 또 그런 일로 인하여 사람 간의 믿음이 줄어들고 있는 시대에는 어쩌면 낯선 남자가 자신에 집에 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한다.

조사대상 가구 중 40대 젊은 부부가 사는 가정에 가계조사를 하기 위해 가는 길이었다. 그 부부는 비교적 고등교육을 받았고 중산층 정도의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부부는 방문하는 사람이 자주 바뀌고 더군다나 남자 직원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막무가내로 조사에 협조를 못하겠다고 하였다. 통계청 직원이긴 하지만 남자가 가정집에 들락거리는 것 자체가 싫다며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한참을 문밖에 서서 사정을 했지만 문조차 열어주지 않으니 달리 방법이 없었다. 남자직원이 가계부조사를 한다고 하는 일에 주변 동료들이 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위로 아닌 위로를 받기도 하여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이 정도인가 하는 생각에 유난히 힘이 빠지고 서러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천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인가. 그 가정의 조사를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포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다음에 그 부부에게 통계청 직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낄 수 있을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

그 경험 이후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유능하게 해낼 수 있는 더 나은 나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경계심이 있기 때문에 그 경계심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유머를 이용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유머는 경직된 상대에 대한 마음을 쉽게 풀어 줄 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호감도 높아진다. 또한 유머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준다.

나의 이러한 계획적 접근 방법 중 한 가지 유머를 소개하면 어떤 사람이 소보로빵을 사러 빵집에 갔는데 주인아저씨 얼굴이 곰보인 것을 보고, 갑자기 당황해서 “소보로 아저씨, 곰보빵 하나 주세요.” 하는 유머로 시작했다. 통계조사를 하는 조사원과 물건 파는 사람을 구별해 달라는 그런 유머였다. 유머를 통해 조금은 유연해진 응답자는 개인적인 이야기는 물론 어떤 응답자는 자신의 고민까지 술술 털어 놓기도 한다.

일주일이 지난 후 나는 그 가정으로 떨리는 마음을 안고 다시 가고 있었다. 이번에는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지만 무섭게 거절을 당했던 집이라 긴장이 되고 있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누르자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통계청에서 왔는데, 엄마 계시니?”

“오지 말라고 하는데 왜 왔어요?”

화가 난 아주머니는 문을 열었고 “죄송합니다. 너무 목소리가 어려서 아이인 줄 알았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아주머니는 ‘피식’ 하는 미소를 지으셨고 나는 덕분에 시간을 조금 얻을 수 있었다.

이 기회에 현관 안으로 슬며시 들어가 훑어 보이신다며 말을 계속하였고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아주머니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은지 어이없다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짹째 통계청에서 지금 무엇을 조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통계 조사의 목적과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다행히 아주머니는 자신도 대학생 시절 설문조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며 이해해 주었다. 또한 아주머니는 남편이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적대심이 심해 저번에 심하게 대항한 것 같이라며 오히려 사과까지 하고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 주시어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앞으로는 잘 도와 주겠다는 말까지 들었다.

공무원이란 직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흰 와이셔츠에 자리에 앉아 전화로 민원을 해결하거나 공적인 문서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 또한 이 일을 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통계청 업무는 조금 달랐다. 공식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매우 사적인 관계를 맺고 그러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응답자(국민)와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야 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기 위해 그리고 보다 나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연예인이 될 수밖에 없고 더 나은 여러분의 연예인이 되기 위해 오늘도 부지런히 위트와 유머라는 무기를 갈고 닦는다.

우리사무소는 농가경제조사를 도난 당했습니다

장려상

충청지방통계청 충주사무소장 류 보 선

작년 여름 농촌의 어느 농가에서 농가경제조사 불응사례가 있어 농가 경제팀장과 함께 설득을 위하여 무기직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표본 농가 홍○○(농가경제조사 대상가구 : 충북 충주시 ○○면 ○○리)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상기 농가는 3년간 우리 사무소 농가경제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었다. 농가경제조사는 매우 어려운 조사로서 표본으로 추출된 대상농가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혼신의 힘을 다하여 육성하기 때문에 표본 농가를 잃는다는 것은 큰 손실이며, 표본 농가를 교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장인 나 자신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

조사 불응 사유는 “안방에 놓아두었던 지갑 속에 현금 7만원과 귀금속이 도난당했는데 가져 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사무소 담당 여직원뿐이다.”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라고 단정을 짓고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를 포함한 모든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통상 농가경제조사는 표본농가와 우리 사무소 담당직원과 긴밀한 유대 속에 표본농가의 응답자가 부재중이거나 출타한 경우에도 농가경제조사 일계부가 있는 안방에도 들어가서 정리하고 나오는 경우가 목계가 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담당직원이 오해를 받을만한 일이었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담당 여직원과 남편이 사건이 발생한 날 저녁에 표본 농가를 방문하여 현금 7만원과 귀금속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해명하였으나 허사였고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를 포함한 모든 조사에 불응하겠다.”고 주장하였다.

담당 여직원은 억울하다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쳤고 남편도 아내인 무기직 직원의 통계조사업무를 사직하고 집에서 전업주부로 남기를 강권하였다.

그래서 농가경제조사 담당 여직원을 설득하여 무기직을 사직하는 것을 만류하고 2차적으로 농가경제팀장이 해결하려고 표본 농가를 며칠 후에 방문하여 설득하였으나 결과는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를 포함한 모든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당초 주장만 되풀이 하였다.

이제 기관장인 나와 농가경제팀장이 함께 표본농가를 설득하기 위하여 나섰다. 예순이 넘어 보이는 표본농가의 여주인은 “안방에 놓아두었던 지갑 속에 현금 7만원과 귀금속이 도난당했는데 가져 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사무소 조사담당 말고는 누가 있겠느냐?”고 단정을 짓고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를 포함한 모든 조사에 불응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이제는 다시 방문하지 말라.”고 호통을 쳤다.

농가경제팀장은 “도난을 당했으면 경찰서에 신고해야지 애매하게 우리 사무소 무기직 조사직원을 범인으로 모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나는 표본농가의 여주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농가경제팀장의 말을 막고 조사불응에 대한 재고를 부탁하였다.

그리고 담당조사 여직원을 교체하고 표본농가를 교체할 경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니 앞으로 3~4개월만 추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농가경제팀장과 함께 사무소로 귀청하면서 억울한 마음을 꼭 누르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통계법 제25조 3항을 위반하여 지정통계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우리 청에서는 한 번도 조사불응에 대한 고소 고발을 한 사례가 없다.

통계조사업무 거부로 인하여 고소 고발해서 우리나라 국민을 질서범(과태료 위반사범)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은 이해가 가지만 통계법은 ‘주무시고 있는 통계법’이라는 생각에 웃음이 저절로 나온다.

이 사건의 진상은 나중에 알려졌지만 표본농가의 여주인이 우리사무소 무기직 여직원이 여주인의 남편과 일계부 내용에 대하여 안방에서 소상히 묻고 답하는 모습에 질투심을 평소 많이 느꼈다고 한다. 정말로 금품과 귀중품을 도난당했는지 표본농가는 알고 있었지만 정말 의아심이 드는 사건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사무소는 귀중한 농가경제조사를 도난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당했다.

농가경제조사를 하지 않기 위하여 이러한 자작극을 꾸몄다면 대상 농가는 비난 받아야 하겠지만 ‘우리 통계법을 언제까지 주무시게 할까? 통계청은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내 머리 속에 아직도 맴맴 돌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우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노고를 높이 칭찬하고 싶다.

화를 낼 수는 있지만 멈추기를 빨리 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향해 화를 내는 것은

숯덩이를 상대방에게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가계부 쓰는 남자

우수상

| 가계동향조사 대상가구 | 부산광역시 서구 총무동 김 영 찬

제가 처음 통계청 직원을 만난 날은 유난히 바람이 세차게 불고 추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옆집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에 사시는 그 할머니는 평소에 성격이 별나기로 동네에 소문이 나 있는 분이려 누가 옆집에 찾아왔다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어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큰 소리로 “무슨 공무원이 밤에 찾아오느냐, 일요일에도 일하는 공무원이 있느냐, 경찰을 불러 확인해 보겠다.” 흥분해 말썽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 하고 있는데 잠시 뒤에 우리 집의 문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 보니 몸집이 조그마하고 인상이 순한 여자 분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계청 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통계조사에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대해 설명해 주시고 가계부를 한번 써 보시면 어떻겠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까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셨던 것이 이 분께 하는 이야기이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그렇게 소리치시는데도 침착 하고 상냥한 태도를 취하셨던 것 같아 내심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나니 저까지 매몰차게 통계청 직원을 돌려보내기는 미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가계부를 써 보라는 말씀에는 적잖이 당황스러웠고 엄두가 나지 않아 거절을 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계부는 여자들이 쓰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거부감이 들었고, 또한 아들과 단 둘이 생계를 꾸려 가느라 매일 매일이 힘겹고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남자가 어떻게 가계부를 씁니까? 또 제 생활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가계부를 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계청 직원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왔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옆집 할머니에게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할머니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아파트에 경찰차가 오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저까지 매번 거절하기도 민망했지만 저는 아무래도 제대로 가계부를 쓸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강해 몇 번이나 더 거절을 했습니다. 그 때마다 통계청 직원은 저를 설득했습니다.

“제가 기입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 드릴 테니 우선 한 달만이라도 써 보시고 나중에 쓰기가 어려우시면 그만두셔도 됩니다.”

친절한 태도와 끈질긴 설득에서 어떤 간절함을 느꼈고 저는 마음이

동요되어 결국 한번 써 보겠다는 약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옆집 할머니가 경찰을 불러 통계청 직원이 곤란해 하는 것을 보고 조금 측은한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후 바쁜 시간을 쪼개어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였는데 제가 남자이다 보니 세심하게 쓰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가계부를 쓰는 과정에서 빠뜨리거나 잘못 기록한 점을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매번 물어 오시는 것에 가끔은 귀찮고 짜증스러운 마음이 들었고 그런 감정이 알게 모르게 저의 말투에서 묻어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통계청 직원은 조금도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고 항상 친절하고 밝은 목소리로 저를 대했습니다.

옆집 할머니에게서도 매번 “또 왜 왔냐? 무슨 조사 하러 왔냐?”는 통명스런 말을 들을 때도 한결같이 상냥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격려를 받기도 하고 제 건강까지 염려해주는 모습에 통계청에서 나온 공무원의 모습을 넘어 매우 고마움을 느낍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통계청 직원으로 일하는 것도 일과가 매우 바쁠 것인데 저희 아파트를 수시로 방문하여 어려운 일에 해결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려운 노인들께 친절하게 대해 주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어 공무원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가계부를 쓰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매달 돈을 어떻게 지출하였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 수입에 맞게 적당히 예산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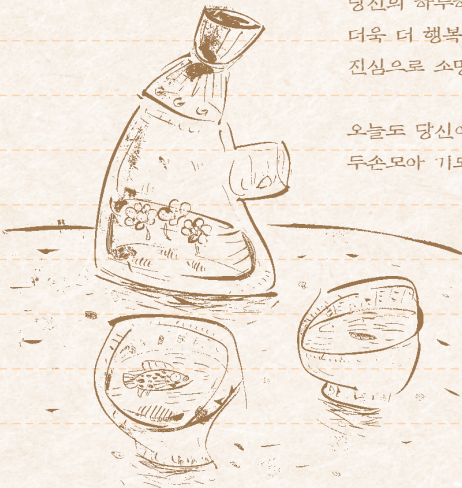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하고 지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내키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였으나 이제는 어느 정도 가계부를 왜 써야 하는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남자라고 해서 가계부를 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필요하다면 가계부를 쓰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통계청에 계신 모든 분에게 수고하신다는 말과 함께 건강과 행운이 있으시길 바라며 저의 짧은 글을 마칩니다.

당신의 하루하루 삶이
더욱 더 행복한 삶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두손모아 기도 드립니다.



가계부 작성과 함께 부자 되세요

(어떤 필연적인 만남)

장려상

| 가계동향조사 대상가구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10동 이 난 영

어찌 보면 세상을 사는 것은 '인연'의 연속이 아닌가 싶다. 살다 보면 우리는 다양한 사람과 여러 가지 '인연'을 맺게 된다. 좋은 인연도 있고 우울한 인연도 있겠지만 그 어떤 인연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바뀌기도 하고 평생의 은인 또는 친구를 만나기도 한다.

2009년 가을 초, 결혼한 지 어언 15년차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나와 통계청 언니와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전국의 수많은 가구 중에서 내가 선택된 것은 우연이었을까. 필연이었을까. 돌이켜 보면 가계부와 인연이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특히나 상냥하고 친절하고 통계청 언니와의 만남은 내 생활의 활력소가 되었다. 통계자료 때문에 만났지만 이제는 친언니처럼 내 생활의 많은 부분을 서로 공유하면서 기쁨과 슬픔도 같이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 같이 허심탄회하게 수다를 떨 수 있는 내 인생의 없어서는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안 될 중요한 동반자 한 사람을 만난 것에 대해 특히나 그 의미를 두고 싶다. 사람이란 것은 형식적인 관계를 떠나서 상대방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애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통계청 언니에게 배웠던 것 같다.

처음에는 가계부 작성이 너무 싫었다. 왜 그 많은 가구 중에서 우리 집을 조사해야 되는 게 싫었고 우리 집의 수입, 지출 내역이 몽땅 드러내는 것이 마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싫었다. 하지만 차츰 통계청 직원과 대화를 하면서 서로간의 솔직한 감정교류를 하면서 내 마음을 열었고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더구나 가계부 작성은 체계적인 생활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나의 삶의 양식 자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고단하기도 하고 평범하기만 했던 매일 매일의 삶(수입, 지출)이 보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었고 행복한 삶을 향한 미래의 가족생활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계부는 이제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게 된 나는, 당연히 이제는 주위의 가계부 작성거부 아줌마들에게도 가계통계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통계청 전도사가 되었다. 당연히 매년 통계청에서 개최하는 응답자 간담회의 아지트도 우리 집이 되었고 그런 모임의 주인이 되다보니 자연스럽게 나의 삶 자체가 매우 적극적, 긍정적인 자세로 변했다. 그러다 보니 가끔은 내가 가정주부인지 통계청 직원인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는데, 혼자 픽 웃고 마는 때도 많다.

“가계부 작성은 왜 중요할까?” 진부한 질문일 수도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통계청과 만나기 전까지 나는 아주 간단한 가계부만 적어 왔었고

지출을 위주로 작성했다. 처음 가계부 작성의 목적은 매달 돈의 사용처를 잊어 버려서 늘 어디에 사용했는지 궁금하여 작성하기 시작한 것이었는데 체계적인 작성이 되지 않다보니 가계수입지출 현황을 알기에는 매우 부족하였다. 수기로 간단하게 출처를 밝혀 놓던 나의 가계부 작성은 통계청 가계부 작성을 하면서 내 생활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특히 전자가계부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매우 많다. 언제 어디서든지 컴퓨터만 있으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고 또 다양한 기능이 많이 있어 매우 편리하다. 우리 집에서 입력한 자료의 엑셀변환이 되기 때문에 지출 형태 파악에 그 자료를 내 편의대로 활용하기가 매우 편리하고 현금영수증을 불러 와서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주위의 이웃들에게 가계부 작성을 권유하고 독려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계부 작성 시 수입과 지출이 노출된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다.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익명성, 개인의 자유권 존중과 더불어 소수의 인권도 존중되는 시대에 나와 가족의 수입과 지출의 공개는 한 달 동안의 우리의 생활 양식을 고스란히 보여 주는 것 같아서 유쾌하지 못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통계청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다. 현대는 개인 사생활 유지와 함께 정보의 보완성이 좀더 신중하게 고려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보태 본다.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통계청의 담당직원을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가끔 뵈었을 때 주변의 가구들이 전자가계부 입력이나 가계부 작성을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잘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 보면 가구들마다 많은 차이를 보여 준다고 하신다.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잘 정리하는 가구도 있고 꼭 기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빠뜨려서 부족한 가구도 있다고 하셨다. 또 집에 귀가하는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맞춰 밤에 그 가구를 방문해야만 만날 수 있다고 하셨다.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셔서 가게부 자료가 완성된다고 생각하니 통계청 직원들의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간혹 가게부 작성의 의지가 지속적으로 없다고 판단될 때는 아예 그 가구를 제외시키기도 한다던데 그렇게 제외시킬 때까지 직원의 독려와 노고는 참으로 컸을 것이다.

이전에 적어 본 적도 없는 가게부를 적어야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겠지만 나의 경험으로는 가게부를 작성해서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일이 자산 관리의 첫걸음이자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아닐까 한다. 특히 전자가계부를 작성함으로써 그 자료들을 내가 필요한 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매우 유익한데 내가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가게부를 작성해보라고 권유할 때도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처음에는 귀찮고 빼먹는 부분도 많을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습관이 되어 오히려 안 적으면 찻찻해지게 되므로 지속적으로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반 권유와 반 자발적인 마음으로 시작한 전자가계부는 이제 내 삶의 일상이 되었다. 알찬 가게들이 모여서 건강하고 성숙한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책임감을 더 얻어 본다.

통계청 직원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가계부 작성을 귀찮고 싫어하는지 안타깝게 느낀 적이 많다. 실제 생활에 적용해 봐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만 하면 우리 가족의 생활설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다. 일부 홍보가 더 필요하고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활동도 더 필요한 것 같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응답가구가 대한민국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전체의 나라 살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통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 하나쯤 안 해도 되겠지.' 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약간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결실의 계절은 열매를 볼 수 있다는 설렘과 기대가 있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내 가계와 아울러 우리나라도 이런 값진 열매로 풍요로울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우리나라 모든 가정주부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파이팅을 외치며 글을 마친다.



통계청과 나



장려상

| 기계동향조사 대상기구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박중식

“누구세요?”

“통계청에서 나왔어요.”

인터폰 화면에 낯익은 아가씨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인다. 처음에 통계청에서 나왔다고 했을 때의 알 수 없는 묘한 거부감이 사라진 지 오래고 이제는 익숙해진 친한 동생 같다.

전에는 통계청이란 곳이 막연히 어떤 통계를 내는 곳이겠지 생각했는데 막상 낯선 통계청 직원이 꼬치꼬치 사생활을 캐묻는데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왜 우리 가정 속속들이 알려고 하나. 사실대로 말해 주기가 싫었다. 비밀은 절대 보장된다고 하지만 앞에 마주 서서 얘기하는 직원은 알지 않나. 이 넓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유독 우리 동, 우리 라인이 통계의 대상이 되었다. 속상하기도 했다. 통계 표본 가구로 선정된 직후 임시 반상회에서 쏟아지는 불평, 불만의 불멘 목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마치 통계청 직원에게 말해서 우리 라인이 선정되거나 한 것처럼 미안했다.

내가 통장 일을 보고 있으니 나로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부식비는 물론 아이들 학원비, 남편 모르게 살짝 친정어머니, 동생들한테 조금씩 드리는 용돈 등 남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은 돈까지도 기입해야 하는 가계부 정리.

대전을 떠나면 그 여행지까지도 일일이 적어 내야 한다는 등 그야말로 시시콜콜히 따져대며 불만을 토로하는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더 이상의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없었다. 어떤 주부는 3년간이나 가계부를 적으라 하니 가계부 적기 싫어서라도 이 아파트 팔고 딴 곳으로 이사 가겠다고 열을 올리며 항의하는데 나도 할 말을 잃어버렸다. 나도 새댁 때 몇 년간은 가계부를 열심히 썼다. 매일 저녁 가계부를 정리하는 것이 나의 큰 일과 중 하나이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숙제를 안 한 것 같아서 꼭 정리하고 자야 마음이 편했다. 가계부는 우리 가정의 소중한 자료이자 남에게는 절대 보여 주기 싫은 것인데 그것을 일일이 써서 통계청 직원에게 보여 준다니 너무나 싫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매일매일 나가는 자질구레한 용돈도 부식비도 별로 없으니 설령 가계부를 쓴다 해도 복잡하지 않겠지만 한창 때의 젊은 주부들에게 가계부를 공개하라는 것은 은밀하게 나가는 사교육비와 그밖에 밝히고 싶지 않은 용도의 돈과 자신들의 생활수준을 그대로 펼쳐 보이라고 하는 것이니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황당한 일인지 모르겠다.

물론 사실대로 쓰지 않는다면 어렵지 않겠지만 조작해서 쓸 바에는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통계자료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렇게 쓰리라 생각한 주부라면 가게부 쓰라는 데에 그렇게 열을 올려 얘기 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얼굴도 몸매도 예쁘며 언제나 예의바르게 웃는 얼굴로 인사하던 그 젊은 주부에게서 그날 나는 또 다른 그녀의 한 면을 보고 놀랐던 것이다.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열을 내면서 이사가 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을 봤으니까. 그런 일이 있는 후 1년이 지난 지금 그 젊은 주부가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았지만 전세로 그냥 그 집에서 눌러 살고 있는 것을 보면 다른 이유로 복잡한 상태에 있었는데 가게부까지 쓰라고 하니 확실히 그렇게 열을 올렸던게 아닌가 싶다.

아무튼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별 불평 없이 통계청 직원에게 대하는 걸 보면 통계의 필요성과 정확성이 정부의 정책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간혹 가져다주는 상품권 또한 통계청 직원과 우리 주민과의 사이를 부드럽게 해주는 촉매제가 아닌가 싶다. 요즘은 주부들도 모두 바빠서 낮 시간대에는 없고 저녁 할 시간이나 그 이후에나 있으니 서로가 바쁜 시간대에 방문하게 되니 서로가 미안하다. 나도 각종 고지서나 예비군, 민방위 훈련 통지서를 전달하면서 다녀보지만 별로 달갑지 않은 통지서를 전달하니 나도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주민들에게 주면 관계가 더 부드러워 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고지서를 받는 사람들의 태도도 정말 다양각색이라 느끼는 바가 있어서 통계청 직원들의 어려움도 이해하게 되고 될 수 있으면 부드럽게 대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때는 매달 변화 없이 비슷한 대답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미안한 생각도 들 때가 있다.

통계청 직원이 모든 질문을 마친 뒤 마지막으로 나에게 하는 말. “위층에 새로 이사 오신 분이 통계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문도 열어주지 않아서요. 냉랭하게 문전박대 하시는 바람에 쫓기듯 내려왔어요.”라며 내게 설명 좀 드려 달라고 부탁하기에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때 얘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윗집에 이사 오신 분이 엘리베이터에서도 한번 부딪치지 않으니 일부러 인터폰을 걸어서라도 부탁을 드려야 할지. 나도 아직은 서먹서먹한 관계인지라. 다음 달 통계청 직원이 오기 전까지 약속을 지켜야 할 텐데….

아마 위층의 그분들도 우리가 처음에 느꼈던 그 황당함을 느꼈으리라 생각된다.

통계청 아가씨의 손에는 위층에 주려던 고무장갑, 행주세트가 힘없이 들려 있다. 우리 집 벽에 있는 통계청 달력이 나를 보고 웃고 있는 듯하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응답하여 밝고 힘찬 사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삶을 살아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만이 옳은건 아니듯이
상대방의 생각도 틀린것 만은 아닙니다.

그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것 뿐이지요.

상대방의 생각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답이 아니듯이
어느 누구라도 오답은 없습니다.

그저 다를 뿐이지요.

각자 생각의 상자들이 조금 다르다는걸
인정하고 배려하면
서로의 마음에 아름다운 향기가 자리합니다.

그 향기가 퍼지고 퍼져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 질거예요.



참
고맙습니다



통계조사 동반자



장려상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시무소 김 애 정

소가 누워있는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牛島는 예부터 소섬이라 불리는 섬이다. 우도팔경을 자랑하는 신비한 섬, 파란 바다 가운데 솟아있는 평화로운 섬이다. 우도면 조사구는 바다를 사방으로 東高西低형을 띤 섬 지역으로 마늘, 쪽파, 땅콩이 주 수입원이다.

농가경제조사 2조사구를 담당하고 있어서 일주일에 두 번은 꼭 방문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승용차로 한 시간을 달려 도착한 성산포항에서 굶은 날씨로 갑작스럽게 내린 해상 폭풍주의보로 돌아오는 일도 부지기수다. 그나마 넓지 않은 지역이고 태어난 고향인지라 어느 집 딸이라고 하면 반가이 맞이 해주시는 동네 분들이라 힘든 섬 지역 조사구지만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며 조사에 임하고 있다.

2009년 5월 어느 날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250조사구 1호 농가 방문 시

바쁜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표본농가의 두 분은 계시지 않았다. 그저 시외 출타중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농가를 찾아뵙는데 그 농가에서 말씀하시길 도항선을 타고 우도로 돌아오시다가 배안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하셨습니다. 급히 119 구급차로 큰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얼굴과 몸 반쪽부분이 마비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중풍일 거라고 전해들은 순간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도 병 앞에서서는 어찌 할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다급함에 아! 농가 대체 설득이라는 관문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다. 당분간 제주시 자녀 집에 머물면서 양·한방을 병행한 치료를 받는다고 배우자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농시는 지을 수 있을는지... 당장 마늘과 쪽파 수확을 해야 하니 해녀 일을 접어두고 혼자 땅을 기면서라도 일을 해야 한다.”

깊은 시름을 토해내셨습니다.

“애정아 어떻게 하느냐? 일계부를 계속 쓰게 해주면 우리는 고맙지만 만일에 못 쓰게 된다고 하더라도 섭섭지는 않을 것이니 다른 데 쓸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알아봐라.”

그 말씀을 듣고 많이 망설였던 것은 자가 기장을 하시고 부담 없이 응대를 해주시는 농가이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계속 쓰시게 하는 방법을 아니 생각할 수가 없었다. 도서지역에 사시면서 농사에 손을 놓는다는 것은 생계와도 연관이 되는 일이기에 일단은 배우자에게 말씀드렸으나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당분간 써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나는 글은 알지만 쓰는 방법도 모르고 어깨너머로 보기는 했지만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기장지도를 다니면서 짬짬이 얘기를 나누다보니 책임기를 좋아하시고 소싯적 미군부대 앞에서 장사를 하면서 어눌한 영어지만 의사소통을 할 만큼 어려움 없이 소화를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기에 일단은 일기처럼 써보라고 권유를 했다. 물건을 구입 할 때는 꼭 영수증 받아오시고 구입한 품목 하나하나 적어두시라고 알려 드리고 돌아서는 발걸음은 그리 가볍지 만은 않았다.

돌아와서 출근하는 일주일 내내 마음이 편치 않은 것도 사실이었고….

한 주가 지나 기장지도를 위해 농가 방문 시 일계부 사이에 꽂혀 있는 메모지 한 장! 속으로는 ‘아! 혹시 미안하다는 말씀을 적어 놓았으면 어떡하나’ 내심 걱정을 했다.

메모지에는 일기 비슷하게 간혹 받침이 틀린 부분도 있었지만 또박 또박한 필체로 종일 밭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걸 구입하고 지출을 했는지, 출가한 딸이 어머니 혼자 고생하신다고 먹을거리를 장만해 왔다고 적어두시기도 하였다. 간혹 한숨 섞인 하소연도 하면서 ‘애정아, 니가 고생한다. 많이 사랑한다.’는 내용도 적어 두시고 이가 없어서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내용을 두고 ‘아이고 애정아, 이를 박으려고 하는데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전답을 팔아야 되겠더라.’ 하고 농담 섞인 내용도 적어두셨다. 글을 읽는 동안 쏠쏠하게 삶과 정이 느껴지는 대목도 많았고 본인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물어 오시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몇 달 치료를 받은 경영주는 혼자 걸어 다니실 정도로 몸도 회복이 되어가고 있어서 넉지시 농사를 계속 하실 것인지 여쭙니 당연하단

듯이 말씀하신다.

“침에는 이 몸으로 50여년을 일군 삶의 터전이고 나중에 내가 돌아갈 곳인데 땅을 버리고 무엇을 하며 먹고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지만 농촌에 살면서 땅을 버리면 되겠느냐. 조금이라도 일구면서 살아야지.”

아! 이 얼마나 반가운 말씀인가?

“예, 맞습니다. 생각 잘 하셨습니다.”

“나처럼 잘 써주고 편한 데가 어딴냐?”

맞장구를 치니 농담까지 건네셨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도의 교통수단이라고는 경운기밖에 없던 지역에서 서서히 오토바이가 등장하고 지금은 마을버스 한 대가 한 시간에 한 번씩 운행을 하는 조사구라 침에는 친정아버지께 오토바이로 태워달라고 부탁을 드려 나의 기동력을 대신해 주셨다. 그런데 아주 추울 때나 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고 다니는 딸의 모습을 보고 안쓰러워 걱정하시는 부모님께 불효를 드리는 것 같아 그만두고 한쪽 조사구가 끝나면 30분정도 걸어서 다른 조사구로 넘어 다니면서 도항선 운항시간에 겨우 맞춰 돌아오곤 했다.

올해부터는 사무실에서 한 달에 두 번 차량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어업팀 직원과 같이 다니게 되어 합해서 4번은 차량을 갖고 들어갈 수 있어서 그나마 배 시간에 맞춰 달리기를 하는 번거로움은 덜 수가 있게 되었다.

일주일에 두 번 조사구 방문을 하는데 10시쯤 출발하면 여름 성수기에는 관광객이 많은 계절이라 도항선이 시간대를 두지 않고 수시로 왕래를 해서 곧바로 조사구로 갈 수 있지만 관광 비수기에는 한 시간에 한 번씩 운항되는지라 조금만 시간이 지체되어도 대합실에서 한 시간을 기다려야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한다. 올해부터 차량지원을 받고나니 작물재배현황 파악을 하는데 수월하게 되었다. 일단 차량을 갖고 가는 날은 무조건 농가경지를 돌아보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들어간다.

원부사항에 있는 지번을 포털사이트 다음 지도를 이용 확인하니 동서 남북 큰 도로는 대충 알고 있으니 경지 파악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다. 지번 별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작물은 경영주들이 쉽게 얘기를 해주지만 자가 소비용이나 증여용으로 재배하는 적은 면적의 작물은 소소하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하지 않아 놓치기 쉽다.

그런데 경지를 모두 알고 차량까지 지원을 받고나니 애매한 면적의 생산비 작물일 경우는 줄자를 이용해 면적을 정확하게 조사 할 수 있고 작물재배현황 누락을 최소화 할 수 있어서 농가경제조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섬 지역 조사구라 그런지 의료비지출에 비해 가계소비지출은 그리 많지 않다. 왜냐면 섬 특성상 바다에서 얻어지는 해산물과 밭에서 얻어지는 작물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차량지원이 되지 않아 자비(自費)로 차량을 갖고 들어가게 되었는데 차량이 14살(?)이나 되다보니 아무 때나 투정을 부리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다.

작년 초겨울 농가경제 기장지도를 마치고 도항선을 이용해 육지로 나와 전에 담당했던 조사구에서 감귤을 준다고 하기에 기쁜 마음으로 출발을 하려는데 느낌이 별로 좋지가 않았다. 추워서 히터까지 틀어 놓 상태로

10여분을 달렸나 보닛에서 연기가 나고 온도게이지가 최고점을 달하고 있어서 ‘아! 물이 없어서 그렇구나!’ 짐작하고 농가에 도착 하자마자 일단 열도 식히고 물도 보충하려고 뚜껑을 여는 순간 뜨거운 열기와 함께 화산 처럼 쏟아져 나오는 녹물을 뒤집어쓰고 말았다. 아뿔싸! 열기를 식힌 다음 뚜껑을 열어야하는데 물 만난 고기처럼 반가움에 물을 넣으려고 한 나한테 반항이라도 하는 것처럼 황당한 일을 겪게 만들었다.

유난히 추운 날이라 빨리 집으로 갈 마음에 중산간 도로를 타고 오르막을 오르려는데 차가 또 이상하다. ‘오늘 나한테 너무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속으로 투덜대는데 털, 털, 털... 어라? 차 시동이 꺼지고 그 자리에서 움짱 달짝 못하게 멈춰서 버렸다. 온도게이지도 끝까지 가있고 이 산속에 통행 차량도 많지 않아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없이 추위 속에서 동동거릴 수밖에 없었다.

당장 내가 얼어 죽을 것 같아 어떻게든 물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둘러 봤지만 집이라고는 없는 첩첩산중이라 방법이 없었다. 근데 농가경제를 하다 보니 농업용 수도를 이용하는 농가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에 혹시나 산중에도 말이 있으니 수리시설이 있을 것 같아 이리저리 둘러보니 천만 다행으로 200미터 건너서 수도꼭지 같은 게 보이는 게 아닌가.

나의 애마야, 제발 저기까지만 무사히 가주라 하고 빌고 빌어 억지로 시동을 걸고 밭 안으로 도착했다. 차 안에 있던 0.5l 생수병으로 여러 번 물 보충을 해주니 차가 또 시동이 걸렸고 잘 달려 주었다. 속으로는 이상하다. 물은 충분할 만큼 보충한 것 같은데 왜 시동이 자꾸 꺼지지? 하고 의구심을 갖는 순간 대천동 사거리까지 오니 또 시동이 꺼지려고 한다.

왕복 2차선 도로라서 차가 멈추면 통행이 어려울 것 같아 털털거리는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사이에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어 가장자리로 차를 세웠다. 이 무슨 변고 인고? 원인도 모르고 잘 잘 만하면 차량이 멈춰서니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 사거리에 세워두고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몇 시간째 차와 실랑이를 하다 보니 겨울 해는 왜 그리 빨리 지는지 어둠이 내려앉으니 차는 둘째치고 추위를 피해야 해서 차 안에 잠시 앉으니 얼씨구 주유게이지도 빨간선 밑으로 내려갔네. 옆친 데 덮친다고 설상가상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을까?’ 하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젠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키를 돌렸다. 어라 시동이 또 켜진다. 예라, 모르겠다. 일단 출발을 하고 바로 옆이 주유 소라 주유를 하고 뒤차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 만큼의 속력으로 어찌어찌 봉개초등학교 앞까지 오니 또 시작이다.

가까스로 갓길에 차를 빼딱하게 세워놓고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데리러 온 신랑한테 무슨 놈의 차가 이렇게 말썽을 부리는지 폐차장에 갔다 버리자고 왕짜증을 부렸다.

“새 차나 사줘!”

“그러니 전부터 차 바꾸자고 그만큼 했는데 사람이 죽지 돈이 죽어?”

남편은 나를 나무란다.

나중에 원인을 알고 보니 히터온도를 감지하는 온도센서 고장이란다. 내가 추워서 히터를 틀면 차가 서서히 열이 받아서 시동이 자동으로 꺼져 버린 것이다 다시 온도가 내려가면 시동이 걸린 거고 나의 통계조사 동반자인 애마는 아픈 곳도 많다. 눈이 아프다고 갈아 달라 하고 어느 날은

핸들이 수전증 걸린 사람마냥 달달거리서 서비스를 받아보니 장거리를 뛰다보니 타이어 마모가 많이 되어 핸들이 떨렸단다.

여러 군데가 아파 신호를 보내줬지만 그놈의 돈이 뭘지 주인은 알면서도 모른 척 그저 차는 굴러가기만 하면 된다. 믿고 박대했으니 찌뜨...

차를 못 갖고 가는 날은 농가에서 잠시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도항선을 타기 위해 100m 달리기를 할 수밖에 없다. 어떤 날은 경영주께 부탁을 드려 오토바이로 태워달라고도 하고 길거리를 걸어서 조사구를 넘어갈라치면 저만치 관광버스까지 나를 알아보고 태워주기도 한다. 모두들 통계조사의 기동력이 되어주는 셈이다.

중풍으로 고생하셨던 경영주는 거의 완치가 되었고 일계부 기장지도를 하다보면 배우자 글씨가 보여 혹시 일계부기장에 눈독(?)을 들이고 계시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기도 한다. 라이트와 타이어, 온도 센서 감지기를 새롭게 교체한 14년 된 나의 애마 엑센트는 경지확인을 하면서 풀숲에 긁히고 발담과 부딪혀도 아깝지 않으니 버릴 수도 없고 지금은 엔진오일 보충을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불상사는 있지만 잘 굴러다닌다. 행여나 혹시나 하는 조바심에 1.5l 생수 한 병을 벗 삼아 뒷자리에 항상 갖고는 다니지만...

외국인 형이 생긴다

장려상

동북지방통계청 춘천사무소 이 영 재



경제통계의 소비자물가조사, 사회통계의 가계동향조사, 농업통계의 가축동향조사...

통계가족들이 조사하는 모든 조사는 조사의 방법과 목적이 다르지만 한 가지 변함이 없는 것은 조사자와 응답자와의 상관관계다. 조사자는 조사표의 항목에 누락이 없도록 꼼꼼히 질문하고 조사표에 기재하는 것과 응답자는 친절하게 조사에 잘 응해 주는 것이다. 물론 잘 응해 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바쁘다거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통계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분들을 만나 설득하고 완성된 조사표를 봤을 때의 뿌듯함은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다. 고로 통계조사는 인간사 희로애락이 함축되어 있다고 본다. 통계조사를 떠올릴 때 생각나는 이미지가 바로 신속성, 정확성, 신뢰성이다. 이와 관련해서 통계조사가 갈수록 어려운 실정

이지만 누군기는 해야 할 일들이기에 무더운 9월에도 사무실을 나간다.

내가 담당하는, 또 그 형보다 세살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보면 나를 형이라고 불러 나를 웃게 만드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코빌 형을 만나러 화천군 사내면으로 달려간다.

오늘도 어김없이 외국인 형이 나를 보더니 서툰 한국말로 첫 인사를 건넨다.

“형, 어서 와. 사장님 없어. 사장님 전화번호 알아.”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해 볼게요.”

사장님과 전화통화를 마친 후 사장님이 금방 오신다고 말씀 드렸더니 형은 소여물을 계속 주신다. 한 10분이 지났을까 사장님이 농장 안으로 차를 타고 오신다.

“안녕하세요. 통계청에서 가축동향조사를 하러 왔습니다.”

인사를 건넸더니 사장님은 오늘 따라 더욱더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통명스럽게 내 질문을 간단하게 답하시곤 차를 타고 나가신다. 좀 더 질문 하고 알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응답자가 없어지는 바람에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돌아서려고 하는데 외국인 형이 하던 일을 멈추고 내 손을 덥석 잡더니 우사가 있는 곳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간다.

여기 우사에 있는 소들은 육우고 저쪽에 있는 소는 한우, 이 소들은 2살이 넘는 암소들이고, 여기에 있는 소들은 올해에 태어난 새끼 송아지들이다. 상세하게 말씀하신다. 또 저기는 비육하는 소, 그리고 그 옆에는 태어난지 5개월 된 송아지인데 태어날 때 그만 잘못 태어나서 소 발굽이 완전히 퍼진 상태가 아닌 구부러진 상태로 태어난 송아지라며 집중관리 하고 있다고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덧붙여 말씀해 주신다.

하루 종일 농장 일에 치여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그 송아지 앞을 지날 때마다 아픈 송아지를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이 얼마나 따뜻해 보였는지 다음 조사에는 송아지가 발굽을 펴고 온전하게 걸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마음속으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던 일들을 마치 내 마음을 들여다 본 것인 양 외국인 형이 뽕 뚫어 준 느낌이라고 할까. 기분이 너무 좋았다. 우리 둘은 서로 말은 안 했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나고 있었다. 형은 나의 궁금증을 풀어 주었고 나는 형의 말뱃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사 설명을 마친 외국인 형이 더 밝아진 웃음을 보이며 나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한다. 나는 속으로 이분이 나한테 오늘 왜 이럴까,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지나가지만 다섯 번째 만남이라 아무 거리낌 없이 외국인 형이 잡은 손을 놓지 않고 방으로 향했다.

외국인 형은 손님대접에 능숙한 솜씨로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료수며 고국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지고 온 건포도 같은 음식을 내 앞에 가지런히 놓고 해맑은 웃음을 보이며 맛보라고 한다. 날씨가 더운 탓도 있었지만 정성껏 마련한 음식이기에 더욱더 맛있게 먹었다.

그런데 음식을 같이 먹던 외국인 형이 갑자기 가족이 그리웠던지 나한테 결혼은 했는지 아이는 있는지 질문을 하고서는 형은 1년에 한번 고향인 우즈베키스탄에 가는데 그곳에는 부모님, 형제, 아내, 딸, 아들이 있다고 한다. 일이 힘들고 아플 때 가족들이 보고 싶을 때도 많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하나하나씩 사서 쌓아두며 외로움,

그리움, 아픔을 이겨낸다는 이야기를 나한테 하신다. ‘얼마나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면, 사람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에 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잘못하는 게 많구나.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이 살면서도 일이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가족의 소중함을 잊고 살았는데 앞으로는 즐거운 일은 함께 기뻐하고 어려움은 서로 도와가며 많이 사랑하며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참, 형 말처럼 언제 한번 우리 가족들과 함께 목장에 놀러 갈게.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외국인 형과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을 소망하며 멀리 타국 땅에서 말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면 어떨까?

통계조사를 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조사가 끝나고 나면 쉽게 잊혀 버리는 관계에서도 비록 언어소통이 어렵고 어색하지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먼저 건네고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있는 외국인 형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형!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을 위해 파이팅!”

농어업 통계인으로 살아남기



장려상

경인지방통계청 의정부사무소 이 형 록

내가 1년여 전쯤 통계청으로 전입하여 처음 농어업팀으로 업무를 배정 받았을 때, 나는 내 스스로가 전라도 시골 농촌 출신이고 지금도 고향에서는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데 설마 농업 관련조사에 고생을 할까 하고 생각했었다.

내 책상에 놓인 각종 농업조사 지침서와 참고도서들을 보고 읽고 외우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였고 나보다 훨씬 연배가 많은 선배들의 엄포도 사실 한 귀로 흘리고 있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조용한 농어업팀의 연말을 보냈는데 그때가 논벼 등 대부분의 농작물생산조사가 막 끝나가는 시기이었음은 나중에 안 사실이었다.

1. 작물재배면적조사에서의 좌절감

5월 조사에서인가. 조사구요도를 들고 팀장님을 따라 작물조사를 나갔을

때였다. 어디가 북쪽인지 이 필지가 어디인지 조사구역도를 아무리 봐도 분간조차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눈앞이 노래지는 것을 느꼈다. 햇볕이 그리 따갑지도 않았는데 요도를 보다가 눈앞의 실물을 보니 그런 현상이 오는 듯했다.

순간 몸에 긴장감이 일기 시작했고 더욱이 전에 없었던 많은 종류의 작물들은 그 긴장감을 더욱 높이고 있었다. 앞서 가는 팀장님은 물 만났고기처럼 순식간에 이 밭 저 밭을 훑고서는 이것이 뭐고 저것이 뭔지 면적이 얼마인지를 쉬지 않고 물으신다. 이런... 죄송함을 무릅쓰고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고 부탁하고 하나하나를 잊지 않기 위해 애를 썼다.

정신없이 팀장님과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아 5월 조사를 마쳤고 더 이상 창피하지 않도록 작물도감을 몰래 집으로 가져가 밤새도록 보고 그래도 모르는 것들은 컴퓨터를 뒤져보았다.

7월 조사

드디어 나의 그간 숨겨온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출장을 나갔다. 연천군의 한 마을을 끼고 있는 조사구역인데 콩밭 가장자리로 팔이 보였다. 면적을 보폭으로 재면서 팔... 팔... 팔을 적어갔다. 저만치 마을 어르신이 계시기에 앞으로 몇 번이고 와야 할 내 담당조사구라는 생각에 말씀을 건넸다.

“아버님~ 밭 가장자리에 팔을 심으셨네요?”

“팔이 어디 있어? 녹두구만...”

이런... 통계청 직원이 팔과 녹두를 구분 못한다면 얼마나 한심한 노릇인가 싶어 애써 통계청 직원이 아닌 척 자리를 피했다.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책에서 분명히 봤는데... 선배들한테 분명히 구분 방법을 배웠음에도 정작 나는 실제로 팔과 녹두를 구분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날 근처 출장을 가는 선배님한테 전날 조사했던 조사구의 작물에 대해 다시 확인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동행출장을 요청하였다.

2. 가축동향조사에서 배운 '통계는 과학이다' 라는 사실

3개월마다 하는 가축동향표본조사는 조사구에 익숙해지기 위해 되도록이면 방문 면접조사를 하였다. 한우 20여 마리를 키우는 표본농가가 있었는데 일흔이 넘는 어르신에게 물어 조사를 마쳤다. 사무실에 돌아와서 조사표 정리를 하는데 옆 팀의 한 선배가 유심히 내 조사표를 보더니 한마디 한다.

“이거.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제가 직접 어르신을 만나 들었던 내용이라고 답변을 했더니 표본조사 표의 각 구간을 가리키며 물었다.

“어떻게 3개월 만에 1세 미만이 2세 이상으로 조사될 수 있지?”

가만, 정말 그렇다. 3개월 전에는 1세 이상이 분명히 한 마리도 없었는데 갑자기 2세 이상이 생겼다. 어르신 말씀으로는 구입한 사실도 없었는데...

다시 전화를 드려 조목조목 여쭙았더니 “아직 2년이 안 되었구나.” 하신다. 이런, 응답자의 응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응답을 직접 얻어 내려 했던 노력까지는 좋았다. 허나 짧은 응답자의 대답 안에서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용을 찾아내고 지침서 한 페이지에 있는 ‘재차 물어 확인’ 할 수 있으려면 역시 많이 알아야한다.

한편으로 내가 하고 있는 통계조사는 과학이구나! 하고 느꼈던 소중한

경험이기도 했다.

3. 논벼 예상량 조사에서 갖게 된 ‘우리는 남이 아니다’ 라는 진실

9월이 되었다. 드디어 정통 평야지대 농촌출신으로서 나의 진가를 보여 줄 수 있는 논벼 예상량 조사가 다가왔다. 편한 옷과 신발 등을 주섬주섬 챙기는데 선배들이 슬리퍼를 신고 나간다. 왜 그럴까? 아무튼 운동화를 신고 깃발을 차에 신고 출발했다.

아~ 그런데, 첫 번째 논이... 내가 알고 있던 논이 아니다. 논이 흙은 검은색이고 벼는 태반이 쓰러져있었다. 게다가 분명 이 악취는 논에서 나는 것이 확실했다. 내가 살던 고향의 논은 반듯한 사각형에 미끈하고 황토색의 흙이었는데... 가슴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깃발을 들고 논으로 들어가는데 몇 발자국 가지도 못하고 발이 빠져 나오질 않는다.

“야, 빨리 안 들어와? 벼 쓰러뜨리지 말고 조심하란 말이야!!”

앞서 간 선배의 고함소리가 들린다.

‘누군 안 가고 싶어 안 가나, 발이 빠져야 가지...’

기준 주를 잡고 빨간 페인트칠을 하고 줄기를 셀 준비를 한다. 음... 틈틈이 지침서를 읽고 선배들 어깨너머로 들은 게 있었기에 자신 있게 벼 포기의 줄기를 세었다. 순간 격한 목소리로 선배가 소리친다.

“야, 미쳤어? 가로줄을 세야지 세로줄을 세려고?”

야차! 기껏 논에 박힌 장화를 힘겹게 꺼내고 들어와서는 심은 방향의 벼줄기를 세려한 것이다.

‘어휴... 깃발로 안 맞은 게 다행이지.’

몸의 균형을 잡기도 힘든데 줄기를 세자니 일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어느새 내 옆까지 와서 대신 줄기를 세어주는 선배들.

‘하… 내가 숙달되지 않으면 옆 사람이 고생하는구나.’

운동화로 갈아 신을 수가 없어서 그날 예정된 논을 다 돌고 나서야 몸통까지 오는 장화를 벗을 수 있었다. 거꾸로 들어 올린 장화에서 쏟아지는 땀. 그리고 들려오는 “고생했다”는 선배들의 말. 아, 나도 이제 농어업팀원이 되어 가는가.

근 1년을 농어업팀에서 일해 오면서 내가 저지른 만행은 가히 열 손가락에 열 손가락을 꼽해 세어도 부족하다. 그때마다 막내 동생처럼 하나 하나 돌봐주는 연배 많은 선배님들에게 뭐라 고맙다고 말씀드릴 길이 없다. 많은 선배들에게서 내가 배운 가장 큰 공부는 ‘많이 알아야 한다’와 ‘우리는 남이 아니다’ 라는 너무도 간단하지만 잊기 쉬운 사실들이었다.

연간조사 한해를 아는 것 없이 넘기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농어업통계. ‘3년은 해봐야 농어업 통계를 짚끔 안다’ 고 엄포를 놓는 선배들의 말이 요사이 추워지는 날씨만큼 절실히 가슴에 와 닿는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맞게 될 나의 후배를 생각하며 하나라도 더 많이 배우기 위해 나는 오늘도 선배들을 괴롭히며 지침서와 씨름할 것이다. 이것이 부끄럽지 않은 농어업 통계인으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지 않을까라고 믿으면서.

그때 그 사람

장려상

동남지방통계청 진주시무소 오 황 봉



참, 지금도 그때 그 일을 생각하노라면 너무 황당하고 기도 안 차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한마디로 “Oh~ my god!” 이었다.

바로 엇그제 일 같은데, 2년 전 이맘때인 9월 가축동향조사 때인 것으로 기억된다. 당시 나는 농림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통계청으로 발령 받아 근무한 지가 반년이 채 되지도 않을 때였다.

농관원에서의 오랜 공직 생활을 접고 통계청으로 오니 모든 것이 생소하고 궁금하고... 새로운 기관에 대한 호기심 반 긴장감 반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하루 빨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자 통계청 직원들과 이리저리 부대끼며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다녔다. 기존 직원들도 하나같이 참 소탈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사무실에는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한마디로 가족 같은 분위기였다.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9월이 되자 가축조사가 시작되면서 전 직원이 매일같이 현지로 출장을 나갔다. 그날도 나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 일찍 출장 채비를 갖추고 사천시 남양으로 힘차게 출발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 드는 9월인데도 하늘이 잔뜩 흐린데다 후텁지근하여 불쾌지수가 제법 높은 날씨였다. 현지 마을에 도착하여 연방 흐르는 땀을 닦아가며 집집마다 돌아다녔다. 한참을 돌다 보니 어느 듯 점심때가 다 돼 가고...

휴우~ 이제 몇 집 안 남았네. 후딱 끝내기 한 판하고 밥 먹어야지.

아! 배 고프당~ 그랬는데...

얼마 안 가서 일이 터지고 말았다. 아까부터 옷차림이 남루한 웬 남자가 자꾸 내 뒤를 텔레텔레 따라오는 것이었다. 아니 저 양반은 뭐여? 왜 자꾸 남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지? 웬지 예감이 좋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 남자 왈 “어이, 앞에 가는 아제, 나 좀 보자.” 참, 어이가 없었다.

아니, 저 양반이 나를 언제 봤다고 대뜸 반말이여, 잉? 돌아서보니 희한한 몰골이 눈에 확 들어왔다. 신발 한 짝은 어디다 흘렸는지 아니, 딸딸이 (슬리퍼) 한 짝. 셔츠 단추는 거의 다 풀려 가슴이 훤히 다 드러나고 바짓 가랑이는 접으면 양쪽 다 접어 올리지 한쪽만 돌돌 말아 올리고 인상 또한 범상치 않았으니... 그 순간 핼(feel)이 화~악 왔다. 아! 저 양반, 엇질이구나.

여기서 잠깐: 엇질이란 경남지방의 통계 조사원들 간에 은밀히 통용되는 말로 국어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신조어로서 억지를 부리고, 비꼬고, 조사원들을 골탕 먹이는 위인을 지칭하며 한마

디로 조사에 일체의 도움이 안 되는 기피대상 인간 1호를 말함.

“아니, 왜 그러십니까?”

“어이, 아제. 아제는 뭐데 우리 동네를 뱅뱅 돌아다녀? 그리고 남의 집에는 왜 마음대로 들락 그려? 잉? 뭐하는 인간이여? 너~ 좀 수상하네? 딸~꼭”

기가 찰 노릇이었다. 이 사람이 아침부터 어디서 한잔 했는지 얼굴은 홍시가 돼가지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풀풀 풍겨 나왔다. 얼마나 마셔댔는지 온몸이 흔들거리고 양 스텝이 꼬일 정도였다.

백주대낮에 만취한 사람을 상대로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가축통계 조사 중이라고 간단히 말하고 얼른 자리를 피했다.

아~, 그런데 이 양반, 비틀거리며 또다시 따라오는 것 아닌가

“어이 임마, 너 어디 도망가! 나 좀 보자. 가축조사는 무슨. 내 말이 말 같잖으냐?”

고함을 질러대니 온 동네가 들썩했다. 마을 사람들이 웬일인가 싶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마침 이장님이 내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묻기에 자초 지종 얘기를 드렸더니 이장님은 마을에서도 골치 아픈 그렇고 그런 사람이니 주사님이 이해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가라고 했다.

나, 역시 그럴 참이라 막 돌아서는데 아, 글썩 이 양반, 이제는 듣기에도 민망한 말을 막 해대는 게 아닌가? 그 많은 사람이 모인 와중에 솔직히 쌍욕을 지껄여댔다.

아니, 도대체 내가 저한테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인가? 내가 공무원이라고 신분까지 밝혔는데도 막무가내로 시비조로 나오고 아무리 술을 먹어도 그렇지 이렇게 막 대놓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xx라고 고함을 질러도 되냐? 어디 술을 저만 먹나? 안 그래도 후텁지근해서 왕 짜증인데...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법. 나도 모르게 그만 발끈하고 말았다.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이봐요!! * @ £ π % ξ % No.am.℃ ℄ ㄱㅇ!!!”

나 역시 그 인간 면전에다 대고 다다다다... 퍼부어댔다.

조그만 마을이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급기야 우리 두 사람은 서로 밀치며 몸싸움(?) 일보 직전까지 가고. 그나마 동네 사람들이 뜰어말려서 다행이지.

“ * @ £ π % ξ % No.am.℃ ℄ ㄱㅇ!!!”

씩씩거리며 엉망이 된 옷을 대충 털고 자리를 떠났다. 너무 흥분된 상태라 차 시동도 제대로 걸지 못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보니 워낙 불미스러운 일이라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조사도 제대로 못 마치고 참 옛 같은 기분이었다.

다음날, 미처 다하지 못한 조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현지로 나갔다. 마을 어귀에서 바라보니 다행히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행여나 또다시 만날세라 서둘러 나머지 농가의 조사를 마쳤다. 후유~ 그래도 일단 조사는 끝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싶어 시동을 걸고 막 출발하려는데 어제 그 이장님이 경운기를 몰고 오고 계셨다.

“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장님은 허허 웃으시면서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며 행여나 또 그 사람을 만나면 그냥 주사가 이해하고 모른 척 가라고 하셨다.

그로부터 1년의 세월이 지난 작년 연말. 그해 마지막 기축조사를 위해 다시 그 마을을 방문했는데 나는 이장님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이틀 전에 그 사람이 마을에 왔다 갔는데 영 딴 사람이 되어 왔다고

했다. 마을에 홀로 사시는 늙으신 모친을 모시러 오면서 돼지를 한 마리 잡아 마을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다. 이장님 말씀에 의하면 원래 그 사람은 부산에서 제법 건실한 납품업체(차량 배어링제조)를 운영했던 사장님이었다. 한때 동네에서도 출세했다고 제법 소문이 났던 사람이었으나 이후 경기침체와 심각한 자금난으로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간 상태가 되자 자포자기 심정으로 회사를 직원들에게 맡기고 낙향했는데 너무 상심한 나머지 근 몇 달 동안 술로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괜한 사람들에겐 시비를 걸고 말썽도 일으키고, 처음에는 마을사람들이 그런대로 이해했으나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지겹고 짜증나서 모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가 됐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한 지인의 도움으로 다시 사업을 재개하여 열심히 땀 결과 회사를 예전처럼 건실한 업체로 재건시켰다는 것이었다.

이장님 말씀을 듣고 나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그때 내 눈에 비친 그 사람은 한낱 술주정뱅이에다 마을의 애물단지에 불과했는데... 내가 사람을 봐도 한참 잘못 봤구나 싶었다.

그날 밤 나는 내 자신을 다시 한 번 돌이켜 보는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크나큰 오산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때는 '무엇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렇게 하도록 만들었는가?'라고 한번쯤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헤아려 봐야겠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를 가도 나는 항상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날 그 일만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해도 솔직히 공직자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공직자는 오로지 국민에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친절과 겸손함이 항상 몸에 배여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자각할 수 있었다.

이것을 망각했을 때 공직자로서의 품위 손상과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그날도 조사를 제대로 못 마치고 다음날 그 먼 곳을 또다시 가야만 했으니, 마을 사람들 볼 낫도 없을 뿐더러...

악연도 인연이라고 했던가. 그 때 그 사람...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한편으론 참 고마운 분이다. 일상의 나태 속에 젖어 있던 나를 다시 한 번 일깨워준 사람이 아니었던가. 잠시 잊고 있었던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나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자각하게 해 주었다.

공직생활을 접는 그날까지 항상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맡은바 공직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견디기 힘들었던 일일수록

더 소중하고 유쾌하게 느껴집니다.

공기의 저항 때문에 비행기가 뜨듯이

삶의 저항들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날게 합니다.



장학생 할머니



장려상

동북지방통계청 상주사무소 홍 영 미

가을 단풍이 고운빛깔로 물들어 가고 햇살은 눈부실 만큼 빛나는 가을!!

나는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가을 여행을 떠난다.

햇살에 더욱 반짝이는 황금들판이며 상주의 유일한 거리!

감나무 가로수 길은 탐스럽게 익은 감들로 보는 이의 마음을 더욱 더 풍요롭게 한다. 한껏 눈요기를 즐기며 다음 목적지인 진남교를 지난다. 문경의 팔경중의 하나인 진남교반에는 설악산 뺨칠 정도로 괴이한 절경이 펼쳐진다. 절경 사이로 가족끼리 철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고모산성에 오르는 사람들... 보는 걸로 잠깐이나마 대리 만족을 느끼며 다음 여행지인 문경시 마성면 오천리로 향한다.

본 조사구는 금년 5월부터 연동표본으로 개편되면서 가계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시골지역이라 큰 불용가구는 없이 가구명부 작성을 할 수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있었지만 문제는 문맹자 가구가 많았다. 가게부를 쓰려면 한글을 약간이라도 알면 좋으려면 적격가구 6가구 중 3가구가 문맹가구이다 보니 담당자가 매일매일 전화로 받아 적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두 달쯤 돼서 할머니가 가게부를 한권 달라고 하셨다.

“할머니, 가게부는 뭐하시게요?”

“자식 출가시키고 남편과 사별하고 지내면서 내내 못 배운게 뉘이었어. 고지서가 날라 와도 앞집에 가서 묻는 게 넘서시럽고 죽기 전에 동화책이라도 내 입으로 줄줄 읽고 죽으면 한이 없다.”

그런 생각에 무료 한글교실까지 다니신다고 하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찡해오면서 할머니가 참 존경스럽게 느껴졌다. 보통 나이 70세가 넘으면 한글이 아니라 여기저기 성한 곳이 없어 자기 몸도 가누기 바쁜데 73세의 나이에 한글에 도전을 했으니 참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다.

그로부터 나는 출장 때마다 할머니가 학교를 빼먹지 않고 가셨는지 학습 진도가 어디까지 갔는지 체크했다.

“요새는 농사일(300평미만) 때문에 학교 못 갔어.”

“할머니, 농땡이 치면 학교에서 퇴학당해요.”

농담을 섞고 서로 웃곤 한다.

“나는 매일 연습해도 까막고길 먹었는지 자꾸 잊어버려.”

부끄러우신 듯 가게부를 슬쩍 나에게 내미신다.

마월계돈(마을겅돈), 주저자(주전자), 또두리뭉(도토리뭉), 고드어(고등어), 닥드김(닭튀김) 등 중간에 가게부를 체크해보니 할머니의 한글 실력은 그야말로 대단했다. 아마 일제 강점기에 한글을 배웠으면 대학

교수를 하고 남을 할머니였다. 속으로는 할머니의 맞춤법 때문에 웃음이 나왔지만 진심으로 칭찬을 해드렸다.

“우와! 할머니, 진짜 대단하시다. 너무 잘 하셨어요.”

누가 봐도 할머니의 공부 열의는 대단했다.

그 이후로 큰아이 문제지 사러 서점에 들를 일이 생겼다. 서점 한 코너에 자리 잡은 ‘우리아이 한글 깨우치기’ 라는 문구가 들어왔다. 나는 할머니 생각에 저절로 발걸음이 옮겨졌다.

“할머니 수준엔 뭐가 좋을까?”

몇 권의 그림 동화책과 점선 따라 쓰는 한글 책을 골랐다. 할머니의 열정을 생각하면 몇 푼 안 되는 동화책 값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할머니 제가 동화책 사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 보실래요?”

머리를 굽적이며 비록 떠들떠들 읽으셨지만 생각보다 읽은 것도 너무 잘 따라하셨다.

“역시 할머니는 천재예요. 나중에 할머니 장학생되면 저한테 한턱내야 해요.”

농담을 섞으며 또 한바탕 웃는다.

이렇게 할머니와 같이 인연이 되어 나는 통계 선생님이란 별칭이 생기게 되었다. 동네에서 타 할머니의 부러움을 받으며 할머니는 오늘도 곱게 화장하고 학교에 갈 준비를 하신다. 구부정한 할머니의 모습도 왜 그리 좋아 보이는지... 다음에는 할머니 담임에게 “우리 할머니 잘 부탁한다.” 고 간식이라도 한번 썩 드려야겠다.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맞춤법이 틀려도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글자라도 할머니의 가게부는 다른 어느 가구의 가게부와 비교할 수 없다. 늦깎이 할머니를 보며 나도 게으름 부리지 않고 그동안 밀려온 사회조사분석사 공부를 시작해야겠다.

할머니의 열정과 사랑이 가득 담긴 가게부를 가져 올 때면 내 마음도 푸른 하늘을 찌를 듯 부풀어 오른다.

희망이 없으면 노력도 없다.

희망이 없는데, 노력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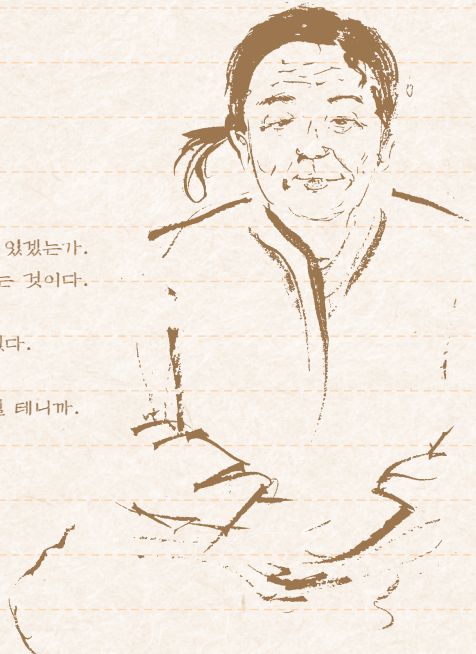
노력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목포 없이 일하는 사람은 없다.

골연지점 없이 달리는 마라토너는 없다.

희망을 먼저 가지자.

그리하면 자연스럽게 노력하는 사람이 될 테니까.



통계청과 함께 시작된 결혼생활



최우수상

| 가계동향조사 대상가구 | 제주시 노형동 이 유 현

어느덧 날씨는 여름의 끝자락을 달리고 있지만 여전히 무덥기만 하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긴 연애 끝에 결혼한 지 어언 2년 어렵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가를 이제야 소중히 품안에 품고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쉬지 않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다. 내 일이 소중한 아가를 힘들게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어떻게 해야 최선의 선택일까? 많은 고민 속에 가족들의 격려와 조언을 받으며 그동안 힘들기도 했지만 내 삶의 보람이기도 했던 병원근무를 그만두었다.

과연 내 결정이 잘 한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우선은 긴 시간을 지나 힘들게 찾아온 우리 소중한 보물에게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해본다.

결혼하고 나서 한 가정을 꾸리는 재무 설계에 들어갔다. 신랑과 나의 수입. 그에 따른 지출을 계산하고 가족을 위해 보험 설계 및 미래를 위한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적금 불입... 신랑과 이것저것 작은 의견충돌도 있었지만 나를 똑소리 나는 주부의 흉내를 내고 싶어 아는 지식, 없는 지식 총동원 그것도 부족하다는 생각에 컨설턴트의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가게의 재정을 정비해 나갔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통계청 가계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늘 밝은 얼굴로 찾아오시는 통계청 ○○○샘과도 좋은 인연이 되어 기뻐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써 본적 없던 가계부를 쓰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처음에는 대충 하면 되겠다는 생각에 쉽게 생각했던 것이 하루 이틀 안 쓰게 되는 날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웬지 귀찮고 안 하던 걸 하려니 별것도 아닌 것이 나를 무척 힘들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었다. 매일 매일 작성을 못하다 보니 내가 어제 돈을 어디다 썼더라? 어? 분명 돈이 얼마 있어야 하는데... 왜 지갑에 이것밖에 없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돌아가지 않는 머리를 여기 저기 열심히 굴려 보지만 결과는 이렇게 내가 벌써 치매에 접어드나 ㅎㅎ. 한 번씩 하고 웃음을 지어본다.

풋~ 암튼 그렇게 가계부를 쓰다 보니 문득 느낀 건 예전에는 내가 쓴 돈의 출처를 찾지 못해 그냥 어디다 썼겠지 하며 지나쳤던 내 생활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어? 이번 달은 내가 좀 과소비를 했네. 다음 달에는 좀 아껴야겠다는 생각도 갖게 되고, 특히 제주지역은 경조사 문화가 특이해서 내가 얼마 받았는지를 기억했다가 나중에 상대방 경조사 시 반드시 그 금액을 돌려 주어야 하는데 기억에 의존했던 나의 경제관념이 이제는 가계부를 들춰 보면서 쉽게 찾아 낼 수 있어 나의 기억보다는 아주 소중한 보조 기억

매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작성한 가계부를 통해 내 수입과 지출, 특히 내 소비성향을 볼 수 있어 어떤 부분의 소비를 줄여야 할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어떠한 재정전문가보다 훨씬 뛰어난 조언가의 역할을 가계부가 담당하고 있던 것이다. 말로만 하는 똑순이 주부가 아닌 가계부로써 보여주는 똑순이 주부로 거듭나게 도와준 나의 소중한 통계청 가계부~~

이처럼 통계청과 인연을 맺고 쓰기 시작한 가계부를 통해 나의 작은 생활이 변화된다는 놀라운 사실과 이런 작은 자료 하나하나가 모여져 우리나라의 통계 생산이 된다는 사실이 나도 작게나마 우리나라에 뭔가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왠지 뿌듯한 마음이 든다. 국방의 의무만 의무가... 통계 생산에 기여한 나의 작은 의무도 그에 못지않다고 생각하면서~

아무튼 통계청 가계부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나의 가계부 재정전문가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이제 8개월 후면 우리 소중한 아가가 태어난다.

지금도 열심히 나와 우리 아기를 위해 일하는 고마운 신랑. 그리고 시부모님, 가족들 내가 사랑하고 보살펴야하는 소중한 내 사람들...

대한민국 주부들은 참 대단하지 않은가? 나도 소중한 우리 가족을 위해 위대한 대한민국 주부가 되어보려 한다. 아자 아자!!

부족한 나의 2%를 채워준 가계부



우수상

| 가계동향조사 대상가구 | 제주도 삼도1동 박 전 숙

저는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딸을 둔 엄마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동네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통계청 직원이라며 찾아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이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표본가구라면서 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를 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지정이 되었다기에 이사를 간다고까지 했습니다.

직장은 있는지 있으면 어디에 다니는지 또한 무슨 일을 하는지 근로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는지 처음 방문에 너무 상세한 개인 사생활까지 묻고 답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황당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가계조사구역이라 가계부도 작성해야 한다는 말에 어느 누가 이 말을 듣고 커다란 거부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과연 이 동네가 이런 조사에 응해주고 있는지 조사구에 사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느껴지기까지 하였

습니다. 자신의 사생활을 만천하에 공개하라는 요구로 들려 선뜻 조사에 응대하여 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나이 많은 언니의 간곡한 부탁과 계속되는 방문으로 도리어 내가 너무나 게 아닌가 하는 미안한 생각까지 들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응대하는 통계청 직원이지만 참 열심히 한다는 생각에 조사에 서서히 응하게 되면서 조사원 언니와의 관계가 하루 이틀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응답가구와 조사원과의 관계가 아니 이웃집 언니처럼, 인생의 선배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개인 사정이 생겨 아이 둘을 데리고 사는 나에게 조사원 언니는 나의 이야기를 싫어하는 기색 없이 다 들어주면서 본인의 인생 경험담을 이야기 해주며 최대한 도울 수 있는 일들은 도와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친언니처럼 생각하기로 하고 통계청 조사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게부 기장도 열심히 하겠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덜컥 약속을 하고 나니 또 다른 고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잘 쓸 수 있을까? 또 내가 들어가는 적금, 보험 등 흑 대출이 있다면 나가는 이자 등등 모든 것들을 적어야 한데... 앞이 캄캄함을 느끼면서 웬지 나의 내장까지 다 보여줘야 된다는 부담감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렵지만 다시 한 번 거절하려고 마음먹고 있을 때 조사원 언니가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찾아와서 가게부 적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통계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국가통계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비밀보장도 확실하다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작성한 통계자료가 어려운 사람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들의 생활비 지원 방안 마련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간접적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통계자료라는 간곡한 부탁에 못하겠다는 말이 목구멍 밖으로 새어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 할 때까지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고쳐먹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가계부를 쓰면 매달 조사사례금도 나온다고 하면서 그걸로 아이들 문제지 정도는 구입할 수 있다고... 어떤 사람은 사례금을 3년 동안 모았더니 꽤 목돈이 되었다면서 없는 셈치고 한번 모아보라고 해서 종이가계부가 아닌 전자가계부를 쓰기에 도전하였습니다. 컴퓨터를 잘 몰라 처음에는 조사원 언니와 큰딸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바쁠 때는 딸에게 대신 입력도 부탁하고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색다른 경험을 체험하는 느낌이었다. 가계부 작성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조사원 언니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어느덧 1년 반이란 시간이 흘러가 있었습니다.

귀찮아서 안 쓰려고 했던 가계부였는데 제 딸들도 그날그날 쓴 용돈을 가계부에 적어놓는 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용돈을 어디에 쓰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돈에 대한 소중함을 배운 듯 용돈을 아끼면서 저금통에 동전을 모으는 모습이 가계부 적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생각했던 나의 마음에 조금씩 작은 보람으로 되돌아오는 듯했습니다. 만약 가계부를 적지 않았더라면 우리 아이들이 자기 용돈 씀씀이도 몰랐을 거고 저 역시 우리 가정의 씀씀이를 알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월급은 아니지만 한 달 수입에서 내가 지출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있었고 또 어떻게 해야 저축을 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었으니 고맙기도 합니다.

처음에 제 사생활을 물어본다고 짜증을 내고 대답하기 싫다고 했던
말도 이제는 “미안했다”고 메아리가 되어 제 가슴에 들어옵니다.

나의 부족한 2%를 채워준 가계부를 적을 날도 이제는 몇 개월이 남지
않았지만 통계조사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계속 가계부는 쓸 생각입니다.
저와 우리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세상에 태어나서

한번도 좋은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그것이 계속되지 않았을 뿐이다.

어제 맨 끈은 오늘 허슬해지기 쉽고 내일은 풀어지기 쉽다.

나날이 다시 끈을 여며야 하듯

사람도 자신이 결심한 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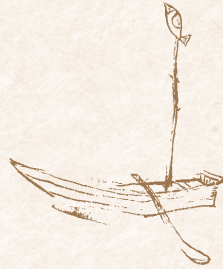
나날이 거름 여며야 변하지 않는다.



가계부 쓰는 재미를 알게 됐어요

장려상

| 가계동향조사 대상가구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김 지 연



결혼 후 신혼도 없이 임신과 출산 양육에 시달리다 보니 살림은 항상 뒷전으로 미루고 살았습니다. 아이가 어리다보니 외출이 쉽지 않았죠. 남편이 쉬는 주말에 한 번씩 마트에 가면 필요하다 싶은 걸 보이는 대로 일단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꼼꼼히 체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연년생 남자아이 둘을 키우면서 그렇게 꼼꼼하게 사는 것은 저에게 무리였습니다.

별난 아들 둘 때문에 1층으로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통계청 조사원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우리 집이 표본가구라서 가계부를 쓰면 사례금을 주신다면서 예전에 살던 사람들도 가계부를 썼다며 한번 해 보라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할 시간도 없고 복잡한 건 딱 질색이어서 단박에 거절

했습니다. 사례금이 문제가 아니라 매일 매일 가계부를 적어야 한다는 것에 두려움이 앞섰죠. 분명히 난 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 후 지금까지 5년이 지나도록 아이들 핑계 대면서 영수증 한 번 제대로 본 적도 없고 가계부를 가져 본 적도 없는 내가 괜히 한다고 했다가 민폐를 끼칠까봐 손사래를 쳤던 거죠. 조사원 아주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번 해 볼 걸 그랬나 싶은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내 성격에 안 하는 게 백 번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주머니께서 또 오셔서 앞으로 살림을 할 날이 더 많이 남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가계부 쓰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고 설득하시는 겁니다. 아주머니도 신혼 때는 가계부 쓰는 게 어려웠는데 습관 들이고 나면 재미도 있고 가계 살림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보다 더 오래 살림을 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와 닿더군요.

그리고 컴퓨터로 쉽게 하는 방법이 있다며 젊은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말에 전자가계부에 발을 들여 놓게 되었습니다.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시고 하시는 설명을 듣고 모르는 것은 매뉴얼을 보면서 따라하니 쉽게 쓸 수 있어서 전혀 어려움 없이 가계부를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계부를 쓰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일단 무조건 영수증을 모아 놓기 시작했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사이트에 접속해서 한꺼번에 쪽 적어 넣었는데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나다 보니 이제는 매일 컴퓨터를 켤 때마다 먼저 사이트에 접속해서 적는 습관이 들었습니다. 보통 가계부라 생각하면 이것저것 어려울 것 같지만 전자가계부는 영수증보고 쪽 적고 클릭만 하면 되니까 그냥 메일 쓰듯이 쉽게 쓸 수 있어 가능한 일이었죠.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가계부를 쓰다 보니 새는 돈을 막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관리비 내역서도 예전에는 그냥 한번 보고 말았는데 가계부에 기입하려고 내역서를 꼼꼼히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이 1층이라 엘리베이터 요금은 안 내는 줄 알고 있었는데 다른 집과 똑같이 내고 있는 걸 발견하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항의한 적도 있었죠. 또 마트에서 요구르트를 1팩을 샀는데 3팩이나 샀다고 계산된 것도 발견해서 CCTV까지 돌려보고 1팩 산 것을 확인한 후에 환불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태껏 5년 동안 영수증 한번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데 그동안 이렇게 돈이 새어 나갔을 걸 생각하니 살짝 배가 아프더군요. 매달 가계부를 쓰고 월말에 꼭 다시 한 번 보니 마트에서 반찬거리를 늘 사는 것만 사는 저의 소비패턴을 보고 새로운 반찬거리에 도전도 해 보았고요. 외식비가 많이 나가는 걸 알 수 있어 좀 자제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또, 영수증을 모아 놓게 되니 마트에서 하는 영수증 복권행사에도 참여해 한 번씩 당첨되어 휴지를 받은 적도 있어 살림에 보탬도 되더라고요. 여태껏 가계부를 쓰지 않으면서 놓쳤던 소소한 재미와 이익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가계부를 쓰는 게 좋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덕분에 저는 가계부 쓰는 방법과 재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5년 동안 무계획적인 살림이었다면 최소 앞으로의 30년은 가계부를 쓰면서 꼼꼼하고 알뜰한 살림을 살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주부 9단의 대열로...



장려상

| 가계동향조사 대상가구 |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최 현

통계청 가계부를 쓴 지 딱 일 년이다.

통계청 가계부를 쓰기 시작할 때는 첫아이가 아직 어려서 집에 데리고 있었고 둘째아이를 임신 중이었다. 첫아이 낳기 전에는 씹씹이가 많지 않아 거의 다 저축하고 소비하는 부분은 다이어리에 간단히 메모만 하는 정도였고 인터넷(모네타) 가계부를 종종 사용하였다. 그렇지만 첫 아이를 낳고 나서는 사실 가계부를 거의 쓰지 않고 있었다. 그래도 나름대로 가계부는 쓰지 않지만 계획적으로 소비하고 충동구매하지 않고 과소비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연찮게 통계청 가계부 쓰기를 권유 받고 두 달 동안은 수기로 적어서 가계부를 적었었다. 영수증을 붙이고 내용을 적고 분류하는 것이 귀찮았지만 오랜만에 가계부를 적는 터라 적잖이 재미도 있었다. 한 달에 여러 번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통계청 직원이 집으로 방문하여 처음에 가계부를 적을 때 유의사항이며 작성 방법이며 여러 가지를 알려주었다. 늘 친절하고 미소 가득한 얼굴로 해주어 첫 만남에도 부담이 없었지만 가계부를 쓰면서 궁금한 점도 거리낌 없이 질문할 수도 있었다.

가계부를 수기로 적기를 두 달하고 전자가계부로 쓰기 시작하였다. 편지도 이메일이 더 편리하고 손 글씨가 이제는 어색하게 되어 사실 손으로 적는 가계부는 적잖이 귀찮기도 하였었다.

예전에 인터넷 가계부를 적었던 터라 전자가계부를 사용하기는 편리하였다. 아니 예전에 썼던 인터넷 가계부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간편하였다. 내용만 입력하면 분류가 자동으로 되었고 수입, 지출 내역을 한눈에 볼 수도 있었다. 그리고 가장 내가 자주 이용하는 버튼은 계좌 불러오기와 지출 내역 보고서이다.

계좌 불러오기는 가계부 입력에 아주 용이하였고 통장 입출내역을 알기위해서 일부러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었다. 너무도 간편하고 편리해서 신랑에게도 자랑을 했더니 신랑은 오히려 “이거 우리 세금이나 수입이 다 공개되어서 나중에 문제되는 것 아니냐?”며 괜한 걱정을 하면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만 보내어서 하지 말라고 할 때. 그러면 나는 마치 통계청 직원인양 절대 비밀보장 되며 다른 사유로 정보가 절대 누출되지 않는다면서 뽀로통해지기 일쑤였다.

그리고 지출 내역 보고서는 가계부를 쓰면서 앞으로 가계지출을 예상하고 더 절약할 수 있게 해주었다. 사실 가계부를 쓰면서 그냥 소비한 것만 적기만 했는데 전자가계부를 접하고 나서는 우리 가족의 소비 패턴을 정확히

알 수가 있었다.

‘저번 달에는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먹었구나! 경조사비가 많이 나갔네? 애들 병원비가 장난 아니군.’

월 마감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지난 한 달을 반성하고 나면 금월에는 무엇을 줄여야겠다는 예산을 손쉽게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가게부를 쓰다보면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다. 입력을 하고 수입지출보고서를 검토하느라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다.

처음에 밤늦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던 신랑도 첫 통계청 사례금으로 한 톱(?) 내었더니 의외로 신랑도 이제 나를 지지해준다. 물론 통계청 사례금 덕분에 있었지만 열심히 가게부를 쓰는 모습을 본 신랑은 자신이 쓴 영수증도 챙겨주면서 나를 격려해 주었다. 나는 마치 내가 우리 집 가게에 큰 도움을 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만 전념하면서 조금은 나태해지고 내 자신에 소홀해 왔었다. 가게부를 이렇게 일 년 동안 꾸준하게 쓰게 될지도 몰랐고 이렇게 꾸준히 해온 나 자신이 왠지 대견스럽다. 전업 주부이지만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 나라에 조그맣게 보탬이 되고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어깨가 으쓱해지기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그래서 나는 가게부를 쓰는 것을 주변사람들에게 알려주어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권유하곤 하였다. 친정언니에게도 은근히 나 가게부 쓰고 오만 원 받는 여자라며 농담 삼아 자랑하기도 하였다.

가게부를 접하기 전 아직 살림도 손에 익지 않았고 오로지 신랑이 돈만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잘 벌어들이면 우리 가게는 풍요로울 거라고만 생각했었다. 일 년 정도 꾸준히 가게부를 적으면서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다. 내 손에서 우리 집 살림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전업주부라서 다른 직장 여성보다 가정 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정확히 가게부를 적으면서 우리 집 가게, 그리고 우리나라 통계조사에도 도움(·)을 주게 되었다.

이제 결혼 3년차, 두 아이의 엄마, 가게부 1년차, 이제 나도 어엿한 대한민국의 주부 9단의 대열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감사합니다.

보고싶을 땐 보고싶은 자리에
힘이 들 땐 등 토닥여 위로해주는 자리에
혼자라는 생각이 드는 날엔
손잡아 함께라고 말해주는 자리에...

그렇게 필요한 날, 필요한 자리에
그 자리에 있어줄 사람이 있다는 거,
너무도 행복한 일이겠죠.



내 인생의 가계부



장려상

| 가계동향조사 대상가구 |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박혜경

전자가계부를 쓰기 시작한 지도 벌써 2년이 가까워집니다.

한 달이면 두 명이 사용하는 200여건 가량 되는 수입, 지출내역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그 내용 속에 우리 가족의 삶이 들어있습니다. 단순히 돈이 들고 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입는 것 외에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어떤 일을 열심히 하려고 결심했는지도 보입니다.

사실 통계청에서 가계부를 써보라는 제의를 받았을 때 가장인 남편의 수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직장 생활로 바빠서 쓸 수도 없는데 표본가구로 선정 되었다고 하며 찾아오신 직원분의 섬세하고 깃듯한 안내가 거절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종이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나 영수증을 꼭 받는 습관부터 생겼습니다.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내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고도 평소 같으면 버리던 얇은 영수증을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소중하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전자가계부를 쓰게 되었는데 좀 신기하기도 하고 신용카드사용 내역을 수시로 일목요연하게 알아 볼 수 있어서 지출 규모를 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례로 카드회사에서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 사용할 때 pay back을 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전자가계부의 신용카드 조회기능을 이용해 금액을 맞춘 경우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지출만 하려고 가계부를 잘 검토 해보게 되었고 씹씹이를 보면서 분석도 할 수 있어 가계소비를 짜임새 있게 하려는 노력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합리적인 소비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 얼마나 주관적인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상품가격을 일일이 기록하다 보니 자주 가는 할인점의 가격과 동네 가게의 가격차를 명확히 알게 되고 큰 차이가 없을 때는 필요할 때마다 동네에서 사는 것이 신선도 유지에 좋고 버리는 경우도 줄어 오히려 더 이익이었습니다.

주부생활 20년 넘게 했는데 이제야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디에 썼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월말이면 지갑에 구멍이 뽕 뚫린 듯 하던 생각에서 벗어나게 된 것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늘 바쁜 일상에 쫓기는 터라 가계부 기입이 숙제처럼 부담으로 다가와 힘들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집을 며칠 비워야 할 경우 돌아와서 영수증을 수북하게 올려 놓고 혹시 빠진 게 없나 살피기도 해야 할 때 가계부가 '원수'로 여겨졌습니다! 이제는 숙련공이 견습시절을 돌아보듯 그 때는 까마득하게 여겨지고 지금은 여유 있게 가계부를 씩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가늠해봐야 하는 통계조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흐뭇합니다.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아차! 가계부! 하면서 통계청 전자가계부에 들어가 봅니다.

최근에는 아들에게도 용돈 기입장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 하나를 가지게 된 것 같아 즐거운 마음입니다. 돈 주고 못 살 소중한 습관을 얻었습니다. 나중에는 통계청 가계부가 끝나더라도 가계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계부를 지속적으로 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통계청 전자가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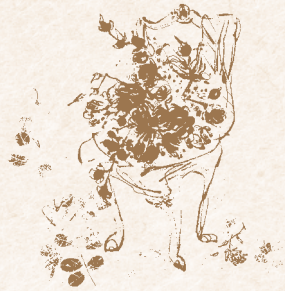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배에 싣고
노력이라는 두 글자로 노를 저어
실패라는 두 글자가 길을 막아도
인내라는 두 글자로 헤쳐나간다...
성공이라는 두 글자를 만날때까지.....



소중한 인연을 마치면서

장려상

1기계동향조사 대상가구 제주도 용담2동 최 영 실



3년간 통계청에서 표본조사구로 선정되어 가계부를 썼는데 이사를 가게 되었다.

통계청 직원이 마지막으로 가계부 체험수기를 작성해보라고 권했다.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싫어했는데 통계청 직원의 고마웠던 마음을 생각하여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생각에 한번 작성해보기로 했다.

2008년 9월 1층 집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통계청입니다. 문을 조금만 열어주세요.”

착하게 보이는 언니 한 명이 들어왔다.

통계청 직원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가계동향조사의 취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무턱대고 뽑아 달라고 들이댔다.

“언니! 저 가계부 매일매일 잘 쓰는데 뽑아주세요.”

1층 은아 엄마에게도 “빨리 가계부 잘 쓴다고 말해.” 하면서 뽀아달라고 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가계부를 쓰면 선물이 와르르 쏟아진다는 것을….

“호호호, 호호호”

시집가서 보니 시아버지께서 꼬박꼬박 농가경제조사 일계부를 쓰고 계셨다. 안경까지 쓰시고 열심히 하는 걸 보고 공부하고 계시는 줄 알았다. 어머님이 써야 할 가계부를 아버지께서 그날그날 정성껏 쓰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님 말씀이 통계청에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깨끗이 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통계청에서 생활용품, 참치세트 등을 갖다 준다고 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대 갈 때마다 치약이며 세제, 비누 등이 있으면 “어머님, 저 이것 가져가도 되죠?” 하며 아무생각 없이 갖다 썼는데….

이제는 내가 가계부를 써서 아버지께 선물을 갖다드려야지 하는 욕심이 생겼다. 통계청 직원이 표본조사구로 선정되었다며 전자가계부를 써야한다고 했다. 이빨싸! 나는 컴맹이다.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에 아들의 도움도 받고 통계청 직원의 도움을 받으며 첫 달을 마감했다.

돈 쓴 게 있어도 안 적고 ‘모르겠지?’ 하는 마음에 그냥 대충대충 했다. 통계청 직원이 전화해서 “수도요금, TV수신료, 컴퓨터, 전화요금도 없네요? 사용 안 해요?” 하며 물었다.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지는데 그것까지 다 써야하나? 조금은 짜증이 났지만 정확히 써야한다고 했다.

돈에 관한 거라 민감한 사람들은 싫어할 것 같았다. 통계청 직원이 통계 조사는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통계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라 안심하고 협조해 달라고 했다. 그날그날 컴퓨터를 켜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통계청에서 준 가계부에 적었다가 일주일씩 월요일 오전에 등록하여 저장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하는 방식으로 한 달, 두 달 하다 보니 이제는 제법 빨리 치고 능숙해 졌다.

올해 초에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간담회도 참석했다. 통계청은 어떤 곳인지 통계청에서 하는 일이란 무엇인지 내가 쓰고 있는 가계부가 몇 백 명의 표본통계조사 자료로 쓰이고 있는지 등... 왜 자세하고 정확히 써야하는지 알게 되었다.

각종 통계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일을 하는 곳으로 통계청의 정확한 통계조사로 나라정책에 반영되며 엉터리로 작성하면 그 통계를 근거로 나오는 정책 또한 엉망이 되고 나라에서 정책을 세운다거나 기업체에서 전략을 세우는 등의 모든 곳에서 통계자료는 꼭 필요한 것이라며 뿌듯한 마음을 가지라고 했다.

살면서 돈 주고도 배우지 못할 경험도 쌓고 선물도 받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바람도 쐬고 수도도 떨고 집안일로 쌓인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 버렸다.

통계청 직원하고도 한 달에 서너 번씩 얼굴 보고 전화통화도 하다 보니 친해져서 아이들 교육에 관한 이야기, 어디학원이 좋은지, 세상사는 이야기도 듣고 좋았다. 통계청 직원은 돌아다니는 소식통이었다.

상품권 때문에 가계부를 써주었지만 전자가계부를 쓰면서 나에게는 경제를 한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좋은 경험이었다. 전자가계부를 하면서 수입과 지출을 한눈에 볼 수 있어 편리했고 아이들 아빠가 지출을 줄일 수 있어 고마웠다. 2년간 가계부를 쓰면서 이런저런 일도 생기고 통계청과 인연을 맺게 되어 통계청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이제 이사 가는 집은 지금 살던 집보다 두 배나 큰 집이다. 더 아껴 쓰고
가계부도 더 열심히 써야겠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늦은 시간까지 통계조사를 위해 노력하는 통계청
직원언니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아~~ 가계부 쓰고 싶은데...?

이제는 예쁜 통계청 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니 아쉽다.

이사 가기 싫다. 어떻게 안 될까요? 줘! 도와주세요!!

내가 가진 것을

다 써 버리지 않고 여분의 것을

끝까지 남겨둘 줄 아는 사람

말을 남겨두고,

그리움을 남겨두고,

사랑도 남겨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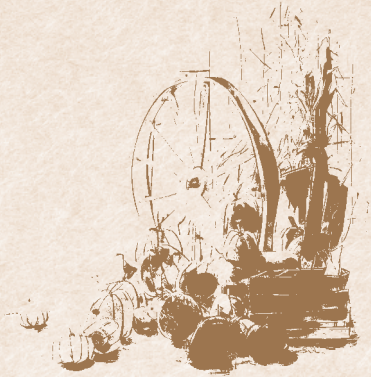
경도 남겨두고

다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기분 좋은 만남

| 축산물생산비 대상가구 | 충남 당진군 합덕읍 김 철 상



‘만남’이란 단어의 뜻은 만나는 일이다. 그 단어는 사람들에게 설렘과 두근거림을 주는 단어이기도 하다.

어느 날 어떤 아주머니가 찾아왔다. 웃으면서 아주 반갑게...

친절하지만 요즘은 워낙 불신 사회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여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나라에서 주관하는 일이라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었다. 어색했지만 그다지 기분 나쁜 만남은 아니었다. 그때부터 인연이 시작되었던 것 같다. 일주일에 한 번의 만남은 생각보다 컸다. 매번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다. 일 때문에 만나는 단순히 그런 관계보다는 일을 하면서 힘들거나 하는 부분도 같이 얘기하게 되면서 때로는 누나 같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 같기도 한 편한 사이로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다.

젖소를 키운다고 하면 다들 저 푸른 초원위에 평화롭게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겠지만 그건 매체에서 만들어진 허상에 불과하고 실상은 그렇지 않다. 뒤치다꺼리도 많고 보살피 줘야 되는 부분도 많고 동물이다 보니까 감정도 느낀다. 조금이라도 소홀하다 싶으면 우유 양에서 차이가 나고 눈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들 편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직장에 다니는 남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휴일이라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매일매일 꾸준히 하지 않으면 유지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부모님 상을 당해도 상주가 자리에 있다가도 일할 시간이면 일하고 다시 와야 되니 말이다. 그 사정은 당해보지 않으면 잘 모른다. 남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일도 아니니 말이다.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는 자금도 만만치 않다. 특히 사료 값과 의약품은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나도 때로는 어디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하나하나 체크하기가 힘이 들 때도 많다.

처음에 일계부를 갖다 주며 써달라고 할 때는 귀찮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었다.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정이 생겨서 해주시기도 하지만 내가 오히려 어디에 어떻게 지출이 되고 얼마나 늘고 하는 부분이 크게 보이면서 머릿속에 스스로 정리가 되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만나는 일이 즐거워지기 시작했다.

특히나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특별할지도 모른다. 휴대 전화에 통계청 아줌마라고 쓰여 있던 그분이 이제는 처형이 됐으니 말이다..

작년 여름 무더운 어느 날 통계청 아줌마는 평소에 나를 좋게 봤다고 하면서 소개를 하겠다고 했다. 평소에 나는 그런 소개에 의한 만남은 좋아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하지 않아서 그런 자리가 들어와도 나가지 않는 편이었다. 그런데 그분의 추천은 웬지 모르게 믿음도 가고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 예감이 적중을 해서 지금은 어여쁜 내 아내가 되었다.

사람의 만남이라는 게 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불교에서 보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정말 남이 아니니 말이다.

이 일을 앞으로도 잘 협조해줄 생각이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정말 보람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이 그런 제의를 받는다고 하면 적극 추천 해주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축스럽지만...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마음과 생각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을 생각하면 마음도 명쾌하고 밝아집니다.
나쁜 마음을 품으면 생각도 어둡고 복잡해집니다.

마음에 푸른 가지를 품으면 좋은 생각이라는 이름의
새들이 날아와 그 곳에 앉아 노래를 합니다.

마음 나무를 늘 푸르게 하십시오.
따뜻한 햇살과 신선한 공기를 주고 적당히 물을 주십시오.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발행 : 2010년 12월

발행인 : 통계청장 이인실

편집인 : 조사관리국장 김광섭

발행처 : 통계청

기획 : 조사기획과장 김남훈

사무관 신명철, 정명자, 전준우

주무관 김연정, 김유선, 배준형, 순수현, 심명은, 이상엽

이용심, 정윤심, 정희길, 조혜진, 최 숙, 홍훈식

기획 진행 및 디자인 : 강문인쇄기획 (042) 226-4722~3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우 302-701)

전화 : (042) 481-3712~3

홈페이지 : <http://www.kostat.go.kr>

마지막 면입니다.